내부업무참고자료

政 府 開 發 援 助

1991. 12.

KOICA

韓國國際協力團
研究資料局

이 자료는 '91년 9월에 발행된 일본의 「政府開發援助」(勁草書房發行)를 내부업무참고용으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900016

머리말

開發途上國에 대한 日本의 政府開發援助(ODA)는 바야흐로 年間 1兆 數千億円에 달하는 大規模 政府事業이 되었고, 1989년의 實績을 보면 마침내 미국의 援助額을 능가하여 日本이 世界 最大의 援助國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國家에 중점을 두면서도, 援助對象國은 中南美, 中東, 아프리카 각 지역으로부터 나아가 東歐에 이르기까지 全世界的으로 퍼져 있고, ODA는 널리 日本과 開發途上國 間의 友好關係의 礎石을 다지고 있습니다. 일찌기 開途國의 一員으로서 世界銀行으로부터 資金을 借入, 東海道新幹線 등의 經濟基盤整備를 추진했던 日本입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그 世界銀行을 비롯한 國際開發金融機關이나 國際聯合機關에서도 미국과 견줄 만큼의 出資내지는 資金據出을 하고 있어 先進國중에서도 主導的인 役割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년에 들어 政治的으로는 蘇聯·東歐情勢의 激變이라든지 이에 버금가는 걸프전쟁이 발발했고, 冷戰後의 世界 情勢는 기대에 반하여 오히려 不安定化의 시대로 突入했습니다. 經濟的으로는 우선 소강상태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여전히 累積 債務問題는 심각하고 一次産品不況도 계속 심각화돼가는 상태이며, 「北」의 선진국과 「南」의 開發途上國의 소득격차는 더욱 확대되어 가는 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東歐 및 中東에서 또는 中南美에서도 資金需要가 증대되고 있고, 日本에 대한 기대·요청은 점점 높아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日本의 ODA는 世界的인 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日本으로서도 ODA를 어떠한 理念을 갖고 운용해 갈 것인가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걸프 전쟁후는, 國際社會에 대한 공헌책을 둘러싸고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ODA를 외교이념 실현을 위한 중요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써야한다는 주장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의 연관이라든지 빈곤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 등 日本 ODA에 대한 批判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내걸고 援助에 지나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開途國에 대해서도 援助供與國으로서도 반드시 효과적이거나 上策이 아닌 것은 이미 일부 선진

국이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만 日本의 ODA가 현실적인 실시면에 있어서는 갖가지 문제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너무나도 빈약한 실시체제의 발본적인 내실강화를 비롯, 진지하게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外務省 經濟協力局에 근무하면서 국내(局內)의 技術協力課, 調査計劃課, 政策課 等 各課에서 經濟協力 實務에 종사하고, 또 재외공관 근무에서도 技術協力으로부터 無償援助, 円借款까지 폭넓게 실지로 담당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經濟協力 評價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조사·연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1985년에 勁草書房의 (故) 井村壽二 社長으로부터 권유받아, 本書初版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만, 이후 ODA의 世界 變化가 심하고 내용적인 변화도 보이고 통계도 낡은 것이 되어 버렸으므로 이번 대폭적으로 수정,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理念」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도 좋은 현상이며 비판이 많아지는 것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비판중에는 명백히 오해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는 것이라든지, ODA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經濟協力에 관한 서적이나 논문은 세상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무척 난해한 것이 많고 또 ODA비판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본서는 ODA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가능한 한 평이하게 해설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日本이 평화헌법을 가진 平和國家로서 世界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해간다는 의미에서 ODA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ODA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樋口貞夫

- 목　　차 -

머리말

序　章　日本의 開發途上國 援助 …… 1

……對 네팔 援助를 例로 들어
円借款,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 民間의 援助活動,
國際機關을 通한 援助

第1章　政府開發援助 …… 7

1. 政府開發援助
DAC, ODA의 定義, OOF, PF, 非營利 團體에 의한 贈與　7
2. 日本의 ODA와 國際比較
가. 量的 比較　10
89년의 實績, 兩國間 ODA, 國際 機關의 ODA,
ODA의 GNP對比, 國民 1인당 ODA 負擔額
나. 質的 比較　12
「質」의 意味, 贈與 比率과 그랜트 엘리먼트,
援助條件의 推移, 質의 國際的 比較
다. ODA의 地理的 配分　14
地理的 配分動向, 兩國間 ODA의 主要受援國,
DAC會員國의 ODA 配分動向

라. 兩國間 (bilateral) 援助와 多國間 (multilateral) 援助 17
마. DAC諸國의 援助 18
바. ODA의 豫算과 財源 19
一般會計, 財政投融資, 出資國債, 大部分의 政府
各機關에 計上된 ODA豫算
사. ODA의 擴充을 위한 努力 20

第 2 章 政府開發援助의 形態 ····· 28
第 1節 兩國間 援助 28
1. 無償資金協力 28
가. 一般無償援助 29
나. 債務救濟 32
다. 水產無償援助 33
라. 災害關係援助 34
마. 文化無償援助 34
바. 食糧援助 35
사. 食糧增產援助 36
2. 技術協力 36
가. 國際協力事業團의 技術協力 39
(1) 研修生招請事業 39
(2) 專門家派遣事業 41
(3) 機資材供與事業 42
(4) 프로젝트方式技術協力 43
(5) 開發調査事業 44
(6) 開發協力事業 49
(7) 青年海外協力隊事業 49
나. 기타 技術協力 51

3. 政府間貸付 52
가. 供與의 形態 55
(1) 프로젝트 借款 56
(2) Non 프로젝트 (프로그램) 借款 57
(ㄱ) 商品借款 57
(ㄴ) 開發金融借款 (two step loan) 57
(ㄷ) 開發資材型借款 58
(ㄹ) 構造調整融資 58
(ㅁ) 債務救濟 59
나. 地理的配分 動向 60
다. 調達方式 61

第 2節 國際機關을 통한 援助 ····· 62

1. 國際開發 金融機關에 의한 援助의 概要 63
가. 國際復興開發銀行 63
나. 國際開發協會 65
다. 國際金融公社 67
라. 多國間 投資保證機關 68
마. 國際農業開發基金 68
바. 아시아開發銀行 69
사. 美洲開發銀行 71
아. 아프리카開發銀行 71
자. 아프리카開發基金 72
(참고) 歐洲復興開發銀行 73
2. 國際聯合 關係援助機關에 의한 援助의 概要 73
가. 國際聯合開發計劃 74

나. 國際聯合難民 高等辦務官 事務局 74
다. 國際聯合食糧農業機關 75
라. 國際聯合人口活動基金 76

第 3 章 經濟協力의 實施節次 ····· 77

1. 要請主義 77
2. 無償資金協力 79
3. 技術協力 82
4. 有償資金協力 88

第 4 章 效果的, 效率的인 援助 ····· 92

1. 政策對話의 推進과 國家別 援助計劃 93
政策對話, 年次協議, 國家別 援助計劃의 必要性
2. 經濟協力의 評價 95
評價의 意義, 評價報告書의 發表, 評價의 어려움
3. 評價의 國際的 動向과 敎訓 99
DAC援助評價 專門家協會, 배워야할 敎訓, 援助實施의 制度上·政策上 問題, 國別 援助計劃 策定의 必要性, 援助實施上의 問題点, 피드백의 重要性
4. NGO와의 提携 106
NGO의 成長, 歐美 NGO와의 本質的 差異, NGO의 分類, NGO와의 提携

第 5 章 援助의 理念과 歷史 ····· 113

第 6 章 效果的 效率的 援助를 위한 課題 ····· 124

1. 詳細한 援助와 實施體制의 强化充實 124
2. 技術協力의 充實 129
3. 專門家의 養成·確保 132
國際協力綜合硏修所, 國際開發高等敎育機關, 아시아經濟硏究所開發스쿨
4. 새로운 課題에 대한 對應 135
가. 開發과 環境 135
나. 開發과 女性 137
5. 開發敎育의 充實 139

終 章 다시 對 네팔 援助에 대하여 ····· 142

資料編 ····· 149

序 章 日本의 開發途上國 援助

對 네팔援助를 例로 들어

네팔은 世界에서 가장 가난한 國家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전형적인 後發開發途上國(LLDC)이다(자료편 1의 (1)의 (ii) 및 3의 (15)참조).

「하얀 神들의 座」라고 불리는 7·8천 미터급의 世界 高峰을 많이 갖고 있는 이 國家에 최근 수많은 日本人이 방문, 텔레비젼이라든지 신문에 이 國家에 대한 것이 많이 소개되고 있으므로 근래 갑자기 친숙해진 國家이다. 人口 약 천팔백만名, 남쪽은 인도와 국경을 접하는 열대 평원(타라이)지방으로부터 북쪽은 에베레스트, 마나슬루, 안나푸르나 등의 봉우리들이 이어지는 히말라야 산맥에 이르기까지 산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山岳國家이다. 그러나, 그 국토의 면적은 기껏해야 北海道의 두배에 못미칠 정도고, 주민의 9할이상이 농민으로 山岳國家의 좁은 토지를 문자그대로 경작해서 하늘에 이른다고 할 정도로 山間의 토지라든지 산의 사면을 경작해서 생활을 지탱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백수십달러로서 현저하게 낮고, 日本 1人當 國民所得의 1%에도 못미친다.

筆者는 일찌기 이 國家에서 2년 정도 근무하고, 이 國家에 대한 日本政府의 經濟技術協力에 관한 실무에 직접 종사할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우선 네팔을 무대로 하여 日本이 政府 베이스로 어떠한 經濟協力, 技術協力을 행하고 있는가를 예시적으로 들면서 日本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의 구체적인 형태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한다.

首都 카투만두市 서쪽에 크레카니江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다. 커다란 강은 아니지만, 山岳國家인만큼 양기슭의 경치는 대단히 아름답다. 카투만두市 남서쪽 약 20킬로미터 지점에 록크 휠 댐을 건설하고, 이 강의 물을 저장해서 6萬 kw의 발전을 행하는 크레카니 第 1 水力發電所가 건설되어 있다. 카투만두로부터 댐 현장까지는 산 구릉을 누비는 길을 차로 달리면 약 3시간, 산간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직선적으로 걸어도 약 5시간 정도이면 갈수 있는 안성마춤의 트래킹 코스이다. 댐 공사는 77년 여름에 착공하고, 82년 3월에 송전을 개시했다. 댐, 도수(導水)터널, 발전소, 변전소 등 토목건설 공사는 世界銀行이나 쿠웨이트基金등의 融資에 의해 실시되고, 日本은 送變電機器, 발전기 등 기계류의 조달에 필요한 資金합계 40億 5百萬円(금리 2.7%, 상환기간은 거치기간10년을 포함 30년)을 供與했다. 이 資金은 日·네팔 양국의 政府間 합의에 입각하여 海外經濟協力基金(OECF)을 통해서 대부된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円借款」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6萬 kw의 전력은 日本 수준에서 보면 미미한 전력이지만, 네팔에 있어서는 최초의 大規模發電이고, 이로 인해 특히 수도 카투만두의 전력사정은 일시에 호전되었다. 그때까지는 매일같이 정전이 있어 정전시의 수도권은 히말라야 산맥의 검게 칠한 분지에 깊이 가라앉아 있었고, 정전이 아닐 때라도 전압의 變動이 심하고, 전구는 밝지않고, 간신히 텅스텐선이 빨갛게 되어 있을 정도의 날이 적지 않았었다. 日本이 円借款을 供與한 것은 機器, 機械類의 40億円 정도에 불과했지만 시행관리 전반을 日本의 日本工榮이 청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팔에서는 이 발전계획 전체가 日本의 援助 프로젝트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않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네팔에서 최대의 자원은 「하얀 석탄」이라고 불리우는 히말라야 산맥의 눈이다. 이 때문에 이 國家에 있어서 水資源開發 優先順位(priority)는 매우 높다. 장래에는 인도에 대한 電力販賣도 기대된다. 日本은 크레카니 第 1 水力發電所에서 사용한 물을 하류에서 재차 사용하여 전력을 일으키려고 하는 크레카니 第 2 水力發電所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援助할 것으로 하고, 합계 121億 5千萬円의 円借款을 供與했다. 第 1 發電所의 토목공사는 한국의 三扶土建(주)가 都給받았지만 이 第 2 發電所는 시행관리, 토목

공사 모두 日本企業이 都給받아 시행관리는 日本工榮이, 토목공사는 間組가 맡았다. 이 전력 사업외에 네팔에는 또 한건의 커다란 円借款이 供與되어 있다. 그것은 네팔 남동부의 우다이풀 地方에 비교적 풍부한 石灰岩을 활용해서 시멘트를 생산하는 시멘트 공장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資金이다. 87년도에 187億 7千萬円의 円借款 供與가 약속되었다. 外國援助에 의해 건설된 소규모 시멘트 공장이 수도권에도 있지만,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 이 신설공장은 앞으로 네팔經濟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상 세 件이 네팔에 대한 円借款의 주요 내용인데 원래 償還能力이 높지 않은 가난한 LLDC에서의 일이다. 앞으로 日本은 원칙적으로 円借款은 그만두고 無償資金 協力에 의해 支援해 갈 방침을 취하고 있다. 또 네팔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미 供與된 円借款에 대해서도 每年 償還 스케쥴에 따라 상환기간이 도래한 원리금의 상당액을 일단 상환시킨 상태에서 이것과 동등액의 無償資金을 供與하는 것에 의해 債務의 救濟策을 강구하고 있다.

資金援助에는 資金을 貸付하는 円借款 以外에 당초부터 전혀 償還義務를 부과하지 않는 「無償資金協力」이 있다. 日本은 네팔의 수많은 안건에 無償資金에 의한 援助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前述한 수력발전소와의 관련에서의 카투만두분지 配電網 整備計劃에 대한 援助가 있다. 크레카니 수력발전소에서 일으킨 전력을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하여는 산간부분의 송전선 및 카투만두 분지내의 배전망이 확실히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배전망은 그때까지의 유지관리가 부적절, 불충분 했기 때문에 배전상의 낭비가 많고, 소위 손실율이 30%에서 40%까지 이를 정도로 상당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에 있었다. 이 때문에 日本은 送配電網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資金을 5년간에 걸쳐 합계 약 52億円 供與하고 동시스템을 정비했다. 日本의 크레카니 수력발전소 援助 덕분으로 電力事業이 좋아졌다고 하는 시민의 이미지는 이 無償資金 援助에 의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카투만두 시민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의

대부분도 日本의 無償援助에 의한 것이다. 네팔의 대부분의 지역을 커버하는 라디오(중파)방송도 전면적으로 日本의 支援에 의한 것이다. 10kw에 불과했던 작은 네팔 國營라디오 방송국의 시설을 일시에 근대적인 방송국으로 확충강화하고, 카투만두郊外 및 포카라에 대규모 안테나를 건설, 출력을 100kw로 높이고 기기류도 혁신했다. 방송기술자의 훈련도 日本에서 실시했다. 기술적인 조사라든지 시설의 설계, 기기의 선정, 기술자의 훈련등에는 NHK가 國際協力事業團(JICA)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協力했다. 국민의 약 9할이 문맹이라고 일컬어지는 國家인 만큼 日本의 援助에 의해 거의 전국적으로 방송이 보내지게 된 것은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의료의 분야에서도 수많은 援助를 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큰 것은 트리부반대학 의학부 교육병원의 건설이다. 트리부반대학은 네팔 최대 최고의 학부이다. 이 대학에 70년대 후반에 의학부가 새로이 창설되게 되었다. 네팔은 醫師養成機關을 전혀 갖추지 않아 醫師 供給은 오직 영국·인도·소련 등으로 유학하여 의학을 배운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의사양성기관의 창설이었다. 그러나 창설에 알맞게 당면한 目標는 이른바 「아마추어 의사」를 서둘러 양성하는 것에 있고, 또 실습·실험기기 등도 日本의 中學·高校의 理科 實驗器材 정도의 것밖에 갖추지 못한 상황에 있었다. 그래서 日本은 이 학부의 창설부터 支援하기로 하고, 각종 技術協力을 실시함과 동시에 3백 병상규모의 附屬教育病院 建設 및 의료기자재 전반의 조달에 필요한 無償資金 31億円을 供與했다. 이 병원은, 이미 비좁아질 정도로 많은 환자를 진찰하고 있지만 네팔이 사상 최초로 스스로 의료종사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日本이 손을 빌려준 의의는 크다.

이와 같은 주목할만한 커다란 안건외에도 「園藝開發센터」라든지 「국립결핵센터」의 건설, 식량창고의 건설, 지방의 전기통신망 정비, 하천 호안공사 등 수많은 프로젝트에 無償資金을 供與하고 있고, 나아가 식량증산에 필요한 비료, 농기구, 농약, 관개용 펌프 등을 조달하기 위한 資金이나 한발 등에 의한 식량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식량(타이 쌀, 파키스탄 쌀 등)조달에 필요한 자금도 累次 無償으로 供與하고 있다. 이들 円借款(有償資金協力) 및 無償援助(無償資

金協力)에 버금가는 第 3의 主要援助로서 技術協力이 있다.

政府가 합의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이른바 政府 베이스의 技術協力은 國際協力事業團(JICA) - 그 前身은 海外技術協力事業團(OTCA) - 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技術協力이 행해지는 분야는 人間生活과 관련된 여러 分野, 森羅萬象에 이르지만 네팔의 경우는 農林水産, 保健醫療, 公共·公益事業 關係가 많다. 日本으로부터 전문가를 네팔에 파견해서 현지에서 지도 조언을 행하는 方式, 네팔로부터 중핵적인 인재를 연수생으로서 日本에서 받아들여 政府關係機關, 病院, 研究機關, 企業 等에서 연수를 받는 기회를 제공하는 方式, 開發可能性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方式, 技術移轉의 매체가 되는 기자재·기기 등을 供與하는 方式, 전문가파견, 연수생초청, 기자재공여의 세가지 방식을 유기적으로 조합시켜 수년간에 걸쳐 計劃的으로 실시하는 프로젝트 방식, 그리고 青年海外協力隊 隊員을 派遣해서 행하는 방식 등 다섯가지의 방식에 의한 技術協力이 네팔에 있어서는 폭넓게 전개되고 있고, 네팔은 日本의 技術協力 重點對象國의 하나가 되고 있다. 青年 海外協力隊 隊員에는 여성대원도 적지 않으며 대원은 농업, 보건의료, 스포츠, 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게다가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벽지에서 그 지방 사람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자원봉사(volunteer) 協力活動을 행하고 있어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비교적 커다란 프로젝트 방식의 技術協力으로서는 전술한 토리부반 대학 의학부에 대한 協力, 園藝果樹에 대한 協力, 結核對策과 관련된 協力(모두가 無償資金 協力에 의한 施設建設과 連繫된 協力이다), 수동생산하는 종이의 품질 향상을 위한 가내공업 육성프로젝트에 대한 協力 등이 있다.

이상은 日本政府의 對 네팔 援助의 개략이지만, 이 國家에서는 政府베이스의 援助와는 관계없이 民間 事業으로서 援助活動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 네팔 서부의 탄센이라는 마을을 거점으로 삼아 醫療面, 특히 결핵으로부터 현지인들을 구하려고 수년간에 걸쳐 헌신적인 활동을 계속하셨던 岩村昇 博

士의 경우는 매우 잘 알려져 있고, 또 안나푸르나봉 근처의 시커계곡의 촌락농민을 위해 물자운송용의 간이 케이블을 가설하는 등 지방촌민을 위해 진력하고, 막사이사이賞을 受賞한 川喜田二郎 前 쓰쿠바大學 敎授도 저명하다. 오랫동안 네팔 각지에서 아이·캠프(eye camp)를 열어, 눈병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가난한 현지인들을 위해 수술이라든지 치료를 행하고 계시는 眼科醫療 協力會의 활동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더우기 政府(外務省)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를 보다 세세하게 효과적으로 실시해나가기 위해서는 海外에서 援助활동을 행하고 있는 민간단체(NGO)와 제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支援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관점으로부터 1989년도부터 NGO에 대한 事業補助金 制度를 신설했으나, 네팔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日本 네팔人 養成協會가 네팔에서 통학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資金의 보조를 행하거나, 동경 헬렌켈러 협회라든지 아시아 眼科醫療協力會의 醫療事業에 사업비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日本政府 베이스의 經濟 技術協力이 어떠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팔을 하나의 예로 들어 약간 자세하게 설명해 왔지만, 이와 같은 政府間 協議에 의해 실시되는 兩國間의 援助에서는 바야흐로 日本은 네팔에 있어서 특히 커다란 援助供與國이 되어 있다. 1960년부터 네팔에는 미국, 소련,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이 다투어 援助를 供與해 왔다. 네팔에는 동서로, 그리고 남북으로 차량이 달릴 수 있는 도로가 건설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러한 國家들의 援助로 건설한 것이다. 필시 네팔의 전략상의 중요성으로 인해 다투어 행해진 援助일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國家들로부터의 大規模 援助는 그다지 보이지 않고 오히려 援助後發國인 日本과 독일이 主要 援助國이 되고 있다. 네팔은 世界銀行이나 아시아 開發銀行等과 같은 國際開發金融機關이라든지 國際聯合開發計劃(UNDP)등의 國際聯合機關으로부터도 다수의 資金援助와 技術援助를 받아들이고 있다. 日本은 이들 機關에 대한 大規模의 出資國, 據出國이므로 兩國間의 援助뿐만 아니라 國際機關을 통해서도 네팔에 대해서 커다란 援助를 供與하고 있는 것이다.

第 1章 政府 開發 援助

1. 政府開發援助

파리에 있는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하부기구의 하나로서 開發援助委員會(DAC)라고 하는 機關이 있다. 이 機關은 開發 途上國에 대한 經濟協力을 선진국 스스로의 이니셔티브하에 연구·토의하고 선진국이 적극적으로 남북문제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현재 日本 以外에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과 같은 선진 18개국과 유럽공동체(EC)가 가맹하고 있고, 각 가맹국의 開發途上國援助의 강화 충실을 촉진하기 위해 가맹국 공통의 문제를 토의하거나 가맹국의 援助政策 및 援助實績의 보고를 요구하여 심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고 發表하는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다. 이른바 가맹국이 스스로의 손으로 내부적으로 상호심사를 반복함으로써 가맹국이 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量을 늘이고, 또 질적으로도 개선해 가도록 서로 努力하고 있는 것이다.

DAC의 주요 활동은 經濟協力 일반에 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통계의 정비, 각 가맹국의 經濟協力 實績과 정책에 대한 年次審査, 經濟協力政策에 관한 일반적인 제문제의 검토 등 세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本會議」가 파리의 OECD본부에서 수시 개최되고 있다. 그중 年 1回 가맹 각국으로부터 高位 代表者가 출석해서 개최되는 회의는 「상급회의」라고 불리우며, 여기에서는 1년간의 활동 성과를 토의하고 또 DAC로서의 권고 등이 채택된다. 매년 실시되는 가맹국의 연차심사는 DAC 사무국이 작성하는 지시서에 따라서 각국이 전년도의 經濟 協力 實績과 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고 각국은 격년마다 직접 심사를 받기로 되어 있다.

日本의 政府開發援助에 대해서 總額으로는 世界 1·2位를 다투는 데까지 와 있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GNP비라든지 贈與比率 등에서는 아직도 下位에 있고 質的으로는 개선을 요하는 것이 많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에서 일컬어지는 비교 및 순위는 이 DAC에 대한 日本 政府의

보고와 다른 가맹국 政府로부터의 보고가 DAC에 집계되어 그 결과 산출된 비교 및 순위이다.

「政府開發援助」의 定義나 援助의 「量」, 「質」에 대한 비교 등은 이와 같은 DAC에 있어서의 작업이나 토의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DAC에서는 「援助」를 開發途上國에 대한 「資金의 흐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 및 福祉의 增進을 꾀하기 위해 援助國이 스스로의 財政資金을 사용해서 供與하는 援助에 한하여 「政府開發援助(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라 한다.

본서는 오직 이 ODA에 대해서 기술하기로 했으며 DAC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條件을 충족시키는 資金에 한해서 ODA라고 인정하기로 하고 있다.

(ㄱ) 中央 및 地方 政府를 포함한 公共部門 내지 그 實施 機關에 의해 開發途上國 및 國際機關에 대해서 供與되는 것일 것.
(ㄴ)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 및 福祉 向上에 기여하는 것을 主要目的으로 하는 것일 것.
(ㄷ) 供與 條件이 특히 완화된 것(그랜트 엘리먼트가 25%이상)일 것.

開發途上國에 대한 「資金의 흐름」에는 이 ODA라고 인정되는 것 외에 이것을 훨씬 웃도는 量의 「資金의 흐름」이 있다. 수출신용의 供與라든지 直接投資라든지 國際機關에 대한 融資등의 형태로 흐르는 資金이다. 이것에는 政府關係의 資金과 民間資金의 두 종류가 있다. 前者는 公的資金(日本輸出入銀行等)을 이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본래 日本 企業의 수출진흥이라든지 海外 投資를 주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ODA라고는 간주되지 않는다. DAC에서는 이것을 「其他 公共資金의 흐름(Other Official Flow: OOF)」으로 부르고 있다. 後者는 民間資金에 의한 수출신용, 직접투자 등으로서 「民間資金의 흐름(Private Flow: PF)」이라 한다.

더우기, 액수로서는 작지만 DAC 분류상 또 하나 독립의 카테고리의 것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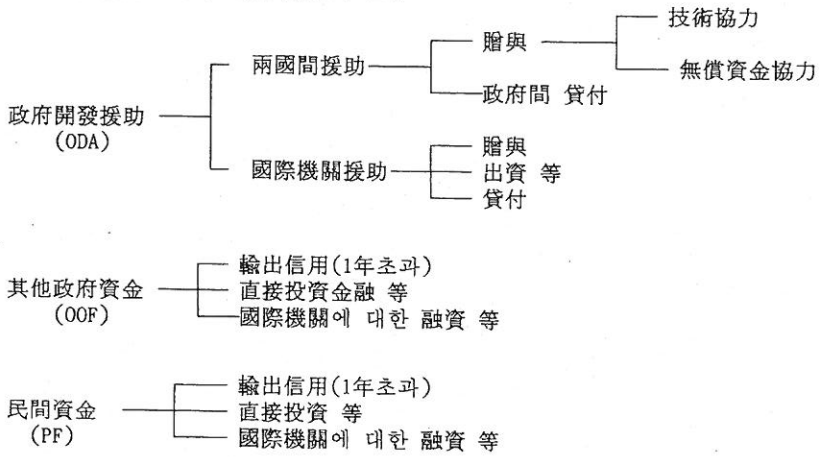
「非營利團體에 의한 贈與」가 있다. 이것은 非政府·民間團體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에 의한 自願奉仕(volunteer)활동과 관계된 資金이다.

DAC는 이와 같이 ODA, OOF, PF 및 「非營利團體에 의한 贈與」의 전체를 「開發途上國에 대한 資金 흐름의 總量」으로서 파악하기로 하고 있다.

다음 表는 이 전체상을 정리한 것이다.

또 근년의 「資金 흐름의 總量」의 推移(日本의 經濟協力實績)에 대해서는 권말의 資料編 3의 (1)(2)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1〉 開發途上國에 대한 資金의 흐름



非營利團體에 의한 贈與

2. 日本의 ODA와 國際比較

가. 「量」的 比較

ODA의 「量」이란 兩國間 援助와 國際機關援助로 구성된 ODA의 總額을 의미하며, 円 베이스에서 집계한 액수와 이것을 DAC에 보고할 때 지정되는 円/달러 교환환율에 의해 환산한 미국달러 베이스에 의한 것 두가지가 있다. DAC가맹 제국의 ODA實績 比較는 미국 달러 환산에 의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환산 시점에서 적용되는 환율이 円高인가 円底인가에 의해 「量」(絶對額)은 연동한다. 日本의 ODA의 量은 円 베이스에서의 擴充努力과 円高傾向에 의하여 달러베이스에서 수십년간 착실하면서도 급격하게 신장해오고 있다.

83년에는 서독을 누르고 미국, 프랑스에 다음가는 제 3위의 援助國이 되었고, 84-85년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제 2위를 겨루고, 86년에는 프랑스를 능가하여 제 2위가 되었으며 89년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미국을 누르고 量에 관한 한 日本은 제 1위의 援助國이 되었다. 그 액수는 달러베이스에서 약 90億달러, 円 베이스로는 약 1兆 2,400億円에 달하고 있다. 円 베이스에서 1兆円을 넘은 것은 84년이며, 85·86 양년도에 있어서 1兆円을 밑도는 일이 있었으나, 이후는 1兆円 程度에서 증대를 계속하고 있고, 규모가 매우 확대 되어가고 있다. 더우기 엔저인가 엔고인가에 의해 불입 시기, 액수가 좌우된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어느 해는 거액의 불입이 있었는데 다음 해에는 그러한 불입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현상이 드물지 않고 이에 따라 ODA의 양이 해에 따라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크게 늘거나 줄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89년 實績에서 日本 ODA가 제 1위가 된 것은 미국측에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한 침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日本은 수차에 걸쳐 ODA 확충을 위한 「中期目標」를 내걸고 특히, 그 양적확충에 힘쓰고 있는 (本章 2의 (사) 및 자료편 3의 (3)(4)참조) 중이지만, 日本의 經濟力이 크게 신장된 시기라고 하더라도 이만큼 급격히 ODA를 늘인 國家는 달리 찾아 볼 수 없다. ODA 가맹 18개국 각각의 ODA의 규모 및 그 합계액

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ODA의 比重(share)은 자료편 3의 (8)과 같지만, 日本 ODA는 합계액의 2할 가까이를 차지하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日本은 그 國力에 합당한 만큼의 공헌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國民所得(GNP)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국민 1인당 부담액에 있어서도 아직도 저율, 소액이라는 指摘 또는 批判이 있다. ODA의 總額을 GNP로 나눈 수치가 ODA의 대GNP비(%)인데, 日本의 경우는 0.2대로부터 약간씩 상승해 가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 0.32% 정도에 머물러, DAC가맹제국 전체의 평균치를 밑돌고 18개국 중 12위 정도에 그치고 있다. (자료편 3의 (5)「DAC 제국의 ODA의 대 GNP비). 노르웨이, 덴마아크, 스웨덴과 같은 북구 3국 및 네덜란드는 근년 1% 전후라는 高率을 달성하고 있다. 國際的으로도 이 GNP比를 0.7%로부터 1.0%까지 올고 가기 위한 目標」가 제창되고 있다. 70년의 國際聯合 25주년 記念總會에서는 71년부터의 「제 2차 國際聯合開發의 10年」이 선언되어, ODA의 對 GNP比 目標 0.7% 등을 중심으로 한 國際開發戰略이 채택되고, 나아가 81년에 시작된 「제 3차 國際聯合開發의 10年」에 관해서는, 80년의 國際聯合經濟開發 特別總會에서 「ODA의 對 GNP比 0.7% 目標를 달성하고 있지 않은 선진국은 본 目標를 85년까지, 늦어도 80년대말까지 달성하도록 최선의 努力을 기울인다. 그 후 가능한 한 빨리 1.0% 目標를 달성한다.」 등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져, 제 35회 國際聯合總會에서 이것이 채택되었다. 日本은 「無期限」으로 0.7% 目標를 受諾하고 있다.

국민 1인당 ODA 부담액은 ODA의 總額을 人口로 나눈 額數이다. 이것을 DAC 가맹 18개국에 대해서 보면 역시 北歐 3국 및 네덜란드 국민은 日本과 비교하여 훨씬 고액을 부담하고 있고, 18개국 중 日本은 10위 정도에 그친다 (자료편 3의 (6)「DAC 가맹제국의 국민 1인당의 ODA 부담액」 참조).

절대액에 있어서는 1·2위를 다투는 데까지 와 있지만, 이와 같이 日本의 ODA는 GNP비에 있어서도 국민 1인당 액수에 있어서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ODA의 규모를 더한층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質」的 比較

前述한 것처럼 ODA의 「量」 즉 「額數」를 더욱 늘림과 동시에 日本이 요구받고 있는 것은 ODA의 「質」에 대해서이다. 「質」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것은 ODA의 受援側, 즉 開發途上國측에 있어서 어느만큼 소프트한가 하는 「條件」을 나타내는 것이다. 資金을 供與할 때 借款으로 대부하는 것보다도 返濟義務가 없는 無償의 資金을 供與하는 쪽이 환영받는 것은 당연하고 같은 借款이라 하더라도 이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상환기한도 길면 길수록 빌리는 측으로는 유리하다. 이처럼 資金供與 條件이 어느 정도로 소프트한가, 하드한가 하는 것이 「質」의 문제이다. ODA의 질을 논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두가지 있다. 하나는 「贈與比率」이고 또 하나는 「그랜트 엘리먼트(grant element)」이다.

「贈與比率」은 ODA전체속에서 無償으로 供與한 것(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 및 國際機關에 대한 共同出資 등 상환을 필요치 않는 援助)이 어느 정도인가 그 比率(%)을 표시한 수치이다. 「그랜트 엘리먼트(G/E)」는 금리, 상환기간, 거치기간, 할인율, 년간 지불회수를 다음의 수식으로 적용해서 산출하는 것이고 援助 條件의 소프트 程度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商業條件(금리 10%로 가정)의 借款의 G/E를 0%라고 하고, 條件이 완화됨에 따라 G/E의 %는 높아지고 贈與(grant)의 경우의 G/E는 100%가 된다. 年利 2.25%, 상환기간 30년(그 중 10년 거치), 연부상환이라는 條件의 借款의 G/E는 63.96%가 되고, 年利 6.00%, 상환기간 20년(그 중 5년 거치), 년부라는 條件의 借款의 G/E는 26.64%가 된다. ODA라고 인정되는 것은, DAC의 72년 권고에 의해 G/E 25% 이상의 것으로 한정되고 그보다 낮은 것은 ODA에 해당되지 않는다.

(G/E를 구하는 방식)

$$GE(\%) = 100 \times \left(1 - \frac{r/a}{d}\right)\left[1 - \frac{\frac{1}{(1+d)aG} - \frac{1}{(1+d)aM}}{d(aM-aG)}\right]$$

r = 金利　　d = 割引率 $\left(= (1.1)\frac{1}{a} - 1\right)$

a = 年間支拂回數　　G = 据置期間　　M = 償還期間

나아가서 ODA 전체의 G/E를 집계하고 산출한 지표를 「종합 그랜트 엘리먼트」라고 하여 ODA전체의 條件의 소프트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로 삼고 있다.

과거 10년동안의 日本 ODA의 贈與比率은 40%에서 60% 사이에서 變動하고 종합그랜트 엘리먼트는 대체적으로 70%대에서 變動하고 있다. 이것을 DAC제국과 비교해 보면 권말 자료편 3의 (7)과 같이 87·88 양년도의 평균치에서는 모두가 18개국 중 최하위에 있다. 贈與比率에 있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및 스웨덴 4개국의 ODA가 100%이고, ODA전부가 贈與인 것에 대해서 日本의 경우는 46.6%로 아직 ODA의 과반이 借款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 G/E는 이 결과 75.4%로 최하위이고 DAC 제국의 평균 90.47%를 크게 밑돌고 있다.

(註) 通常 「量」은 지출순액 기준의 금액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質」은 約束額 기준의 금액을 사용한다.

日本의 ODA는 60년대부터 아시아 지역에 대한 円借款 供與에 중점을 두면서 확충해왔기 때문에 다른 DAC 가맹제국과 비교하여 질이 하드한 것이 되고 있고, G/E의 %를 높여 「質」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借款을 줄이고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 및 國際機關에 대한 共同出資 等을 다른 생각없이 늘여야만 한다.

그러나, 이 質의 문제에 있어서는 日本의 경우가 다른 DAC 제국과는 다르므로 이들 제국의 ODA와 無條件的으로 같은 맥락에서 논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즉 日本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아시아 지역이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아시아 제국에 대한 援助가 커다란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미국에는 미국에 있어서의 重點的인 援助對象國이나 지역이 있고 프랑스에는 프랑스에 있어서의 援助 重點國이나 地域이 있다. 다른 DAC 가맹국도 각각의 국익과 정책의도를 갖고 援助對象 地域이라든지 國家를 선정하고 있다.

日本은 아시아 지역을 最重點으로 하고 兩國間 ODA의 6,7할을 이 지역의 제국에 배분하고 있고, 더우기 그 절반을 ASEAN제국에 향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는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와 같이 극도로 가난한 後發開發途上國이 있는 반면, ASEAN제국과 같이 이미 상당히 성장한 國家가 적지 않고, 지역으로서는 아프리카 지역 등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발전된 지역이다. 大規模 經濟基盤 프로젝트에 대한 資金需要가 많고 援助吸收能力도 높고 다이나믹하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自助努力」을 전제로 하여 실시하고 있는 援助에 있어서는 아시아에 대한 條件을 아프리카에 대한 條件보다도 엄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이다.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開發이 현저하게 늦어지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 제국과의 관계가 깊고 그 開發 發展에 책임을 지는 舊 宗主國 등은 당연히 無償援助가 主가 되고, 따라서 贈與比率, 종합 G/E가 높아지는 것도 또한 당연할 것이다.

이처럼 아시아 중점인 日本의 경우는 借款으로 되는 것은 借款으로 대응하고, 그 대신 정말로 빈곤한 後發開發途上國에 대해서는 無償援助로 대응하는 정책이 취해지게 된다. 더욱 이 문제는 豫算의 재원이라는 점으로부터도 고려해야 한다. 借款의 재원의 과반은 財政投融資에 있는 것에 대해서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의 재원은 일반회계에 있기 때문에 「質」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있어서의 부담 즉 세금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ODA의 地理的 配分

日本은 前述한 것처럼 日本과 地理的으로 가깝고 歷史的, 政治的, 經濟的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지역을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그 ODA의 과반을 배분하고 있다.

日本과의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 외에 이 지역에는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등 대 인구를 부양하는 저소득국이 있는 것에 덧붙여, 상당한 수준까지 성장하고 있는 ASEAN 諸國에 있어서도 거듭되는 開發發展을 위한 資金 需要가 많다는 점에서 日本은 최근 ODA의 6,7할을 이 지역에 배분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의 약 절반이 ASEAN 제국에 配分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ODA 배분의 추이를 보면 60년대에는 90% 대의 ODA가 아시아에 供與되고 있었던 것이, 70년대에는 80%대로부터 70%로, 그리고 83년 이후부터는 60%대까지 감소되어가고 있다. ODA의 확충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배분이 증가하게 된 때문이지만, 그 중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援助의 증가가 커져, 60년대에는 1% 정도였던 것이 88년에는 18.3%까지 상승하고 있다. 비교적 희박했던 日本과 아프리카 제국과의 관계가 긴밀화해 가고 있는 것을 반영하며, 經濟的으로 커다란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아프리카 제국에 대해서 經濟構造改善 努力을 支援하기 위한 無償資金協力이나 기아 대책의 援助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 無償資金協力의 3할 이상이 이 지역으로 향해지게 되었다.

더욱 아시아 지역 중에서는 남서아시아 및 동남 아시아에 대한 ODA의 비율(share)은 감소하는 경향에 있음에 반하여 북동 아시아지역의 비중은 확대되어 가는 경향에 있다. 한국은 소위 「卒業」 段階에 있지만 대신 중국이 대형수원국으로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말 자료편 3의 (13)은 日本 兩國間 ODA의 지리적 배분을 표시하며, 또 동 3의 (14)는 日本 兩國間 ODA의 상위 10대 供與국·供與額의 추이를 표시하는 것이다. 89년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를 필두로 하는 10개국에 兩國間 ODA 약 67億 7千 9百萬 달러의 약 62%에 상당하는 41億 7千 4百萬 달러가 供與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이어 중국, 타이,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케냐의 순으로 되고

있다.

蘇聯·東歐 政勢의 격변에 의해 89년 이후 東歐 諸國이 日本 ODA 供與 대상국으로서 새로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동년 중에는 폴란드에 經濟再建을 支援하기 위해 214億円의 상품借款을 供與하고 34億円의 緊急食糧援助를 供與했다. 또한, 技術協力도 폴란드 및 헝가리에 대해서 개시했다.

나아가 걸프 전쟁은 日本의 ODA의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걸프만 위기 발생직후인 90년 9월 이집트, 터어키, 요르단이라는 분쟁 주변 3개국에 대해서 약 20億 달러의 緊急援助를 결정했지만, 전후의 復興에도 주변 중동제국에 새로운 援助로서 상당한 支援이 요구되는 추세에 있다.

한편 中南美諸國의 支援에 대한 요청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신세계 질서」를 주창하고, 「공정한 책임분담」을 요구하는 미국과의 협조노선을 추진해가면 日本 ODA의 배분은 中東, 中南美, 東歐로 더한층 세계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고, 日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兩國間 ODA의 6할 이상을 配分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동시에 ODA의 思考方式·理念에도 커다란 변화가 생기지 않을 수 없게 된다. 89-91년은 그러한 의미에서도 日本의 ODA의 역사 중에서 중대한 변혁으로의 갈림길이 되는 時期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日本은 이처럼 아시아 지역에 兩國間 ODA의 6할이상을 배분하고 아시아 최중점의 援助를 행하면서도 아프리카, 중남미, 中東의 각 지역으로부터 나아가서는 동구에 이르기까지 世界的으로 援助를 계속 확충해가고 있지만, DAC 가맹의 주요 선진제국은 각각 어떤 地域·國家를 중점적으로 援助하고 있을까 그 동향을 살펴보자.

미국의 兩國間 援助는 經濟支持援助, 經濟開發援助 및 食糧援助라는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대별되는데 經濟支持援助는 미국의 정치, 외교, 안보보장상을 반

영하여 최근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이집트, 이스라엘이라는 두 國家에 특히 거액의 ODA가 할당되고 있고, 80년에는 양국이 미국 ODA의 37%, 88년에는 29%를 供與받고 있다. 88년에는 이스라엘, 이집트에 이어서 파키스탄,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태평양제도, 과테말라, 필리핀, 방글라데시, 수단순으로 상위 10개국이 있고, 미국의 兩國間 ODA의 51%가 이들 10개국에 供與되고 있다.

프랑스는 그 海外縣·海外領土 및 舊 植民地에 중점을 두고, 또 프랑스어·프랑스문화의 보급을 중시하면서 援助를 실시하고 있고, ODA배분의 상위 10개국은 르 위니웅, 마루티닉, 불령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모두가 海外縣·海外領土) 세네갈, 象牙海岸, 모로코, 중국, 불령 기아나, 카메룬의 순이며 근년 ODA의 40%로부터 60%정도를 이와같은 海外縣·海外領土가 과반을 차지하는 상위 10개국에 배분한다고 하는 편중된 援助를 실시하고 있다.

영국도 일찌기의 식민지, 자치령에 중점을 두어 영연방제국에 대한 援助를 중시하고 있다. 예년 인도를 최대의 援助供與國으로 하고 있고, 88년의 경우에는, 인도 이어 케냐, 방글라데시, 탄자니아, 말라위, 모잠비크, 가나, 우간다, 수단, 중국순으로 상위 10개국이 늘어서고 이들 10개국에 영국의 兩國間 ODA의 약 43%가 供與되고 있다.

서독, 캐나다 등은 비교적 균형 잡힌 분배를 행하고 있으나 미국·영국·프랑스 3개국이 이처럼 두드러지게 선별적인 援助를 행하고 있는 것은 「援助」라는 것의 근본적 성격, 그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경우에 염두에 두어야 할것이다.

라. 兩國間(bilateral) 援助와 多國間(multilateral) 援助

兩國間의 援助를 略稱해서 「바이 援助」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兩國間이란 용어는 영어의 bilateral의 略語이다. 이에 대하여 國際機關을 통한 援助를 「멀티 援助」라고 약칭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영어의 multilateral의 略語

이다. ODA는 이 「兩國間(bilateral)」와 「多國間(multilateral)」의 두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느 쪽을 보다 중시할 것인가는 援助國의 援助政策과 깊이 관련된 문제이다.

日本의 ODA는 흔히 「兩國間(bilateral) 7, 多國間(multilateral) 3」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은 「日本으로부터의 援助」임을 쉽게 알 수 있는 兩國間 援助에 ODA의 7할을 충당하고, 「日本으로부터의 援助」라는 색채는 옅어지지만 장점도 많은 國際機關 援助에 3할을 충당한다는 것이다. 88년의 경우 日本 ODA의 兩國間(bilateral), 多國間(multilateral)의 比率은 70.3대 29.7로 DAC 18개국의 평균 69.0대 31.0에 가깝다. 이에 대하여 아일랜드, 덴마아크,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제국은 각각의 ODA의 4할 이상을 多國間에 충당하고, 반대로 프랑스는 불과 18%밖에 多國間에 충당하지 않고 82%를 兩國間 援助에 충당하고 있다.

兩國間 援助에 대해서는 日本의 외교정책이라든지 통상정책 등 정책의도에 따라 機動的으로 詳細하게 실시할 수 있어 日本의 援助가 상대국측에 직접 인상을 짙게 주어 우호친선 관계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장점이 있고, 多國間 援助에는 이에 관여하는 國際機關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지식·경험을 활용해서 효과적인 援助를 실행할 수가 있는 점, 아프리카 각지에서 발생하는 기아에 대한 구제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兩國間 援助에서는 영향이 적은 지역에도 世界的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援助效果를 올릴 수 있다는 점, 정치적 중립성을 살린 援助가 가능한 점 등의 장점이 있다.

마. DAC 諸國의 援助

지금까지 설명해온 것은 DAC 加盟國의 ODA에 대해서이지만, 世界를 흐르는 援助資金에는 DAC제국의 ODA외에 DAC에 가맹하고 있지 않은 국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援助에 의한 것이 있다.

주된 것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및 아랍에미리트 等 아랍제국에 의한 援助, DAC에는 가맹하고 있지 않지만 OECD 加盟國인 스페인, 포르투갈, 아이슬랜드, 그리이스와 같은 國家에 의한 援助, 開發途上國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으로 對外援助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인도, 베네수엘라, 나이제리아, 한국에 의한 援助 等이 있고, 그밖에 소련·동독 등 코메콘 諸國에 의한 援助와 관련된 것이 있다. 이들 援助의 總額은 88년 實績으로 약 78億달러 정도였다. 아랍제국은 이슬람제국의 연대와 상호지원을 주요목적으로 하여 아랍근처 제국을 대상으로 한 援助를 실행하고 있고, 資金의 主要 受援國은 시리아, 요르단, 모로코, 예멘, 바레인, 오만, 수단, 방글라데시 등이고, 또 코메콘 諸國에 의한 援助는 쿠바, 몽고, 베트남등으로 향해져 있었다(코메콘은 91년 6월 28일 해산했다).

한국은 60년대부터 小規模의 技術協力을 개시하고, 77년부터는 無償援助를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87년에는 對外經濟 協力基金을 설립하고 借款의 供與도 시작하고 있다. 그 규모는 兩國間 援助에 중점을 두면서 88년 實績으로 GNP比 0.04%, 5500萬 달러 정도이다.

바. ODA의 豫算과 財源

日本 ODA事業豫算은 바야흐로 1兆 數千億円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그 豫算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가령 外務省이라든지 大藏省이라든지 하는 단일한 政府 機關의 豫算속에 「經濟協力費」라는 독립된 항목하에 計上되어 있으면 파악하기 쉬운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가 되고 있다.

우선, 政府 全體의 ODA事業을 위한 「ODA事業豫算」은 一般會計豫算만으로 計上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円借款의 財源이 되는 財政投融資基金으로부터의 借入, 國際開發 金融機關에 대한 출자를 위한 出資 國債, 特定 省의 特別會計豫算으로 計上되고 있는 것 등이 있고, 게다가 一般會計豫算에서는 ODA豫算의

전체액으로부터 보면 약간씩이기는 하지만 십여개 政府 機關에 걸쳐 計上되고 있다. 計上되고 있다고 하기보다도 政府 各機關이 計上한 豫算속에서 DAC 統計指示書의 정의에 따라 ODA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것을 집계하는 작업을 실행하고, 그 결과 얻어진 액수가 ODA事業豫算 總額이 된다. 円借款供與를 담당하는 海外經濟協力基金에 대해서는 출자, 교부금으로서 일반회계에 計上되는 것과 円借款의 財源으로서 財政投融資 資金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게다가 어떤 경비가 ODA로서 인정받는가에 대해서는 DAC의 統計指示書에 표시된 정의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이 점도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

ODA 豫算은 이처럼 10여개 政府 機關에 計上되어 있으나 그 대부분은 外務省 및 大藏省의 豫算에 計上되어 있고, 國際聯合 等 國際機關에 대한 分擔金·共同出資金 등의 豫算이 計上되어 있고, 兩 省에서 事業豫算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는 經企廳에 海外 經濟協力基金에 대한 交付金이 文部省에 유네스코 등 일부의 國際機關分擔金, 共同出資金 또는 國費留學生 招請經費등이 計上되어 있고, 그밖에 技術協力과 관련되는 豫算이 수많은 政府 機關에 計上되어 있다. ODA 一般會計 豫算 및 同事業豫算의 최근 伸張 推移에 대해서는 권말자료 3의(16),(17)을 참조하기 바란다.

사. ODA擴充을 위한 努力

日本은 지금까지 네차례에 걸쳐 ODA확충을 위하여 「中期目標」를 내걸고 그 실현을 위해 대단한 努力을 거듭해 왔다. 日本 이외의 主要先進諸國이 「援助疲困」이라고 일컬어지듯이, 각각의 ODA를 그다지 크게 늘릴수 없는 상황에서 홀로 日本만이 양적으로는 비약적인 확충을 실현시켜 온 것은 中期目標를 내걸고서 努力한 결과이다. (권말자료편 3의 (3)(4)참조).

우선, 제 1차 中期目標는 78년 5월에 책정되어 그 요지는 「77년의 ODA 實績 14億2千4百萬 달러를 근거로 하여 이것을 78년부터 80년까지 3년동안에 倍增시

킨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ODA 확충을 지향한 최초의 획기적인 國際公約이었다.

目標年度인 80년에는 목표액 28億 4千 8百萬 달러를 크게 웃도는 33億 4百萬 달러에 달해서 여유있게 目標達成에 성공했다. ODA事業豫算이 대폭적으로 증액된 결과 支出實績이 3년 동안에 倍 가까이나 증가함과 아울러, 이동안 대폭적으로 円高가 된 것이 寄與의 전부였지만, 이 「3年倍增計劃」의 달성은 국제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 후 政府는 계속하여 ODA확충을 위한 努力을 내외에 밝히고 「第 2次中期目標」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目標를 책정하고, 81년 1월 각의에 보고하여 승낙받았다.

「日本에 부과된 國際的 責任을 완수하고 南北 問題의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 혹독한 財政 再建期間中 이기는 하지만, 下記한 바와 같이 政府開發援助의 中期目標를 설정한다. 이 中期目標를 달성하기 위한 전제로서 世界 經濟를 현저하게 혼란, 정체시키는 듯한 사태가 발생하는 일이 없이 日本 經濟의 안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外的條件이 유지됨과 동시에 援助받는 國家에 있어서, 經濟 社會開發에 대한 自助努力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援助에 대해 받아들이는 체제가 더한층 정비될 것을 기대한다. 또 금후 더욱 援助받는 國家의 국정, 요구등에 대응한 援助約束의 확대, 執行率의 촉진 등에 힘쓴다.

〈 記 〉

政府는 ODA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계속하여 그 GNP 比率의 개선을 도모하고, 1980년대 전반 5개년간의 ODA 實績 總額을 1970년대 후반 5개년간의 總額(106.8億달러정도)의 倍 以上으로 하도록 努力한다. 이를 위해 (1) 1980년대 전반 5개년간에 있어서, 1970년대 후반 5개년에 비해 ODA와 관계되는 國家의 豫算을 倍 以上으로 할 것을 指向한다. (2) 政府借款의 적극적 확대를 도모한

다. (3) 國際開發 金融機關의 출자 등의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85년도까지의 5개년간의 예산 누계는 이 目標대로의 2倍의 贈與는 되지 않았지만, 거의 이것에 가까운 98%까지를 달성했다. 76년도부터 80년도사이의 一般會計 豫算의 누계는 1兆 2,444億円, 이 액수의 배인 2兆 4,888億円이 目標였지만, 실제로는 2兆 4,307億円에 머물렀다. 한편 실적 면에서는, 106.8億달러의 倍 즉 213.6億 달러가 目標였으나 이것은 180.7億달러에 머물러, 달성률은 84.6%였다. 오일쇼크 후의 침체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84년 10월의 DAC 對日 審査에 있어서 日本이 제1차 및 제2차 中期目標를 설정해서 ODA의 확충에 노력한 것이 높이 평가받아 동시에 계속 제3차 目標를 설정하고 그 經濟力에 합당한 援助를 실행하기 위해 이를 확충해 나아가고자 함이 표명되었다.

政府는 86년 이후도 계속 ODA의 확충을 통해 日本에 부과된 國際的 責任을 완수해 나아갈 것을 內外에 밝히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제 3차 中期目標를 책정, 85년 9월 18일 閣議에서 承諾되었다.

「政府는 日本이 혹독한 재정사정하에서도 금후 그 經濟規模에 적당한 政府開發援助(ODA)의 확충을 통하여 日本에 부과된 國際的 責任을 완수해 나아가기 위해 下期의 中期目標를 설정한다.

〈 記 〉

(1). 1986년이후도 계속 ODA의 대 GNP비율의 개선을 도모하기로 하고 재정상황을 감안하면서 92년까지의 실적총액을 400億달러 이상으로 할 것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無償資金協力 및 技術協力의 확충, 國際金融機關을 통한 援助의 강화, 円借款의 執行率 改善 等을 도모하면서, 92년의 ODA실적을 1985년 실적의

倍로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아울러 質의 면에서도 가능한 개선을 도모한다.

(2). ODA의 실시에 있어서는 開發途上國의 經濟社會開發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되도록 배려하고 이를 위해 實施體制의 充實, 技術協力과 資金協力의 연결강화, 評價活動의 擴充, 民間活動과의 연결강화를 도모하고 그밖에 援助國, 國際機關과의 協力推進 等을 통하여 ODA의 더한층 효과적 · 효율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 2차 中期目標에서는 예산 및 실적 양면으로부터 達成目標를 내걸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이 제 3차 中期目標에서는 혹독한 재정사정을 반영해서 예산면에서의 目標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最終年度인 92년 실적을 85년 실적(37.97億달러)의 倍로 할 것, 기간중의 실적 총액을 400億달러 이상으로 할 것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했다.

이 目標는 ODA예산의 확충 노력과 円高에 의지하여 당초의 計劃을 대폭 상회하는 빠른 速度로 目標가 달성될 전망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찌기 87년 5월 29일에 經濟對策閣僚會議에서 결정된 「緊急經濟對策」(「國際社會에 대한 積極的 貢獻」의 意思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명한 것)에 있어서, 제 3차 中期目標의 조기달성, 적어도 7년 倍增 目標의 2년 조기달성을 실시하고 90년의 ODA실적을 76億달러 이상으로 할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후에도 円高는 진행되었고, 올해의 ODA실적은 74.5億달러가 되어 背景目標는 사실상 달성되어 버린 상황이 되었다. 제3차 中期目標는 이와같이 해서 그 實質的 意義가 사라지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政府는 새로이 다음과 같은 제 4차 中期目標를 책정하고, 88년 6월 14일의 閣議에서 承諾을 받았다. 이것은 88년 5월, 당시의 竹下 總理가 런던에서 발표한 「平和를 위한 協力 强化」, 「國際文化交流의 强化」 및 「ODA의 擴充强化」라는 세가지 주요 안건으로 이루어진 日本의 國際協力에 관련된 기본방침 (「國際協力構想」)을 승계하여 설정된 것이다.

最近 日本의 政府開發 援助 (ODA)의 실적은 비약적으로 증대해왔지만, 日本

이 처한 國際環境에 유의하면서 혹독한 재정사정하에서 금후에도 ODA의 확충을 통한 日本의 세계에 대한 공헌을 더욱 의의 있는 것으로 할 88년부터 92년의 5개년간을 대상으로 하는 中期 目標를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本目標는 內外政勢의 변화에 대응해서 적당히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記 〉

(1). 先進援助國의 ODA총액에서 차지하는 日本의 분담비율을 計劃期間中에 先進援助國중의 日本의 經濟規模 比重에 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릴것을 염두에 두고, 과거 5개년간 (1983-87년)의 ODA실적총액 250億달러를 금후 5개년 동안에 배이상으로 해서, 1988년부터 1992년의 5개년간의 ODA실적 총액을 500億달러 이상으로 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ODA의 對 GNP 比의 착실한 개선을 도모하기로 한다.

(2). ODA에 대해서는 量的擴充과 함께, 그 質的擴充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하와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開發途上國의 자조노력을 지원한다는 기본이념하에 開發途上國의 요구와 합치된 각종 協力을 綜合的, 機動的이면서 彈力的으로 실행한다.

(ㄱ) 無償資金協力에 대해서는 계속 그 확충을 도모한다. 특히 後發開發途上國 對策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 제국에 대해 援助의 더한층 無償化를 추진하는 한편, 債務救濟措置를 擴充한다.

(ㄴ) 技術協力에 대해서는 留學生 對策의 充實化, 研修生 招請의 充實化, 專門家派遣의 加一層 促進 等 人間形成 協力 및 開發途上國의 技術向上 等 소프트한 면에서의 協力을 포함, 그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日本 公的機關의 人材의 대폭적인 활용, 民間技術者交流에 대한 政府의 援助擴大 等을

통하여 政府·民間을 포함한 技術協力의 집행체제의 정비충실을 행한다. 나아가 民間 援助團體 (NGO)와의 연결를 강화함과 동시에 開發途上國과의 國際 文化交流의 촉진에 힘쓴다. 더욱 資金協力과의 연결의 긴밀화를 더한층 추진하고 援助의 효과적 실시에 힘쓴다.

(ㄷ) 國際機關을 통한 協力에 대해서는 금후도 國際協助의 추진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各機關의 효율적 운영에 배려를 하면서, 그 재정기반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人的貢獻을 강화한다. 또한 國際機關을 통하여 日本의 技術이나 知識의 開發途上國으로의 이전을 촉진한다. 나아가 國際 機關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을 지금까지 이상으로 활용한다.

(ㄹ) 円借款에 대해서는 계속 그 質의 개선에 힘쓴다. 이를 위해 形態의 多樣化 및 執行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추진한다. 또한 開發途上國의 구조조정의 상황, 채무부담의 상황에 입각하면서 國際機關이나 主要援助國과의 협조하에 앞으로의 國家 經濟政策을 지원하기 위한 借款 供與를 탄력적으로 행한다. 나아가 금후도 내외정세에 입각하여 一般 無條件(untied)化를 추진한다.

(3). ODA의 實施에 임해서는 더한층 효과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나아가, 要員의 擴充, 國家別 專門家의 育成, 地域研究의 充實, 案件 發掘 形成機能의 强化, 評價活動의 充實, 컨설턴트의 활동 등을 포함한 援助實施體制의 충실 및 민간활동과의 연결강화를 도모한다.

현재 이 제 4차 中期目標를 따라 ODA의 양적확충, 질적개선을 위한 제반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바이다. 제 1차부터 제 4차에 걸치는 각 中期目標의 골자 및 달성상황 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 1차 中期目標 (78년 - 80년)

(骨字)

77년 ODA실적 14.24億달러를 80년까지의 3년간에 배로 증가시킨다.

(달성상황)

80년 실적이 33.04億달러가 되어, 여유있게 달성됨.

● 제 2차 中期目標 (81년 - 85년)

(骨字)

80년대 전반 5개년간의 ODA실적총액을 70년대 후반 5개년간의 총액 (106.8億달러정도)의 倍 (즉 213.6億달러)이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80년대전반 5개년간의 예산을 70년대 후반 5개년간의 豫算 (1兆 2,444億円)의 倍 (즉 2兆 4,888億円) 以上으로 한다.

(2) 政府借款의 적극적 확대를 도모한다.

(3) 國際開發金融機關의 출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達成狀況)

(1) 實績

目標 213.6億 달러에 대해 180.7億달러로 달성율 84.6%

(2) 豫算

目標 2兆 4,888億円에 대해 예산누계 2兆 4,307億円으로 달성률 97.7%

● 제 3차 中期目標 (86년 - 92년)

(骨字)

86년부터 92년까지의 7년간의 ODA실적 총액을 400億달러 이상으로 한다.

92년의 실적을 85년실적 (37.97億 달러)의 倍(75.94億달러)로 한다.

(7년 倍增)

(達成狀況)

92년을 기다릴 것까지도 없이 상당한 여유를 갖고 目標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 섰기 때문에 7년 倍增目標의 2년 앞당긴 실시와 90년 실적을 76億 달러 이상으로 하는 것을 87년 5월의 「緊急經濟對策」의 내용으로 했다.

(실적: 86년 56.3億달러, 87년 74.5億달러, 88년 91.3億달러)

● 제 4차 中期目標(88년-92년)

(骨字)

88년부터 92년의 5개년간 ODA실적(250億달러)의 倍 (500億달러)이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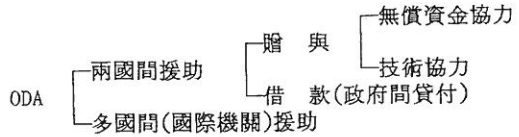
(達成狀況)

88-90년의 실적 합계는 약 273億円, 남은 2년간에 227億달러 달성이 곤란시되고 있음.

第 2章 政府開發援助의 形態

제 1절 兩國間 援助

開發途上國에 대한 資金의 흐름의 全體的인 樣相은 9페이지의 表 1과 같은데 지금 다시한번 ODA에 대해서만 그 實施形態를 표시한다



이하 ODA가 실제로 어떤 形態로 실시되고 있는가, 日本의 경우의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兩國間 援助中 贈與, 즉 無償資金協力과 技術協力부터 설명해 나가기로 한다.

1. 無償資金協力

開發途上國에 대해서 상환의무가 없는 資金을 贈與하는 형태로 실행하는 資金援助를 「無償資金協力」이라고 한다. 90년도 예산에 있어서의 無償資金協力의 규모는 約 2천億円. ODA의 質의 改善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贈與比率을 높이기 위해 가장 확충이 要求되는 援助이다. 이 無償資金協力은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이 낮고, 円借款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醫療·保健·農業開發 및 生活用水의 확보 등 이른바 基本的(basic)·人間 欲求(human needs) (= 基礎的 生活分野) 또는 교육, 研究關聯 分野의 안건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최근 특히 LLDC에 대해서는, 援助는 원칙적으로 無償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DAC의 勸告 또는 國際聯合의 決議 等을 따른 「原則 無償化 方針」下에 電氣, 通信, 橋梁 等 基本的 産業基礎部門(infrastructure)에 대한 整備 分野의 안건에 이르기까지 無償資金協力으로 대응하게 되어 있다.

또한, 無償資金協力은 그 성격상 비교적 所得水準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대상국으로 할 것인지의 與否를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IDA(國際 開發協會)제 2世銀이 1인당 GNP액을 가지고 그 無利子 融資 適格의 최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하고 있고, 가령 90년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88년의 1인당 GNP가 1070달러 이하 (89년도에 있어서는 87년의 1인당 GNP 940달러 이하)를 無償資金協力 對象國으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배분상황을 보면, 아시아 지역에 중점이 두어져 수년동안 방글라데시가 최대의 受援國이고 필리핀, 타이,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과 같은 제국은 매년 10대 受援國 중에서도 상위에 들어가는 나라들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의해 이 지역의 比重(share)은 감소하는 傾向이 있고 대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 比重(share)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89년도 실적에서는 아시아가 약 44%, 아프리카가 약 38%였다.

豫算으로는 「經濟開發 等 援助費」에 포함된 (가)一般無償援助, (나)水産無償援助, (다)災害關係援助, (라)文化無償援助와 「食糧增産 等 援助費」에 포함된 (마)食糧援助, (바)食糧增産援助라는 6종류로 분류된다.

가. 一般 無償援助

無償資金協力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援助이고 無償資金協力 全體 속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内容的으로는 施設建設, 機資材供與 等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지만, 근년은 Non 프로젝트 無償援助 또는 債務救濟無償援助도 증가해 가고 있다.

對象條件은 開發途上國이 經濟 社會開發, 民生安定, 福祉向上 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計劃을 실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조건으로 특히 農村·農業開發, 醫療·保健, 民生·環境改善, 運輸·通信 等 「基礎的生活分野 (BHN)]에서의 안건이나 국가형성의 기초가 되는 人材開發, 所謂 「人材養成」에 공헌하는 敎育, 研究分野의 안건이 주체가 되고 있다. 모두가 經濟的인 수익성이 낮고 開發途

上國이 그를 위해 自己資金을 조달할 수 없다든가, 借入資金에 의한것이 어려운 안건이 대상이 된다.

참고로 약간의 구체적 事例를 든다.

(施設建設의 例)

試驗造林訓練센터, 바이오마스研究센터, 라디오 · TV훈련센터, 適正農業 機械技術 開發센터, 水道 · 環境衛生訓練센터, 바리구급병원, 소아마비 · 홍역백신제조시설(이상 인도네시아), 몽쿠트왕 工科大學, 社會敎育 文化센터, 水道技術訓練센터, 國立衛生研究所, 國立家畜衛生研究所, 環境研究研修센터 (이상 타이), 中日友好病院, 肉類食品綜合研究센터, 北京 郵便電信訓練센터, 肢體障碍者 再活 研究센터, 아동복지교육센터 (이상 중국), 토리부반大學敎育病院, 카투만두 地區 送配電網, 中波 라디오 放送網, 國立結核센터(이상 네팔), 農村 婦人研究所, 나라 얀간지 綜合病院, 飮料水 給水施設, 下水道網, 農業大學(이상 방글라데시), 죠모 · 케냔타 農工大學, 임업육묘 훈련센터, 中央醫療研究所(이상 케냐), 산타크로스 綜合病院, 消化器 疾患研究 센터, 母子 病院, 國立公衆衛生專門學校, 養殖開發센터(이상 볼리비아)

(機資材調達의 例)

산쟈이 · 간지 醫學研究所 醫療機資材, 消防 · 救急機資材(印度) 말라리아 對策機資材, 모라토우 大學敎育用機資材, 救急醫療對策機資材(스리랑카). 또한 근년 인도네시아, 타이 및 필리핀에 건설된 「貿易研修센터」와 같은 輸出 振興分野 案件이나 방글라데시의 「메구나橋 建設」(86년도부터 5년간에 걸친 總額 約 80億円의 國債案件), 네팔의 「地方電氣通信網 整備計劃」과 같은 LLDC에 있어서의 산업기초부문(infrastructure) 안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對象分野가 다양화 되어가고 있다. 산업기초부문(infrastructure) 分野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LLDC에 대한 援助는 円借款을 피하고 無償으로 실시할 것을 원칙으로 하려는 意圖에서이다.

無償援助 案件은 그것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技術協力과 연결시켜 실시하도록 노력이 거듭되고 있다. 타이의 몽쿠트왕 공과대학 전기통신학부의 경우는, 원래 日本이 20수년이나 이전에 전기 통신 關係 技術者를 양성하기 위하여 훈련센터로서 技術協力을 시작한 안건이고, 그후 프로젝트의 규모가 확충되는 것에 대응해서 전기통신 실험실, 도서관,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이 日本의 無償資金協力에 의해 정비되어 온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에는 타이에서 최초의 공학박사 과정을 설치한 一流大學 學部가 되었고, 명문 츄라론콘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다. 20여년간에 걸친 긴 세월 동안 타이 · 日本 兩國關係者가 진력한 결과 技術協力과 無償資金協力이 대단히 바람직한 효과를 거둔 하나의 예이고, 日本의 「人材養成」援助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다. 중국의 중일 우호 병원도 마찬가지로 無償資金協力에 의한 건물건설, 의료기기조달과 長期이면서 廣範圍한 技術協力을 조화시킨 프로젝트이다. 북경에 건설된 이 병원은 病床 數 1,000개 규모의 臨床醫學研究所, 再活(rehabilitation)센터, 간호사 양성센터 등을 포함한 大綜合病院으로, 「子子孫孫에 걸친 日 · 中友好를 念願하여」 日本으로부터 贈與된 것이다. 供與된 無償資金은 약 160億円으로, 日本의 無償資金協力 案件으로서는 최대규모의 하나이다. 84년 10월 북경에서 성대한 개원식이 거행되어 日本으로부터도 政 · 財 · 官 · 學界에서 다수의 關係者가 참석했다.

이 一般無償의 범위내에서의 일이지만, 援助를 보다 詳細하게 開途國의 要求(needs)에 보다 잘 부응해 가려고 하는 관점에서 최근 새로이 도입된 두가지 방책이 있다. 그 하나는 87년도부터 개시된 「經濟構造 改善努力支援을 위한 Non 프로젝트 無償資金 協力」이고, 또 하나는 89년부터 시작된 「小規模 無償援助」이다.

Non 프로젝트 無償은, ODA확충과 관련된 제 3차 中期目標의 일부 앞당긴 실시를 구가한 87년 5월의 「緊急經濟 對策」중에서 다른 하나의 중심으로서 강조된 「아프리카 諸國 等 後發開發途上國을 대상으로 하여 3년간에 5億달러정도의 Non 프로젝트 無償資金 協力을 실시한다.」는 정책에 입각하는 것이다. 누적채

무의 증대, 國際收支 赤字의 확대 등 심각화하는 經濟 困難을 구하기 위하여 經濟의 구조 개선 및 긴급하게 필요한 외화의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87년도부터 89년도의 3년간에 우간다, 가나, 케냐, 잠비아, 짐바브웨,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제국 총 26개국에 61億円이 供與되었다. 긴급하게 수입을 필요로 하는 물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無償資金을 供與하는 것으로 國際 收支 支援의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나아가 이것이 모두 無條件(untied)的이고 동시에 적정한 실시를 기하기 위해 英國 海外援助廳의 援助實施機關이나 UNDP를 활용한다는 劃期的인 施策을 취했기 때문에 關係 先進國, 開途國 雙方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평가와 아프리카 諸國이 여전히 이러한 援助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이 Non 프로젝트 無償 援助를 실시하기로 하고 「제 2차」로서 90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6億 달러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

「小規模 無償資金 協力」은 一般無償資金協力이 節次上 작은 융통이 되지 않아, 소규모 안건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점의 타개책으로서 대두한 새로운 방책으로 開發途上國의 地方公共團體, 研究機關, NGO 등으로부터의 요청에 대해 현지 日本 在外公館 수준에서 신속하게 부응해 가려는 것이다. 89년도부터 도입되어 동년중에는 95건 약 3億円分의 援助가 실시되었다. 안건 한건의 단가는 결코 많지는 않지만, 신속하게 풀뿌리와 같은 수준으로의 援助가 가능한 것이 평가되고 있다.

나. 債務救濟

一般 無償의 범위내에 포함되는 또 하나의 援助形態에 채무 구제를 목적으로 한 援助가 있다.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누적채무의 문제가 심각화해진지 이미 오래되지만, 이 債務救濟 無償은 後發開發途上國 (LLDC) 및 73년 이후의 經濟危機(오일쇼크)에 의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은 나라들(MSAC)의 채무를 구제하는 하나의 방책으로서 無償資金을 供與하는 것이다. 과거의 円借款의 해마다의 상환 부담의 경감을 도모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LLDC에 대해서는 원본 및 이자의 합계액을 MSAC에 대해서는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약정이자를 78년 당시

의 円借款 供與 條件 (그이전의 조건보다 소프트하다)으로 조정한 경우의 이자의 차액에 상당하는 액을, 각각 일단 상환시킨 상태에서 이것과 交換으로 동액의 無償資金을 供與하는 시스템이다. 가령 LLDC의 어떤 나라의 政府가, 過去 円借款의 상환 년부 때문에 3월말일까지 원금 및 이자분 합계 1億 5천만円의 년부 상환 의무를 짊어지고 있을 경우, 日本은 그 나라에 이 채무를 이행시켜, 1億 5천만円을 받고 나서 이것과 동액인 1億 5천만円의 無償資金을 그 國家에게 供與하는 방식이다. 채무를 단숨에 장부로부터 지워버리는 방식으로 채무구제를 도모하는 선진국도 있지만, 日本의 경우는 채무는 채무로서 당초의 償還計劃대로 償還시켜 그때마다 無償資金을 供與해서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는 셈이다.

이 援助는 事實上 無條件(untied)의 無償商品援助와 같고, 受援國은 이 無償資金으로 희망하는 상품을 제 3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이 채무구제는 78년 3월에 개최된 國際聯合 貿易開發會議 (UNCTAD)제 9회 特別 貿易開發 理事會 (TDB) 第 3會期에 있어서 많은 貧困開發途上國이 심각한 채무 상환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先進援助供與國은 이러한 開發途上國에 대한 과거의 兩國間 ODA조건의 조정조치 또는 그 밖에 비슷한 措置를 취할 것으로 결의된 것을 이어받아 7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對象國은 77년도 이전에 日本과의 사이에서 円借款協定을 체결한 LLDC 11개국 및 MSAC7개국인 계 18개국. 단, 그후 아프카니스탄에는 중지하고 미얀마가 LLDC에 인정되었기 때문에 LLDC가 12개국, MSAC가 6개국이 되었다. 그후 88년 6월에 책정한 ODA확충을 위한 제 4차 中期目標에서 강조된 것과 같이 LLDC의 채무구제 조치를 더욱 확충하기로 하고 LLDC에 대해서는 종래 77년도 이전의 円借款 債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것을 89년도부터는 78년도부터 87년도까지 日本과 체결한 조약에 입각한 円借款債務로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이 新規 對象의 10년간의 救濟對象 円借款 總額은 약 6,800億円에 달한다.

다. 水産 無償 援助

이 無償援助는 開發途上國의 水産振興에 기여하기 위해 어업 훈련 시설이나 水産研究施設의 건설, 訓練船 또는 漁具의 조달 등에 필요한 資金을 供與하는 援助이다.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食糧問題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생산의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의 供給源으로서 水産資源의 開發 利用의 추진을 도모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고, 발전된 水産 技術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日本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해오는 나라가 적지 않다. 水産無償援助는 이와 같은 안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援助로 技術協力과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다.

援助의 형태로서는 어업훈련센터, 水産센터, 水産試驗場, 漁業基地, 水産大學, 水産高校 等 施設의 건설, 어업 훈련선 또는 小形漁船 등 船舶의 調達, 漁具, 漁網, 冷藏·冷凍庫, 製氷機, 冷凍 트럭, 研究機資材 等의 조달에 필요한 資金을 供與하고 있다. 지역적인 배분으로는 아프리카, 태평양제도 및 중남미의 세지역으로 전체를 삼분하는 형태가 되고 있다. 一般無償의 경우와는 달리 200海里 經濟水域 問題 等 日本의 遠洋漁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에 넣어서 供與가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相對國 國內에서 人才層이 얇다든가, 技術레벨이 너무 낮다든가, 행정기구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든가, 로컬 ·코스트(현지비용)의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신중한 검토를 요하는 문제도 있으며 一般 無償의 경우와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

라. 災害 關係 援助

災害 關係 無償 援助는 海外에서 대지진이나 홍수 등 큰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나 動亂등으로 난민·피난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에 구원을 위해 긴급하게 행하는 無償援助이다. 이는 赤十字社를 경유하거나 國際機關을 통해서 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 마. 文化 無償援助

文化 無償援助는 문화에 관한 國際交流의 일환으로서 76년도부터 개시된 無償援助의 하나이며 開發途上國에 있어서 교육 및 研究의 진흥, 문화재 및 문화유적의 保存·利用, 文化關係의 공연, 전시 개최에 사용할 기자재의 구입 등에 필요한 資金을 無償으로 供與하는 援助이다. 한 件當의 援助額은 5千萬円 정도로 되어 있다.

츄라론콘 大學 天體 望遠鏡, 敎育省 考古學用 土中探査機資材, 敎育省 스키타이 遺跡整備 機資材(以上 타이), 兒童科學技術館 科學原理 學習機資材, 放送大學 日本語 敎育프로그램(以上 中國), 國立博物館 文化財保存復元機資材, 國立中央圖書館 情報關聯 機資材(필리핀) 等은 최근에 있었던 구체적 사례의 일부이다. 금액적으로는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다양한 分野에 공헌이 가능하므로 그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바. 食糧援助

食糧不足에 고민하는 開發途上國에 대해서 食糧(穀物)을 구입하기 위한 資金을 供與하는 援助로 현재 日本의 食糧援助는 「1989년의 食糧援助 規約」에 입각하여 실시되고 있다. 食糧援助 規約은 원래 GATT주최의 케네디·라운드(KR)관세 일괄인하 교섭의 일환으로서 대두된 것으로, 그 후 「1971年의 食糧援助規約」에 계승되었다. 80년에 「1980年의 食糧援助 規約」이 舊 規約을 대신하여 발효하고, 그 후 더욱 3년간씩 동규약이 延長되고 있다. 이 규약하에서 가맹국 전체로 연간 千萬톤의 곡물을 開發途上國에 供與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고, 年間 最少 共同出資 義務는 761만 2千톤. 그중 日本은 每年 小麥(밀) 換算으로 30만톤의 最低共同出資 義務를 지고 있고, 이것에 입각하여 日本은 開發途上國이 곡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資金을 無償으로 供與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밀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고, 또 食糧의 現物 無償供與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資金으로 援助를 행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이 조달하는 곡물은 쌀, 밀 등이지만, 이 無償資金에 의해 타이 또는 미얀마 등 開發途上國産의 쌀이 조달되는 등 開發途上國의 곡물 수출 증가에 기여하여 이들 수출국의 외화 수입증

가에 도움을 주게 되므로 이 無償援助는 2重의 효과를 내고 있다. 첫머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援助는 「KR 食糧 援助」라고 일반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규모는 전체로 120億円程度이며, 지역적으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양지역에 90%이상이 배분되고 있다.

사. 食糧 增産 援助

開發 途上國이 직면한 食糧危機에 대해서는 前記의 KR 食糧 援助에 의해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本來 開發途上國의 食糧問題는 각각의 자조노력에 입각한 食糧增産에 의해 解決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食糧增産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자재 또는 기계, 차량류를 조달하는데 필요한 資金을 供與하는 援助이다. 가령 화학비료, 농약, 농약살포기, 관개용 펌프·셋트, 경운기, 탈곡기, 트럭, 트랙터 등이다. 이 援助는 77년부터 개시 되었는데 KR 食糧援助에 대해 「2KR」이라고 약칭된다. 援助의 규모는 년간 300億円 程度이고, KR 食糧援助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 대한 배분이 압도적으로 큰 比重(share)을 점하고 있다. 또한 KR 및 2KR의 兩 援助를 供與하는데 있어서는 상대국 측에 대하여 현지 통화에 의한 담보 적립금을 적립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고, 이 적립금은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국내에서 실시되는 農業開發 프로젝트의 現地 經費(local cost)로 충당시키기로 하고 있다. 이 적립금의 액수는 기자재 등이 日本으로부터 송출될 때의 FOB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LLDC에 대해서는 그 3분의 2에 상당하는 액수를 그 밖의 나라에 대해서는 FOB가격상당액을 적립시키고 있다.

2. 技術協力

DAC의 統計上 「兩國間 援助」중의 「贈與」에는 「無償資金協力」과 「技術協力」이 計上된다. 技術協力의 실시에 필요한 經費 대부분을 공여국측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이 負擔資金을 「贈與」의 일부로 꼽고 있다.

技術 協力의 정의에 대해서는, 國際聯合에는 國際聯合의, DAC에는 DAC의 것이 있어 반드시 획일적인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DAC에서는, 「開發途上國國民의 知識, 技能, 技術上의 노우하우 내지 생산적 자질을 향상시키는, 즉 知的 資本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혹은 「開發途上國이 기존의 자원을 보다 더한층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技術協力이라고 하고 있다.

技術 協力은 開發途上國의 經濟社會 開發에 도움이 되는 技術, 技能 , 知識을 가르치고, 전달하고, 전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援助인 동시에 산업기초부문(infrastructure)정비를 위한 援助를 하드(hard)한 援助라고 한다면 技術協力은 소프트(soft)한 援助라고 말할수 있다.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것으로서 「人材養成」의 援助」 그 자체이다. 그 내용은 통상 一般的으로 「技術」이라는 단어로부터 떠올릴수 있을 것 같은 기계적, 공학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널리 森羅萬象에 이른다. 대학병원의 의학교육에 조언하는 것도 技術協力이고, 동위원소(isotope) 이용에 의한 農産物 保存技術을 지도하는 것도 技術協力이다. 품질관리의 노우하우를 가르치는 것도 은행의 매니지먼트 또는 증권시장의 운영관리를 지도, 조언하는 것도 技術協力이다. 일찌기 싱가폴에 日本式의 「巡警」이 생겨 시민과 친숙해지고 있다는 화제가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日本의 경찰 당국이 日本의 技術協力의 일환으로서 그 노우하우를 供與하고 조언을 실행한 데서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技術協力은 광범위에 걸친 協力이고, 나라 형성의 기초가 되는 인간 형성에 기여하는 커다란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는 有償, 無償의 資金協力보다도 더 重視되어야 할 援助 形態라고도 할 수 있다.

일찌기 日本 메이지(明治) 政府가 서둘러 나라의 근대화를 꾀하기 위해 産業技術이나 생활기반으로부터 교육, 군사, 입법, 행정 등 갖가지 分野의 노우하우를 서구로부터 배워오도록 다수의 유학생을 歐美에 派遣하고, 또 所謂 「雇

備 外國人」이라고 부르는 다수의 技術者, 指導者를 거액을 투자하여 맞아들였는데, 그 결과 日本은 극히 단기간 동안에 근대화로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다는 日本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중요성은 쉽게 理解가 될 것이다.

技術協力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다. 百퍼센트 政府 베이스로 행해지는 技術協力 以外에, 政府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민간 베이스의 技術協力도 있고 또 완전히 民間 資金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있다.

政府間의 合意에 입각해서 실시되는 政府 베이스의 技術協力은 外務省 所管(일부에 대해 農林水産省, 通産産業省과 共同所管)의 政府關係 特殊法人의 하나인 國際協力 事業團(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 JICA)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DAC 統計에 따르면 日本의 兩國間 ODA 中 기술협력 금액의 6할이 JICA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나머지 약 4할은 公的資金에 의한 技術協力이기는 하지만, JICA이외의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國費留學生 招請 事業(文部省 所管), 國際研究協力事業(通産省 所管), 熱帶農業研究事業(農林水産省 所管) 等이 그 주된 내용이다. 이밖에도 수많은 政府 機關에 調査委託費 또는 補助金의 형태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장래의 經濟技術協力을 위한 調査活動이 이루어지거나, 민간단체에 의한 技術協力 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이들 事業費 또는 委託費, 補助金이 兩國間 ODA 가운데 技術協力의 약 4할을 점하고 있다.

JICA는 「研修生 招請」, 「專門家 派遣」, 「機資材供與」, 「프로젝트方式 技術協力」, 「青年 海外 協力隊」, 「開發調査」, 「開發協力」, 「無償資金協力 促進」 등의 事業을 실시하고 있고, 그 예산 규모는 90년도에 약 1300億円(외무성으로부터의 교부금인 海外 技術協力 事業費 및 通産省으로부터의 委託費인 海外開發 計劃調査委託費)에 이른다.

가. 國際協力事業團에 의한 技術協力

(1). 研修生招請事業

研修生招請事業은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중요한 인재를 研修生으로서 받아들여 다양한 分野의 技術이나 知識에 대한 研修 機會를 부여하는 事業이다. 行政, 農林水産, 鑛工業, 에너지, 保健醫療, 公共 · 公益事業 等 分野는 多樣하지만, JICA가 받아들이는 研修生은 政府간의 약속에 입각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開途國의 각각의 分野에 있어서의 公務員 또는 政府關係機關의 研究生 等의 公的인 사람이 많다. 長官級의 高官을 「高級研修生」 등으로 초빙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연간에 받아들이는 研修生의 숫자는 전년도부터의 남아있는 研修生을 포함해 89년도는 약 7,500명 규모에 달하고 있다. JICA의 全身인 OTCA의 전성기에 받아들인 사람의 수를 포함하면 政府 베이스로 研修生으로서 받아들인 者는 이미 약 9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研修分野에서 보면 公共 · 公益事業關係가 약 25%, 農林水産關係가 약 20%, 鑛工業關係가 13%, 保健醫療關係, 行政關係가 각각 10%이다. 지역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研修生이 약 6할 중남미지역이 약 2할, 나머지를 中東, 아프리카 양 지역이 차지하고 있다.

JICA가 받아들이는 研修生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무릇 과거 20년간에 5배, 10년간에 2배라는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 (OTCA가 받아들인 것을 포함한다).

研修實施의 방법에는 우선 日本 國內에서 실시하는 「國內研修」와 海外의 제3국의 거점에서 실시하는 「第 3國 研修」가 있다. 前者에는 크게 나누어 「集團研修」와 「個別研修」가 있다. 研修生을 招請하는 것은 대단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다. 日本에 올때와 떠날 때의 出入國 節次, 日本에 있는 동안의 宿所마련이나 식사 안내, 研修處의 確保, 研修 커리큘럼의 작성, 국내여행의 알선과 안내, 통역원 수당, 研修 終了後의 평가, 생활지도, 병에 걸렸을때의 안내 등등

엄청난 번거로움을 동반한다.

JICA의 研修事業部에서는 불과 수십명의 직원이 년간 7천수백명에 이르는 研修生을 받아들이는 業務에 從事하고 있지만, 研修生 한사람 한사람의 研修 희망에 맞추어 맨투맨 대응으로 研修를 실행하려고 하면 研修事業擔當者는 몇백명 있어도 따라갈 수 없고 또 研修處도 좀처럼 찾을 수 없다. 次善策으로서 취하고 있는 방법이 研修 코스를 前記한 것과 같이 「個別研修코스」와 「集團研修코스」의 두가지로 나누어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個別」쪽은 한명한명의 研修要求에 맞추어 研修處를 찾고 각각의 커리큘럼을 짜서 研修를 실시하는 방법이고, 「集團」쪽은 커리큘럼이나 實施計劃, 參加資格 等 자세한 내용을 미리 책정해 두고 開發途上國 政府에 이것을 제시해서 각 코스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십여명에서 수십여명을 한 그룹으로 모아 받아들이는 방법이다. 메뉴에 비유한다면 前者는 일품이고 後者는 정식이다. 백명의 研修生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한명씩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것 보다도 이것을 몇개 그룹으로 나누어 정식 코스에 받아들이는 쪽이 손이 덜가고 효율적인 것은 당연하며, 한사람 한사람 國籍이나 人種을 달리하는 몇명인가의 研修生이 수주일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매일 얼굴을 대하고 같은 곳에 숙박하면서 같은 코스로 研修를 받는다는 데에 日本을 무대로 한 國際交流가 추진된다는 부차적 효과도 거둘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자의 입장에서 研修內容이 획일적이고 최대공약수적인 것이 되고 맨투맨 방식의 研修처럼 상세한 研修를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JICA에서는 地方自治團體, 民間企業, 公社公團, 各種研究機關, 關係政府 機關 等의 協力하에 2백이상의 研修코스를 설치하고 있다. 오랫동안에 걸쳐 매년 실시되어온 코스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괄호안은 協力實施機關)

디지탈 交換技術(日本電信電話株式會社)
結核對策(結核豫防會 結核研究所)
癌對策(國立癌센터)

火力發電(東京電力)
微生物研究(오사카大學 微生物 研究所)
貿易振興센터(世界貿易센터)
敎育텔레비젼 프로그램(NHK)
텔레비젼 放送管理(郵政省)
港灣세미나(運輸省)

또한 JICA는 研修生을 받아들이는 宿泊·研修시설로서 東京,츠쿠바, 오오사카, 나고야, 고오베, 北큐우슈우 등 전국에 11개의 國際研修센터를 설치하였다.

최근 서서히 확충되어 가고 있는 것이 국외에서 실시하는 「제 3국研修」이다. 이것은 전기한 것처럼 제 3국에 있는 研修據點에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주로 日本이 실시한 大型 技術協力 프로젝트의 현장이다. 가령 日本은 後術하는 프로젝트방식이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80년부터 4년간에 걸쳐 브라질에서 백신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技術協力을 실시했는데, 그 성과를 더욱 널리 주변국에까지 전파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브라질을 當事國(host country)으로 하여 88년부터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 주변 10개국으로부터의 研修生을 받아들여 研修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그 一例이다. 제 3국 研修에서는 日本은 항공운임 등의 旅費나 체재비 등의 研修에 필요한 經費를 거의 전액 부담하지만, 當事國(host country)도 직접, 간접적으로 각종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 제도는 일종의 開發途上國간의 技術協力(TCDC)을 장려, 추진하는 의미와 역할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研修生이 日本에 오는 것 보다도 보다 친숙해지기 쉬운 自然條件과 社會條件, 共通 言語속에서 研修를 받을 수 있다는 것, 當事國에 自覺과 責任을 지게 할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 게다가 經費의 切感을 꾀할수 있다는 것 등등의 장점이 있다. 91년 현재 18개국에서 47건의 코스가 개설되어 있다.

(2) 專門家 派遣事業

研修生 招請과 병행하여 技術協力의 가장 근본적인 실시방법은 現地로 專門

家를 派遣해서 행하는 「專門家 派遣」이다. 開發途上國의 現地에서 政府機關에 정책상의 조언을 행하고 諸計劃의 기획·입안에 참가하며, 여러 分野의 技術指導를 담당하고 調査研究에 從事할 專門家를 派遣한다. 派遣된 專門家는 政府機關, 試驗研究機關, 事業所, 學校, 訓練機關 等에 배속되어 이와같은 業務를 통하여 開途國의 經濟 社會 開發 또는 人材養成에 기여한다.

專門分野에 응하여 개개의 요청조건에 따라 派遣되는 專門家와 프로젝트方式 技術協力 實施를 위해 그룹으로 派遣되는 專門家의 두종류로 나누어지는데, 그 밖에 소수이기는 하지만 國際機關 等에 派遣되는 예도 있다.

專門家의 分野는 研修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극히 광범한 分野에 걸친다. 그중에는 아프리카의 루완다에 派遣되어 중앙은행 총재에 취임, 經濟·財政의 발전, 근대화의 貢獻하신 분도 계시고, 농업의 근대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십수년간이나 부탄에 勤務하셔서 부탄왕실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계시는 事例도 있다.

JICA는 83년에 國際協力 綜合研修所를 개설하고, 技術協力을 라이프워크로 하는 專門家를 위한 조직을 만드는 등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JICA가 스스로의 힘으로 派遣할 수 있는 專門家는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등록제도의 활용에도 많은 困難이 따라 아직까지도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은 分野에 따라 所屬政府 機關이나 民間企業, 公社公團 等에 인선을 요청해서 그 추천을 받고 「專門家」를 委囑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은 소속처, 근무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근년의 실적을 보면 약 4할이 國家公務員, 약 3할이 民間企業職員, 公社公團 等 特殊法人 職員이 약 1할, 其他 地方公務員 및 所屬處가 없는 사람들로 되어 있다.

(3) 機資材 供與 事業

機資材類를 供與하는 것 자체가 技術協力 그 자체일 수는 없지만, 이전해야

할 技術의 媒體로서 機資材類는 불가결한 것이다. 교실에서는 칠판이라든지 분필이 없을 수 없으며, 나아가서는 프로젝트라든지 비디오도 필요해진다. 의료협력에서는 의료기기라든지 시험용 기기가 필요해진다. 농업 협력에서도 농기구 또는 농약, 비료가 필요해진다. 이처럼 기술 이전의 매체로서 필요한 機資材를 供與하는 事業이 機資材 供與事業이다. 無償資金協力이라도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기자재 조달을 위한 자금이 供與되는 일이 있는데, 技術協力의 경우는 이와 같이 「技術移轉의 媒體」로서의 성격상, 금액적으로도 수량적으로도 대단히 한정된 것이 된다.

機資材 供與에는 「프로젝트 方式 技術協力」을 위해 供與되는 것과 單獨, 單發的으로 供與되는 것이 있다. 後者를 「單獨 機資材供與」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技術 協力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상, 파견중인 전문가라든지 青年海外協力支援이라든지, 日本에서 연수를 받은 귀국연수생등 「사람」과의 關聯性을 重視해서 供與하고 있다. 년간 1개국당 한건, 금액도 수백만円에서 수천만円程度로 한정된다.

(4) 프로젝트 方式 技術協力

지금까지 敍述해온 「研修生 招請」「專門家 派遣」 및 「機資材 供與」의 세가지가 技術協力의 기본적인 형태인데, 이들 세가지 형태의 技術 協力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 장기(통상 3년간에서 5년간)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의 技術協力을 「프로젝트 方式 技術協力」이라고 한다. 종합적, 계획적이며, 프로젝트로서의 性格이 강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부르는 셈이지만, 센터 方式 혹은 計劃 方式이라고 부를 때도 있다. 이 형태의 技術協力으로 JICA가 상대국 정부의 關係機關과의 사이에서 협력목적, 협력실시기간, 달성목표, 구체적 실시계획, 쌍방의 의무·부담 등에 대해서 합의를 성립시킨 상태에서 프로젝트 리더 이하 몇명의 專門家를 그룹으로서 파견하고, 한편 이들 전문가의 현지에서의 同伴者(counterpart)가 되고, 전문가로부터 技術의 지도를 받는 現地關係者를 研修生으로서 日本에 받아들여 나아가 필요한 機資材를 供與한다는 이른

한편 지역적인 綜合開發計劃調査는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농업, 광공업, 경제기반 정비 등과 같은 開發이나 각종 자원의 開發 可能性을 종합적으로 찾으려는 것으로 經濟協力을 추진해가는데 있어서 參考도 되고 優秀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조사이다.

(ㄴ) 타당성(feasibility) 調査(F/S)

타당성(feasibility) 調査는 開發調査 事業中에서 주체를 이루는 조사로 實現하기로 計劃되어 있는 개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구상이 과연 기술적으로 實現可能한가, 收益性으로부터 보아 經濟的으로 성립할 수 있는가등 技術的, 經濟的, 財政的인 見地로부터 가능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調査이다. 이 調査 結果는 F/S(Feasibility Study)리포트로서 정리되어 相對國 政府에 提出된다. 相對國 政府는 이것에 입각하여 프로젝트화의 적합여부를 결정하고, 프로젝트화하는 경우는 日本이나 제3국 혹은 국제 금융기관에 융자를 요청하게 된다.

F/S는 이처럼 특히 經濟的으로 적합한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조사하는 것으로 事業化한 境遇 內部 收益率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가 하는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것이 대단히 고율이면 사업화한 경우 거의 확실하게 이득을 버는 프로젝트인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대단히 저율이면 사업화해도 수익이 오르지 않는 事業임을 의미한다. 前者의 경우는 低利의 보조자금을 외국정부나 국제 금융기관에 구하지 않고 민간 자금으로라도 사업화하면 된다는 例가 되고, 後者의 경우는 援助資金의 융자를 받아 사업화해도 원래 수익이 예상되지 않는 것이므로 융자의 상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어 사업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例가 된다. 대체로 내부 수익률 10%정도가 자금 대부시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실적으로는 日本이 F/S를 실시한 건의 약4할에 대해서 日本으로부터 円借款이 供與되고 있고, F/S는 円借款供與에 우선되는 주요역할을 완수

하고 있다. 또 이 F/S는 JICA가 실시하고 있는 開發調査 事業 全體의 約 5割程度로 가장 큰 比重을 占하고 있다. F/S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요분야는 다음과 같다.

- 農林水産業開發(灌漑排水施設建設, 造林計劃, 漁港建設計劃 等)
- 鑛工業開發(電源開發, 鐵鑛業 · 化學工業 等과 같은 開發計劃)
- 社會인프라 整備(道路, 港灣, 空港, 通信, 放送, 鐵道 等과 같은 建設計劃)
- 都市開發

(ㄷ) 基本設計調査

基本設計調査는 주로 日本의 無償資金協力에 의해 건설되는 병원, 학교, 연구소, 직업훈련 센터등의 시설, 건물 등에 대해서 經濟社會開發에 있어서의 위치부여 이것이 초래하는 經濟的 社會的 效果, 適正規模, 運營體制 等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함과 동시에 설계를 실행하기 위한 조사이다.

(ㄹ) 實施設計調査

실시설계는 타당성(feasibility) 調査의 다음단계로서 工事의 實施設計 圖書를 작성하는 작업이다. 工事着手에 필요한 入札圖書, 상세한 設計圖, 仕樣書의 작성등으로부터 구성된다. 통상 이와같은 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공사비속에 포함되지만, 자금조달의 목적도 설정되어 있고 타당성(feasibility)도 확인되어 있는 건으로 특히 상대국 정부로부터 강한 요청이 있을 경우라든지 긴급한 경우에는 技術協力의 일환으로서 JICA가 이를 실시하는 수도 있다.

(ㅁ) 地形圖作成, 山林資源 · 水産資源調査

地形圖(地圖)는 한 나라 한 지역의 開發計劃을 企劃, 立案할때, 가장 기본적인 자료로서 불가결한 것이지만 아직 이것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開發途上國이

적지 않고, 그중에는 國土基本圖조차 갖추지 못한 나라도 있다. 따라서 技術協力의 일환으로서 JICA는 이와같은 地形圖 作成에도 協力하고 있다. 通常 地形圖는 특정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마스터 플랜조사를 실행하는 경우나 實現可能性 調査를 실행하는 경우, 그 프로젝트의 계획 입안에 필요한 범위로 좁혀 작성하는 일이 많은데 지형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나라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地圖,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地圖의 작성을 실행하여 開途國의 國土 基本圖의 作成에 協力하고 있다. 通常「地形圖 作成 調査」의 경우는 이 國土基本圖 作成 調査를 나타내며 縮圖 5萬分의 1 혹은 2만5천分의 1 程度의 것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업에는 件當 數億円이나 들고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JICA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소수의 안건에 그친다.

森林資源調査는 항공사진촬영, 현지답사, 해석등을 실행하여 對象森林의 蓄積量, 樹種 等 森林資源의 賦存狀況을 조사하는 것이다.

水産資源調査는 漁船으로 실제로 試驗操業을 실행하고, 調査對象水域에서 棲息하는 魚類의 種類, 賦存量, 適正漁期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행하는 조사이다.

(ㅂ) 資源開發協力基礎調査

이 調査는 地質調査, 物理探査, 볼링(試錐)調査 等을 실시하여, 鑛物資源의 賦存狀況을 調査하는 것으로 대상자원은 非鐵金屬 중, 銅, 亞鉛, 鉛등이 주된 것이다.

(ㅅ) 地下水 開發 調査

이 調査는 특히 물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조지역등에서 수자원 확보를 위해 볼링 조사등을 실행하고, 地下水 賦存量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행하는 조사이다. 日本의 地下水探査技術은 세계적으로도 우수하므로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관련 조사 실시 요청이 많다.

JICA의 開發調査事業은 해마다 확충 강화 되고 있고 그 예산도 해를 거듭할 수록 신장되어 왔다. 근년 연간 3백건 가까운 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분야적으로는 농림수산, 광공업, 운수관련이 커다란 역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아시아가 5내지 6할, 중남미가 약 2할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 開發調査事業은 JICA의 事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컨설턴트를 활용하고 있는 분야인데 88년부터 문호를 외국인 컨설턴트에게도 개방한 결과, 상당한 수의 안건에 외국인 컨설턴트가 참가하게 되었다.

(6). 開發協力事業

開發協力事業은 주된 목적을 정부 베이스의 技術協力의 실시에 있어서 있는 JICA 중에서 특이한 성격을 지닌 事業으로 本土(日本)企業에 대한 융자나 조사기술지도를 실행하는 事業이다.

日本 企業이 開發途上地域 等에서 社會開發, 農林業 및 鑛工業 分野에서의 開發 事業을 실행하는 경우 그 開發事業中 試驗的으로 실행되는 事業이고 技術改良 또는 開發과 일체가 되어 행하지 않으면 達成이 곤란한 事業(試驗的 事業) 혹은 開發事業에 부수하여 필요해지는 관련시설이어서 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의 整備事業(關聯 施設整備事業)에 대해서 JICA가 신청에 응하여 長期低利의 자금을 융자함과 동시에, 각종 조사의 실시라든지 전문가의 파견, 연수원의 받아들임 등과 같은 技術協力을 실행하는 事業이다. 이 融資(「開發投融資」)는 兩國間 ODA의 「有償資金協力」에 포함된다.

(7). 青年海外協力隊事業

아프리카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日本의 青年海外協力隊隊員이, 마을사람들에

게 추대되어 그 마을이 「酋長」이 되었다든가 하는 新聞報道 等 開發途上國에서 활약하고 있는 協力隊 隊員의 뉴스가 때때로 신문이나 TV에서 보도되므로 協力隊는 친숙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 事業은 현재는 政府 베이스의 技術協力의 한 形態로서 JICA의 事業中 큰 하나의 기둥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青年의 海外自願奉仕活動 事業으로서 1965년에 발족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보다 4년전에 당시의 케네디 대통령의 제창에 의해 「平和部隊」가 發足되고 있고, 이에 촉발되어 이른바 日本版 平和部隊로서 誕生했다.

발족후 최초로 隊員이 派遣된 것은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지아의 3국으로 65년 12월에 제 1차로 隊員 合計 26명이 파견되었다. 그후 이 事業은 착실하게 발전을 계속하여 최근에는 파견체결국이 50개국 이상이며 발족 이래의 파견 누계는 이미 1萬名을 넘고 있다. 이 事業에서는 여성의 활약이 눈부시고 通算하여 4명에 한명이, 그리고 활동중인 隊員으로는 3명에 한명이 女性隊員이다.

파견중 隊員은 한달에 2백수십달러로부터 약5백달러의 범위(파견국에 의해 差異가 있는데 평균 약 360달러)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것으로 가능한 한 현지 주민과 융화된 생활을 영위하고, 주민과 함께 일하며 고락을 같이하고, 그럼으로써 풀뿌리같은 레벨의 지원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가난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실행하는 자원 봉사 활동이므로 그 고생은 이만저만한게 아닐것이다. 원래 괴로운 自願奉仕活動에 青春의 2년을 바침으로써 자기 자신의 심신을 단련하려는 의미를 가진 활동이기도 한 것이지만, 派遣國으로부터는 일반적으로 무척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事業이다.

自願奉仕 活動이라는 점에서 이 事業은 다른 형태의 技術協力과는 약간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國際協力事業團法은 이 점에 대해서 「開發途上地域 住民과 일체가 되어 해당지역의 經濟 및 社會의 발전에 協力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海

外에서의 青年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다음 事業을 실행한다(이하 생략) (동법 제2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JICA가 青年의 자발적인 海外協力活動을 「促進」하고, 「奬勵」하기 위해서 이 事業을 실행할 國家, 青年의 海外自願奉仕 活動과 JICA와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美國의 「平和部隊」의 경우는 英語指導를 위해 파견된 자가 많다고 일컬어지는 것에 대해서, 日本의 協力隊 경우는 상당한 레벨의 전문기술을 몸에 익힌 隊員이 파견되고 있고 「技術協力」을 실제로 행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자원봉사활동 이라고는 하더라도 開途國側으로부터 높이 평가되어 파견요청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2년간의 임기를 마친 隊員은 현지 언어에도 통달해서 늠름하게 성장하여 돌아온다. 그들 중에서 장래 많은 우수한 「國際人」이나 技術協力 專門家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재직중의 隊員應募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이나 歸國隊員을 적극적으로 中途採用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우수한 면이 이해되어 평가받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日本 社會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서 開途國측으로부터 요청이 많은 분야인 農林水産 등 1次 産業의 직종에 응모하는 隊員이 무척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나. 其他 技術協力

DAC 통계에 계상된 ODA의 技術協力 實績에는 JICA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정부 베이스의 技術協力 以外에 公的인 資金을 갖고 실시되는 다음과 같은 技術協力이 포함된다. 中央官廳 直屬의 것과 政府補助金의 교부를 받고 地方自治團體 또는 NGO가 실시하는 것이 있다. 前者에서 주된 것에는 文部省이 開途國

으로부터 받아들이는 國費留學生招請事業, 通産省 工業 技術院이 開途國 政府 研究機關과의 사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國際研究協力事業, 農産省이 마찬가지로 開途國間에 추진하고 있는 熱帶農業研究事業, 各政府 機關이 民間 調査機關 等에 위탁해서 장래의 開發協力 可能性 等에 대해서 實施하고 있는 調査事業 等이 있다.

地方自治團體는 JICA가 실시하고 있는 정부 베이스 技術協力에 대해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커다란 협력 지원을 하고 있다. 自治團體 職員이 JICA에서 派遣된 專門家 혹은 協力隊員으로서 開途國으로 향할 때 身分·待遇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都道府縣(日本의 地方 行政單位) 모두가 休職 條例나 職務專念 免除 條例를 제정해서 직원의 「現職參加」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또 JICA가 받아들인 연수원의 연수에 대해서도 地方의 산업 특수성 등을 살린 연수를 實施하는 등의 協力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地方自治團體는 한편으로 독자적인 研修生招請事業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 베이스의 技術協力을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경비의 일부에 대해서 보조를 실행하고 있다. 71년에 山梨, 兵庫, 熊本 等의 세 縣이 發足시킨 이 事業은 지금에 와서는 全國 各處에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89년도까지 초청 누계는 4,229명에 달하고 있다.

3. 政府間 貸付

「政府間 貸付」는 兩國間 援助 中의 「贈與」(無償資金協力과 技術協力)와 함께 兩國間 ODA의 한쪽 중심을 이루는 것으로 「無償資金協力」에 대해서 「有償資金協力」이라고도 하며 혹은 「政府直接借款」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円借款」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資金協力이다. 開發途上國이 그나라 전체로서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면 우선 경제사회 인프라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많은 開途國의 경우 투자순환이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 수익성도 높지 않으므로 민간자금의 조달은 어렵다. 円借款은 이러한 경우에 유리(soft)한 조건(저리·장기)으로 開發資金을 정부 베이스에서 대부하는 것이다. 수년동안의 실적에서는 兩國間 ODA의 50 퍼센트 정도를 円借款이 차지하고 있고, 円借款은

日本 兩國間 ODA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욱 有償資金協力 이나 円借款이 아니라 有償資金協力에는 円借款 以外에 금액적으로는 극히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술한 JICA의 開發投融資 및 海外經濟協力基金(OECF)이 日本企業 또는 現地企業이 開發途上國에서 실시하는 開發事業에 대해서 융자 및 출자의 형태로 供與하는 것의 일부 등이 포함된다.

借款供與의 조건은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조건완화에 대한 강력한 요청도 있고 하여 완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 89년도에 있어서는 평균 금리가 2.7%, 상환기간이 25-30년(그중 거치기간 7-10년)으로 되어 있다.

円借款을 어떤 나라에 供與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無償 資金供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민 1인당의 소득수준(GNP 總額)이 하나의 기준으로 되어있다. 世銀의 융자 기준을 참고하면 90년도의 경우는, 88년의 1인당 GNP가 2,200달러 이하의 나라를 供與適格對象國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LLDC에 대해서는 「原則 無償化」의 정책하에 円借款 供與보다도 無償資金協力으로 대응하도록 되어 있다. 단, LLDC인 방글라데시에는 每年 円借款이 供與되고 있고, 또 GNP 基準을 웃도는 나라에도 供與되는 경우가 있고, 日本과의 관계나 외교상의 관점으로부터 彈力的으로 供與가 결정되고 있다.

日本으로부터의 輸出信用, 資源開發 投資 等 民間 베이스에서의 經濟協力은 1951년부터 日本輸出入銀行을 통하여 실시되고 있었으나, 정부베이스에서의 円借款의 제1호가 供與된 것은 58년의 인도에 대한 180억円이었다. 電力 設備, 船舶 및 플랜트 設備를 위해 供與된 것으로 그 후에도 인도에는 계속하여 플랜트 設備, 機械用으로서 수년간 집중적으로 供與되었다. 59년부터 60년대 전반에는 인도외에 파키스탄, 스리랑카,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서남아시아 및 南美의 兩地域 國家에게 円借款이 供與되었다. 동남아시아 國家를 비롯한 그후의 日本 円借款 大規模 供與國에 대해서는 당초 배상 지불이나 無償援助(準賠償)供與가 실시되었고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의 각국에 円借款이 供與되기 시작한 것은 66년 이후이며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후 円借款이 집중적으로 供與되었다. 兩國間 ODA중에서 借款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배후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다.

OECF의 91년 3월 현재의 直接借款 投資殘額은 6兆円 가까이에 달하고 世界銀行 殘額의 약 3분의 1에 상당하는 규모에 이르고 있다. 더욱 円借款에 대해서는 이것이 日本 ODA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日本 ODA의 그랜트.엘리먼트를 낮추고 그 「質」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빈곤층에 직접 이익을 주지 않는 經濟 인프라 等 大規模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일이 많다는 비판이 강하다. 그러나 日本의 지금까지의 경제발전 역사와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우선 經濟 인프라의 정비를 추진하고 국가 경제발전의 기반을 다져 그 성과가 국민에게 이익을 주게 되는 과정을 취하는 것이 開途國에게 있어서 적절하며 의료 보건이나 가족계획 등 소위 BHN 분야에 편중된 援助만으로는 나라로서의 발전을 바랄 수 없다. 어느 정도까지 발전해 오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요청에 응하여 적극적으로 円借款을 供與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이다. 아시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發展하고 있는 地域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顯著한 成長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의 대부분이 日本 円借款의 大規模 受援國인 사실은 日本 円借款의 기여가 결코 작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大規模 資金을 공급하고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日本 円借款의 장점은 크다.

그렇다고는 해도 그랜트 중심으로 BHN 援助를 중시해서 ODA속에 円借款과 같은 제도를 갖지 않고 있는 미국 등은 日本의 円借款이 商業主義的이며 수출경쟁지원을 위한 수단에 사용되어 공정무역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이 있어 여기서도 하나의 「摩擦」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다. ODA 세계에서도 「日本異質論」적인 비판을 높일 우려가 있다. 또 旣述한 것처럼 開途國에 있어서 經濟·財政事情의 惡化 및 累積債務의 深刻化를 배경으로 하여 新規 開發프로젝트의 실시가 可能하다는 경향을 보이는 國家가 증가하고 있고 全體的으로 프로젝트 借款에 대한 요청의 비율이 감소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지금까지 누적채무문제라면 주로 민간자금의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는 중남미국가들의 채무문제가 중심이었지만, 해마다 거액의 円借款이 供與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의 円借款 大規模 受援國에 있어서는 장래에 円借款의 償還이 큰 부담이 되고, 이것이 아시아의 누적 채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후도 계속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円借款 供與를 계속해가야 할른지에 대해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거액의 채무가 누적되어 채무이행 불능에 빠진 결과, 그 원금까지 삭감을 요구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있어 円借款은 그 본연의 자세가 의문시되는 큰 전환기에 와 있다.

또한 円借款의 財源은 一般會計(말하자면 國民의 稅金)으로부터의 「出資金」(當然 金利는 제로)과 郵便貯金이나 簡易保健 等으로 구성된 財政投融資 資金으로부터의 「借入金」과의 合計이다. 이 두가지를 혼합한 자금조달금리가 평균대부 금리보다 낮지 않으면, 金利 차이에 의한 赤字가 생기게 되어, 1980년부터 金利差 逆轉이 생기고 있다. OECF에 생기는 이 赤字는 一般會計로부터의 보충을 기다리는 형편이 된다. 이 「借入金」의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開途國으로의 대부금리를 낮추면 낮출수록, 金利差는 커진다. 「利子를 붙여서 償還시키는데, 그래도 援助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하는 잘못된 비판도 들리지만, 円借款의 평균 금리는 2.7%, 상환기간은 7년-10년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25년-30년간으로 소프트(유리)한 것이다.

가. 供與의 形態

日本의 円借款은 從來 「프로젝트 借款」이 큰 比重(shear)을 점하고 도로, 철도, 교량 등의 건설이나 항만의 건설·정비, 발전소의 건설 등 육운·해운·전력등의 분야의 所謂 經濟 인프라 部門을 대상으로한 借款이 주역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근년 一次産品價格의 低下, 累積債務 問題의 深刻化 等 經濟難에

直面한 開發途上國이 증가해가고 있는것을 반영하여 이러한 經濟 인프라에 대한 円借款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80년대 전반에는 70%에서 80%대에 있었던 것이 89년에는 50%로 저하하고 있다. 新規開發 프로젝트를 積極的으로 거론할 餘力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신 증가되고 있는 것은 臨迫한 國際收支 惡化에 대응하기 위한 「Non 프로젝트(프로그램) 借款」이다.

(1) 프로젝트 借款

프로젝트 借款은 前記한 것처럼 円借款 全體에서의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나 円借款의 기본적 형태이며 대종을 이루는 것이다. 초기 무렵은 비료공장이나 제철소 건설 등 플랜트 사업이 주였는데, 최근에는 전력, 육운, 해운, 통신 등과 같은 분야의 經濟인프라 정비를 위해 借款이나 治水·灌漑 等 農業分野의 借款, 下水道 整備 또는 교육시설, 의료시설의 정비 등 사회인프라 분야로의 借款이 증가하고 있다. 상품이라든지 단체의 기계를 조달하기 위한 援助와는 달리 반드시 工事가 수반한다.

프로젝트 借款에는 內資(local cost)의 문제가 크다. 經濟難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긴축재정을 여지없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借款에서 프로젝트를 실시하려고해도 필요한 內資를 충분히 支給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원활한 실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內資分은 借款 導入國側이 自己資金으로 充當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日本이기는 하지만, 안건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필요에 응해 內資分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강구해 왔다. 借款供與 限度額의 3할을 한계로 하는 內資 融資 措置가 그 하나이다. 그러나, 이 「3割 原則」에서는 외화비중이 높은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유리한 반면에 內資의 비율이 높은 農村 開發프로젝트 등에서는 3할로도 부족한 경우가 생기므로 양호한 안건이라도 円借款 供與의 대상으로서 거론할 수가 없

는 경우가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89년부터는 「融資比率方式」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円借款 供與의 한도액을 당초부터 프로젝트의 「總事業費」와 「所得水準」을 連繫시켜 결정하는 것으로 LLDC와 貧困 開發途上國의 경우에는 總事業費의 85% 相當額 또는 외화 코스트의 어느 쪽이든 높은 쪽을 상한으로 하고 低開發途上國 및 中所得開發途上國의 경우에는 總事業費의 75% 相當額 또는 外貨 코스트의 어느 쪽이든 높은 쪽을 상한으로 하며, 中進國의 경우에는 總事業費의 60% 相當額을 상한으로 하고 각각 円借款 供與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註) 貧困 開發途上國이란 89년 시점에서 1인당 GNP가 580달러 이하인 나라, 低所得 開發途上國이란 동581-1,035달러인 나라, 中所得 開發途上國이란 동1,036-2,335달러인 나라, 그리고 中進國이란 동2,336-4,080달러인 나라를 指稱하는 것이다.

(2). Non 프로젝트(프로그램) 借款

(ㄱ) 商品 借款

國際 收支의 惡化 또는 外貨不足으로 인해, 國內經濟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基礎的 物資조차 輸入할 수 없고, 그 때문에 인플레 또는 사회불안을 招來하거나, 原料 또는 機械部品을 供給할 수 없기 때문에 원활한 經濟運營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供與하는 円借款으로 이것에 의해 經濟安定, 發展을 支援하려는 것이다. 緊急 援助의 색채를 띠며 단기간중에 卽效的, 機動的으로 效果를 發揮할 수 있는 借款이다.

(ㄴ) 開發金融 借款(two step loan)

開發途上國의 金融機關에 開發 資金을 供與하고, 이 金融機關이 국내의 제

조업이나 농업등의 民間部門 企業등에 小規模로 나누어 轉貸하는 형태의 借款이다. 通常의 借款에는 어려운 수많은 小規模事業에 대한 資金 供與가 가능해지고 被援助國측의 자주성, 주체성을 높이면서 民間部門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借款으로 근년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ㄷ) 開發資材型 借款

貨物車, 機關車, 建設機械 等의 機資材의 調達과 이것에 관련된 임무를 대상으로 하는 借款이다. 借款 導入國에 있어서 프로젝트 실시능력이 있고, 필요한 機資材만 調達할 수 있으면 卽時 프로젝트 실시가 가능해지는 경우, 이들 機資材를 調達하기 위해 供與하는 借款이다.

(ㄹ) 構造 調整融資

「構造 調整」政策은 IMF·世銀의 支援하에 開途國이 실시하는 것으로 輸入補助金의 폐지, 수출품 생산자 가격인하, 환율절하 등의 貿易政策 改善, 公共投資政策의 合理化, 公共 部門의 削減, 民營化 促進, 國內貯蓄의 促進, 價格統制의 철폐등을 근간으로 하고 이것에 의해 國際收支, 財政收支를 改善하고 對外債務 償還能力을 높여 民間經濟를 活性化시키고 經濟成長을 꾀할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며, 「構造調整融資」는 이러한 노력을 支援하기 위한 借款이다. 世銀은 80년부터 開途國에 巨視的(macro) 經濟調整 및 構造調整支援을 위한 融資를 실시하고 있고, 世銀과의 協助融資가 많다.

小規模 農家를 대상으로 收穫增加를 위한 肥料·農藥·農器具 等의 投入材의 공급 증가를 도모하고, 농민의 生産意慾의 向上, 流通시스템의 整備合理化를 도모한다는 農業센터 調整政策에 대한 融資와 같이 特定「센더(sender)」를 對象으로 한것도 있다. 또한 이「構造調整」에 대해서는 가령 世銀이나 IMF로부터 構造調整을 엄격하게 강요받은 結果 財政面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두어도 福祉나 醫療, 敎育 等의 豫算이 削減되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보

다도 가난한 사람들이나 여성들이며, 食料品이나 肥料에 대한 補助金 削減으로 농민까지도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여 一律的이고 성급한 改革이 결국 貧困層이나 女性들에게 큰 餘波를 미치고 있다는 비판도 낳고 있다.

(ㅁ) 債務 救濟

國際 收支의 惡化 等에 의해 旣供與의 円借款·利子支拂, 元金償還의 시기가 도래해도 그 이행이 곤란한 開發途上國이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救濟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서 LLDC 또는 MSAC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無償資金 協力에 의한 救濟策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에 덧붙여 債務의 延長(리스케쥴)을 인정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特定 債務累積國으로부터의 요청에 입각하여 그 나라에 대한 債權國이 파리에 모여 프랑스가 議長國(프랑스 財務省 國庫局 主催)이 되어 그 국가의 債務에 대해서 協議하는 場이 있고 이것을 파리클럽(主要債權國會議)이라 하는데, 리스케쥴은 이 파리클럽에 있어서의 協議·調整을 통하여 관계 각국이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실행되고 있다.

円借款은 원래 元金 및 利子가 확실하게 상환될 것을 전제로 하여 融資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케쥴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신규의 円借款 供與의 可否가 問題視된다. 또한 日本은 公的 債務(ODA, OOF)의 삭감에는 응하지 않는데 91년 3월에 폴란드의 公的 債務 50% 削減에 동의한 일에 있어서도 이것은 예외이며, 이와같은 나라에 대한 新規融資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89年度에 있어서의 債務延長은 9개국 전액 287億円이었다.

더욱, 85년의 플라자 合意 以來의 円高에 의해, 開發途上國의 円借款에 의한 債務 負擔이 달러베이스에서 뚜렷이 커졌고, 달러베이스로의 償還負擔이 몇할이나 증가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開途國으로부터 債務의 削減, 現地 通貨에 의한 償還, 借款約束 當時의 換率에 의한 償還, 旣供與分의 金利의 인하, 달러로 看做한 借款의 供與 等 救濟를 청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國際的으로 深刻해진 累積債務問題 全般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日本은 보다 소프트한 新規資金의 供與 또는 前記 리스케줄에 의한 債務 負擔의 경감을 도모하고 있는 바, 債務國에 대한 新規資金의 flow(흐름)를 확보하기 위해 87년 5월의 「緊急經濟對策」에서 새로이 開發途上國에 대하여 3년간에 200億 달러 以上 無條件(untied)의 관민의 資金을 國際 金融機關을 통하여, 또는 兩國間에서 開發途上國에 還流시킬것을 主唱하고, 나아가 89년의 알슈·서미트에 있어서는, 이 200億 달러 규모를 확충하고, 前 3년간分(86년에도 國際機關을 통한 약 100億 달러의 資金還流措置를 표명)을 포함 87년부터 92년 사이의 5년 동안에 650億 달러 以上으로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 중 円借款은 125億 달러를 목표로 하고 그 중에서 20億 달러 이상은 世銀과의 協調 融資 等에 의해 國際收支難에 시달리는 나라에 대하여 Non 프로젝트 借款을 彈力的으로 供與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프트(soft)한 條件의 新規借款의 供與가 가능하도록 해서 債務 負擔을 경감하도록 힘쓰고 있다.

円借款의 形態別(프로젝트 借款, Non 프로젝트 借款, 債務救濟) 供與實績은 권말자료편 3의 (18)의 (V)와 같다.

나. 地理的 配分動向

円借款은 地理的, 歷史的, 經濟的으로 특히 긴밀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國家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供與되고 있다. Asean 國家들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에는 비교적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많고 大規模 經濟 인프라 整備를 추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円借款에 대한 요청이 많다는 背景을 가지고 있다.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거의 70%에서 80%가 아시아를 향하고 있으며, 89年度에 있어서는 인도네시아의 1,784億円을 비롯하여 필리핀 1,150億円, 중국 972億円으로서 이 3個國이 전체의 約 4割을 차지하고 있다. 89年度까지의 누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전체의 17.5%를 차지, 약 1兆8千億円으로 현저하고 인도가 10.11%로 약 1兆5百億円, 제3위인 중국이 8.5%로서 약 8千7百億円, 以

下 필리핀, 타이, 파키스탄, 한국, 말레지아로 이어진다(권말자료 3의 (18)의 (iii)참조). 中東 地域에서는 이집트 및 터어키가 比較的 大規模 受援國이고 89년까지의 누계에서는 각각 11위, 13위가 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케냐가 最大의 受援國이지만 이 地域에는 LLDC 또는 債務延長을 하고 있는 나라 등 經濟困難에 직면해 있는 나라가 많고 新規 借款은 世銀 等의 支援하에 構造 調整計劃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Non 프로젝트型 借款이 中心이 되어 있다.

더욱, 東歐 地域의 經濟改革 支援을 위해 89年度에 있어서는 폴란드에 최초로 円借款 214億円이 供與되었다.

다. 調達方式

ODA의 「質」이 贈與比率, 총 그랜트·엘리먼트 如何에 의해 측정되는 것은 제1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으나 円借款 供與에 임하여 자재 및 역무의 調達處를 條件附(tied)로 할 것인지, 無條件附(untied)로 할 것인지 하는 것도 ODA의 質을 좌우하는 큰 문제이다.

조달방식에는 「條件附(tied)」와 「一般 無條件附(untied)」와 그 중간인 「LDC 無條件附(untied)」의 세가지가 있다.

條件附(tied)는 조달처를 借款 供與國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一般的으로 「끈이 달림」이라고 불리는 방식이다. 一般 無條件附(untied)는 조달처를 널리 모든 OECD 加盟國 및 DAC가 정하는 開發途上國으로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LDC 無條件附(untied)는 이 양자의 중간적인 방식으로 조달처를 借款供與國 및 DAC가 정하는 開發途上國으로 하는 것이다. 一般 無條件附(untied)는 被援助國이 널리 國際 競爭入札에 의해 보다 싼 가격으로 양질의 자재 및 역무조달을 할 수 있고 援助 資金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

日本은, 74년에 DAC에서 채택되었던 「LDC 無條件附援助(untying)에 관한 DAC 諒解覺書」에 입각하여, 75년부터 조달방식을 LDC 無條件附(untied)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지만, 78년 1월의 牛場 · 슈트라우스 共同聲明으로 「日本 政府는 資金援助를 一般 無條件附(untied)化 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행하는 」 趣旨確認이 이루어져, 이에 입각해서 78년 4월 이후 새로이 계약하는 안건부터 一般 無條件附(untied)로 하는 기본 방침이 취해지고 있다. 이것에 의해 一般 無條件附(untied)率은 착실하게 상승하여 76年度 0.8%, 77年度 15.4%였던 것이 78年度 이후는 급상승하였고, 87年度 61.6%, 88年度 77.4% 89年度 80.5%가 되어 있다(交換公文締結 베이스). 또한 89年度中의 円借款 全體(契約承認 베이스)에 있어서의 실제 日本 企業에 의한 조달률은 38%까지 저하하고 있다.

제 2 절 國際機關을 통한 援助

ODA는 兩國間(bilateral) 援助와 國際機關을 통한 多國間(multilateral)의 援助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DAC의 定義에서는 「中央 및 地方 政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내지 그 實施機關에 의해 國際機關에 供與된 것」을 後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國際機關은 어떤 國際機關이라도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DAC의 정의에 따라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나 救濟 活動을 실행하고 있는 特定 國際機關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들에게 供與된 資金이 多國間(multi) ODA로 공여된다.

國際機關에는 크게 나누어, 開發에 필요한 資金을 融資하는 國際開發 金融機關과 주로 技術協力에 관계하는 활동을 실행하고 있는 國際聯合關係 援助機關이 있다. 그리고 前者에 대한 「出資 · 共同出資」와 後者에 대한 「贈與」가 多國間(multi) ODA의 중심이 된다.

日本의 國際機關을 통한 援助는 착실하게 확충되어 가고 있으며, DAC國家의

援助의 합계에서 차지하는 比重(share)은 87/88년도의 평균으로 22.3%에 이른다. 또한 이것이 日本 ODA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년 평균으로 29.9%로서 DAC 國家 평균의 24.6%를 웃돌고 있다. 89년 日本의 多國間援助實績은 21億8千6百萬 달러였다.

1. 國際開發 金融機關에 의한 援助의 概要

國際開發 金融機關에는 國際復興開發銀行(IBRD), 國際開發協會(IDA), 國際金融公社(IFC), 多國間 投資保證機關(MIGA)(이상의 네 機關이 「世界銀行」그룹을 구성한다), 아시아 開發銀行(ADB), 美洲開發銀行(IDB), 美洲投資公社(IIC), 아프리카開發銀行(AfDB), 아프리카 開發基金(AfDF), 國際農業開發基金(IFAD), 歐洲復興開發銀行(EBRD)이 있다. 特定地域이나 分野를 融資對象으로 하는 開發金融機關을 총칭해서 國際開發金融機關이라 한다.

89년 日本의 國際開發 金融機關에 대한 出資 · 共同出資은 16億4千6百萬달러이고 ODA 전체의 18.35% 였다. 主要 國際開發 金融機關의 개요, 활동상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國際 復興開發銀行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通稱 世界銀行)

第2次 世界大戰후의 世界 換率의 安定과 加盟戰災國家의 復興 및 加盟開發途上國의 開發과 金融에 관한 諸提案을 審議하기 위해 미국 政府의 초청으로 1944년 7월,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 우즈에서 聯合國 通貨 金融會議가 44개국 참가하에 개최되어 國際通貨基金(IMF) 協定과 함께 國際 復興開發銀行 協定이 채택되었다.

이 協定은 다음해 5년만에 중요 28개국의 署名을 얻어 發效하고 46년 6월25일부터 銀行業務가 개시되었다. 銀行(이하 「世銀」의 通稱으로 부름)의 貸付는

本來 復興計劃 및 開發計劃을 위해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나, 復興貸付는 당초의 47년 및 48년에 歐洲復興을 위해 貸付되었을 뿐, 49년 이후는 오로지 開發을 위해서의 貸付만이 실행되고 있으며, 특히 開發途上 加盟國의 經濟社會 開發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 90년 6월말 현재의 加盟國은 152개국이다.

日本의 出資比重(share)은 6.69%까지 확대되어 18.91%의 미국에 이어 제 2위의 出資國이다. 또한 日本은 開途國에 대한 官民資金의 還流를 촉진시키기 위해 「日本特別基金」을 창설하고 있다.

世銀의 융자대상은 政府, 政府機關, 企業이며, 準商業條件에 의해 주로 생산적 목적을 위한 貸付, 保證을 실행한다. 主要 資金源은 加盟國의 拂入資本金, 借入金 및 營業純利益인데 대부분을 世界의 자본시장으로부터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融資條件은 準商業的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다. 90년 하반기의 貸付金利는 7.72%로 높고 수수료도 대부말 실행 잔고에 대해서 매년 0.25%, 상환기간 15년 내지 20년(거치 5년)으로 嚴格하다.

地域別 貸付 承諾額을 보면 90年度 총액 약 152億 달러 중 약8%가 아프리카 地域에, 약 38%가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海 地域에, 約 27%씩이 아시아 地域과 북아프리카 · 中東 · 유럽 地域에 대한 것이다. 國別로는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어키가 上位 5個國이다. 部門別로 보면 電力이 약20%로 가장많고, Non 프로젝트 17%, 運輸가 약15%, 農業 · 農村開發이 약13% 등으로 되어 있다. 90년 6월말 현재의 貸付 累計額은 1,867億달러이다.

日本도 패전후의 經濟復興을 위해 世銀으로부터 1953년부터 13년간에 총액 8億6千290萬 달러의 融資를 받았다. 50년대에는 關西電力의 黑部제4댐, 電源開發의 御母衣댐의 건설이나 가와사키(川崎) 製鐵, 住友金屬의 製鐵 · 製鋼設備等과 같은 기간산업의 정비에, 60년대에는 國鐵(現 JR)의 東海道 新幹線, 日本鐵道公團의 東名 高速道路(東京-豊川間) 等 道路 또는 鐵道의 정비에 크게 공헌했다. 이 世銀借款의 최후의 상환분 700萬달러를 日本은 90년 7월 16일에 지

불하여 世銀債務를 完濟했다.

나. 國際開發協會(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자 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要請이 增大하는 반면, 世銀이 건전한 銀行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었던 開途國에 대한 소프트한 條件에 의해 開發援助를 供與할 수 있는 機關을 설립할 필요성이 關係國 사이에서 강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1966년 9월에 이 協會가 설립되었다. 世銀의 融資條件은 前記한 바와 같이 상당히 엄격한 것이 아닐 수 없어 低所得國의 요구(needs)에 부응하여 보다 소프트한 條件의 融資가 가능한 機關의 설립이 요청된 것이었다.

國際開發協會(이하 IDA라 함)의 資金源의 주된 것은 先進 23개국(後述하는 「제1部國」)으로부터의 應募出資金, 一般增資, 世銀의 純利益의 移轉 等이지만, 開發途上國에 대한 融資 條件은 금리, 상환기간 양면에서 현저히 소프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금리는 제로(단, 관리비로서의 수수료가 貸付 實行 殘額에 대해 년 0.75% 賦課된다), 상환기간은 35-40년(거치기간 10년)으로 극히 소프트한 條件이다. 그러므로 開途國으로부터의 수요가 매우 많다. 반면 IDA의 資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開途國의 1인당 GNP액을 기준으로해서 融資 適格國을 정하고 있고, 90年度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1인당 GNP가 1,135달러(89년 베이스)인 나라가 融資 適格의 最上限으로 되어있다.

90年度의 融資 承諾額은 총계로 약 55億달러. 地域別로 보면 아프리카 地域에 약51%, 아시아 地域(인도, 중국, 방글라데시가 많음)에 약 40%가 향해져 있다. 분야별로는 農業 · 農村開發이 約 30%로 가장 많고, 교육 약13%, 운수 약10%, Non 프로젝트 8%등이 그 다음으로 많다. 90년 6월말 현재의 貸付 累計額은 582億 달러이다.

IDB는 이와같이 해서 대단히 소프트한 條件의 融資를 世銀이 融資對象으로

하지 못 하는 특히 저소득국의 開發을 위해 供與함으로써, 世銀의 활동을 보완하고 있고 또 世銀으로부터 순이익의 移轉을 받거나, 融資適格의 보더라인(境界線)에 있는 저소득국에 대해서 世銀의 一般貸付와 결부시킨 混合 融資를 실행하는 등 보완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第2世銀」이라고도 한다.

世銀과 第2世銀의 近年 融資에서 눈에 띄는 것은 Non 프로젝트 融資이다. 開途國의 構造調整을 支援하기 위한 構造調整融資, 部門(sector) 調整融資로서 중남미를 중심으로 深刻해진 債務累積 問題를 배경으로 하여 80년에 世銀이 構造調整借款(Structural Adjustment Loan:SAL)으로서 처음 도입한 것이다.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이 석유위기 또는 일차산품가격의 하락 등으로부터 國際 收支의 惡化, 成長의 鈍化에 빠져, 이들 開途國의 중장기적인 巨視的 經濟 政策이나 섹터의 經濟政策 改善에 대한 支援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도입된 借款形態이다. 차입국은 世銀과의 사이에서 構造調整計劃에 대해서 합의하고, 이것에 입각하여 시장원리의 도입, 각종규제의 緩和, 民營化 等 經濟政策을 개선할 것을 條件으로 하고 그 실시 상황에 따라 融資를 받는다.

이와같은 성격으로부터 이 Non 프로젝트 融資는 政策支援型融資(Policy Based Lending: PBL)라고도 한다. 또한 國際 通貨基金(IMF)에는 開途國의 國際收支改善支援을 위한 短期 資金援助를 실행하는 스탠드바이 · 어렌지멘트에 의한 融資가 있지만, IMF도 中期的인 經濟構造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굳혀 86년에 低所得國에 대한 巨視的 經濟調整을 위해 資金援助(3년정도)를 실행하는 構造調整 퍼실리티(SAF)를 설립하고 있고, 調整計劃 策定을 世銀과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다. 世銀과 IMF의 融資 性格은 상당히 비슷하다.

IDA의 加盟國은 世銀의 加盟國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90년말 6월말 현재의 加盟國은 138개국이다. 加盟國은 제1部國(先進國 그룹 22개국), 제2部國(開發途上國 그룹 116개국)으로 나누어진다. 日本의 出資비율은 16.5%로서, 25.90%의 미국에 이어 제 2위이다.

다. 國際金融公社(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國際金融公社는 加盟國, 특히 開發途上加盟國에 있어서의 생산적 민간기업에 投融資함으로써 그 나라에 있어서의 民間資本의 投資를 촉진하고, 그들 생산적 민간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그 나라의 經濟 開發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1951년 미국 대통령의 諮問機關인 國際開發 諮問委員會가 開發途上地域의 經濟開發을 위해 國際金融公社의 설립을 제안하고, 國際聯合이 이것을 거론하여 世銀에 그 연구를 요청했다. 世銀은 3회에 걸쳐 國際聯合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54년에 미국이 公社에 참가할 의향을 보이고 나서 이 構想은 具體化되었다. 世銀은 國際聯合 제9총회의 결의에 입각하여 國際金融公社 協定안을 작성하고 당시의 世銀 加盟 56個國에 이것의 수락을 促求하였으며 56년 7월 필요한 31개국의 署名을 얻어 발효, 7월 24일부터 業務를 개시했다. 公社의 加盟資格은 世銀의 加盟國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90년 6월말 현재 135개국이 加盟하고 있다.

公社는 충분한 民間資本이 타당한 안건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 民間 投資者와 협조하여 投資함으로써 加盟國의 開發에 기여하는 것과 같은 생산적 기업의 설립, 개선 및 확장을 위한 出資 · 融資를 실행하는 것을 主要 業務로 하는데 投融資 承認額은 87年度 9.2億달러, 88년 12.7億달러, 89년 17.09億달러로 순조롭게 신장하여 民間銀行이 開途國 融資에 신중해지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활약이 주목되고 있다. 融資條件은 기간이 통상 7년에서 12년, 거치기간은 안건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져 금리도 마찬가지로 변동금리도 가능해지고 있다. 조직은 크게 나누어 投資部門과 어드바이스 部門으로 兩分되고, 전자에는 地域마다의 投資局과 資本市場局이 있고 후자는 外資政策 等을 조언한다.

日本의 90년 6월말 현재의 拂入資本金의 比重은 7.44%로서 21.58%의 미국에 이어 제2위, 近年의 地域別 投融資 承認의 경향을 보면 라틴아메리카地域이 3할에서 5할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아시아가 2할에서 3할, 그 다음이 아프

리카, 中東, 歐洲의 順으로 되어있다.

라. 多國間 投資保證機關(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MIGA)

이 機關(以下 MIGA)은 加盟國, 특히 開發途上國에 대한 投資를 촉진시키기위해, 直接 投資와 관련된 非商業리스크(投資受援國政府에 의한 通貨交換·送金制限 等 送金과 관련된 것, 收用 等과 관련된 것, 投資受援國 政府와 투자자사이의 契約에 대한 受援國 政府에 의한 일방적인 부인·계약위반 등과 관련된 것, 전쟁 및 국내 전란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保證을 실시함으로써 投資擴大를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國際機關으로, 85년 10월의 世銀 서울總會에서 설립조약이 채택되어, 各國 署名에 개방되었다. 90년 6월말 현재 85개국이 署名하였고 旣加盟國은 58개국이며 88년 4월에 조약이 발효하고, 동년 6월 創立總會가 開催되었다. MIGA의 業務는 MIGA 단독의 直接保證, 各國投資保險 等과의 協調保證 및 再保險, 投資環境 改善을 위한 연구, 정보제공 및 開途國에 대한 기술상의 助言, 技術援助 等이다.

國際復興開發銀行(世銀), 國際開發協會(第 2世銀), 國際金融公社, 多國間 投資保證機關 等의 네 機關은 모두가 와싱톤에 본부를 두고, 총재를 비롯 임직원 대부분이 兼職하고 있으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 보완관계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一般的으로 「世銀그룹」이라 한다.

마. 國際農業開發基金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國際農業開發基金(IFAD)은 開發途上加盟國의 農業開發을 위해 소프트한 條件의 資金을 世銀, 第 2世銀, 아시아開發銀行 等 旣存의 國際開發金融機關에 의한 融資에 추가하여 보완적으로 貸付 또는 贈與의 형태로 資金을 供與하고 있는 機關이다. 72년부터 74년의 食糧危機를 배경으로 74년에 로마에서 개최된 世界食糧會議에서 설립구상이 提案되어, 先進國 및 産油國이 거의 반액씩을 共

同出資하는 條件에서 설립되었다. 設立協定은 77년 11월에 발효하였다. 日本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제3위의 대규모 共同出資國이다.

바. 아시아開發銀行(Asian Development Bank: ADB)

아시아開發銀行(ADB)은, 아시아 및 極東地域의 經濟成長 및 經濟協力을 북돋우는 동시에 이 地域內의 開發途上加盟國의 經濟開發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66년에 설립된 地域開發 金融機關이다. 본부는 필리핀 마닐라에 설치되어 있다.

63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ECAFE 각료회의에서 설립구상의 具體案이 제안되고, 그후의 ECAFE 部內에서의 검토를 거쳐 設立案이 作成되고, 65년 12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ECAFE 加盟國 및 관심을 갖는 선진국의 全權代表 會議에서 동協定이 채택되었다. 이 協定은 다음해 66년 8월에 발효하고, 동년 11월 동경에서 개최된 창립총회를 거쳐 동년 12월 19일부터 業務가 開始되었다(ECAFE [國際聯合 아시아 極東經濟 委員會]는 74년에 ESCAP로 改稱되었다.).

ADB는 그 설립 목적에 입각하여 ESCAP 地域의 公的, 私的 資金을 開發 目的에 投資하는 것을 촉진할 것, 域內 開發途上國間의 조화있는 經濟成長에 寄與함과 동시에 域內의 開發途上國에도 알맞은 지역적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資金의 활용을 도모할 것, 加盟國의 開發政策·資源活用·貿易擴大 等에 대해서 援助할 것, 프로젝트의 準備·資金調達·實施 等에 대해서 支援을 실행할 것, 國際機關과 域內 開發에 대해서 협력할 것 등을 그 주된 임무로 삼고 있다. ADB의 資金은 다음 세가지로 大別된다.

(ㄱ) 通常資本

加盟國으로부터의 共同出資資本金, 借入金, 準備金 等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이 資本은 準商業 베이스에서 加盟開發途上國에 貸付된다. 상환기간은 10-30년

으로 금리는 6.5%정도이다.

(ㄴ) 特別基金(ADF)

原資는 주로 加盟先進國으로부터의 共同出資에 의존, 68년에 창설된 多目的 特別基金과 74년에 창설된 아시아開發基金(ADF)의 두종류가 있었는데, 79년말에 前者는 모두 後者로 이전되었다. 이 基金의 融資條件은 無利子, 償還期間 40년(그중 거치 10년)으로 대단히 소프트(soft)하다. 중국 및 인도는 다른 나라보다 加盟이 늦거나, 행동하는 것이 늦거나 했으므로 ADF 融資對象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은 84년의 天安門事件 이후 西方側 國家에 의한 經濟制裁 등으로 외화준비가 부족한 상태고, 印度도 페르시아만 전쟁 이후에 中東地域으로 나가서 버는 노동자가 급격히 감소해서 외화부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無利子 融資를 적용하여 양국을 救濟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ㄷ) 技術援助 特別基金

融資活動에 따르는 컨설턴트의 雇用, 專門家의 派遣 等, 贈與베이스의 技術援助에 이용되는 것으로 加盟先進國의 共同出資에 의존하고 있다.
91년 2월 몽고가, 동4월 터어키가 각각 加盟 節次를 마쳐 加盟國은 51개국이 되었다. 通常資本 財源인 日本 出資 比重은 미국과 나란히 제1위인 16.41%, 特別基金, 技術援助 特別基金 兩基金에 대해서도 日本이 최대의 共同出資國이다. 역대 총재(임기5년)도 日本에서 나오고 있는데, 89년 11월 부터는 垂水公正氏가 就任하고 있다.

89년의 貸付承認 狀況을 보면 通常資本貸付(OCR) 22億6千萬달러, 特別基金(ADF貸付) 13億6千3百萬달러, 계36億2千4百萬달러, 68년-69년의 누계에서는 OCR이 約 190億달러, ADF가 約 96億달러, 總計 約 286億달러였다. 이 누계에서 본 대규모의 上位 融資對象國은 인도네시아(전체의 약20%), 파키스탄(약18.0%), 필리핀(약12%), 방글라데시(약10%), 인도(약6%)이다.

사. 美洲開發銀行(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美洲開發銀行(IDB)은, 開發途上에 있는 中南美地域의 經濟的 및 社會的 開發의 촉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美洲開發銀行協定(1959년 12월 발효)에 입각하여 설립되고 60년 10월부터 業務를 개시했다. 地域開發 銀行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도 최대이다. 본부는 워싱톤에 설치되어 있다. 加盟은 44개국, 日本은 76년 7월에 加盟했다.

IDB의 業務는 通常業務, 特別業務 및 信託基金 業務의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앞의 두가지가 주된 것이다. 通常業務의 재원에는 通常資本과 地域間 資本의 두종류가 있고, 또 特別業務는 特別業務基金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信託基金은 域內外의 各國政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通常 業務의 融資는 상환기간 15-25년(거치 4-6년을 포함한다)이고 변동 금리제에 따르는데 89년의 融資承認額 合計는 약22億달러이다. 特別業務의 融資는 通常業務의 融資로는 어려운 開途國이 대상이고,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단히 소프트한 條件으로 融資를 실행하는 것으로 금리 1-4%, 상환기간 25-40년 (거치 5-10년을 포함한다)으로 소프트하게 되어 있다. 89년의 融資 承認額 合計는 約 3.4億달러이다. 61년부터 89년까지의 前記 3業務의 承認額 累計를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관련 약28%, 농수산관련 약22%, 광공업관련 약13%로 많은 편이다. 國別로 보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가 上位 大規模 受援 5個國으로 되어 있다.

아. 아프리카 開發銀行(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아프리카 開發銀行(AfDB)은 아프리카 地域內의 經濟社會開發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地域開發金融機關이다. 1960년에 튀니스에서 개최된 제2회 전 아프리카 인민회의에서 설립이 합의되어 그후 63년 8월 카르툼에서의 아

프리카 諸國財務長官會議에 있어서 AfDB 設立 협정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이 64년 9월에 발효했다. 業務開始는 66년 7월, 本部는 아이보리 코스트(Ivory Coast)의 首都 아비쟌에 설치되어 있다.

AfDB는 설립 이래 地域性 維持의 관점으로부터 加盟資格을 域內 獨立國에 限定하고, 域外國의 加盟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資金需要의 증대에 따라, 78년에 域外國의 資本參加를 인정하는 결의가 채택되고, 日本은 83년 2월, 미국에 다음가는 제2위의 當初 出資로서 加盟했다.

AfDB의 재원은 加盟國의 出資金, 借入金 등에 의하고 있고, 융자조건은 금리 7.41%(89년) 상환기간은 20년, 나이제리아, 모로코, 자이르, 알제리아, 카메룬이 89년의 상위 대규모 수입 5개국이다.

자. 아프리카 開發基金(African Development Fund: AfDF)

아프리카 開發基金(AfDF)은 前記 AfDB의 活動을 보완하고, 소프트한 조건으로 융자를 실행하는 開發 金融機關으로서 73년 6월에 설립되어, 동년 8월부터 업무를 개시했다. 본부는 AfDB와 같은 아비쟌에 設置되어 있다. 협정상 「가맹국」이라고는 부르지 않고 「參加國」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아프리카 域內國은 직접 參加國으로는 되어있지 않다. 日本은 域外國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제2위의 醵出比率(share)로서 참가하고 있다.

國際開發金融機關은 遂行하고 있는 役割, 開發資金貸付條件등에 의해 「軟化(soft) 窓口(window)」機關과 「硬化(hard) 窓口(window)」機關으로 나누어진다. 「軟化(soft)」 窓口(window)는 무이자이고 상환기간도 40년, 50년으로 장기이고 극히 완화된 條件으로 開發資金의 융자를 실행하는 機關이며, 第2世銀(IDA), 아프리카 開發基金(AfDF), 아시아開發基金(ADF)이 이에 속한다. 後者인 하드(hard)窓口(window)는 금리도 商業베이스내지 準商業베이스이고, 상환기간도 짧으며, 상당히 市場條件에 가까운 條件으로 開發資金의 융자를 실행하는 機關이며, 世銀(IBRD)이나 아시아 開發銀行(ADB), 美洲開發銀行(IDB)의 通常業務資金이 이에 속한다.

(참고) 歐洲復興開發銀行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東歐諸國의 經濟改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91년 4월 15일에 발족한 새로운 地域金融機關이다. 42개의 國家·機關(EC 12개국, 소련을 포함하는 中·東歐國家 8개국, 歐洲諸國 11개국, 日本 等 其他 國家 9개국, EEC 및 歐洲投資銀行)이 가맹하고, 百億 ECU(歐洲通貨單位, 달러환산으로 約 120億달러)의 資本金으로 發足하였다. 91년 4월 15-17일에 런던에서 設立總會를 개최했다. 아시아開發銀行 等과 똑같은 성격의 機關이지만, 國際的인 地域開發 金融機關으로서는 최초로 정치적인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 市場經濟로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중점이 두어지기 때문에 國有企業의 民營化 촉진, 외국자본에 의한 합병프로젝트의 추진 등 民間部門으로의 投融資가 주요업무이다. 융자에 임해서는 複數政黨制, 民主主義, 市場經濟로의 이행 등 정치적 측면이 중시된다. 소련의 가맹은 인정되었으나 소련으로의 융자는 당초의 3년간은 소련의 出資額을 상한으로 한다. 投融資를 받을 수 있는 受援國은 소련·동구의 7개국이다.

日本의 出資 比重(share)은 獨逸 等 歐洲 4개국과 같은 8.5%로서, 10.0%의 미국에 이어서 동률2위가 된다. 단, 日本은 投融資 案件의 상담 또는 준비 등 技術面에서의 지원을 실행하기 위하여 日本政府 全額出資로 EBRD내에 「日本·歐洲協力基金」(91년도 8.5억엔)을 창설했다. 본부는 런던에 있다.

2. 國際聯合關係 援助機關에 의한 援助의 槪要

多國間 ODA에는 크게 나누어 國際開發 金融機關에 대한 「出資·醵出」과 國際聯合關係 援助機關에 대한 「贈與」의 두가지가 있다는 것과 전자에 속하는 主要金融機關의 援助活動의 개요는 前項에서 설명한 바이지만, 여기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國際聯合關係의 主要 機關 중에서 日本의 分擔金·醵出金이 많은 主要機關의 活動狀況에 대해서 서술한다.

또한 日本이 「分擔金·醵出金」의 명목으로 지불한 89년의 이 國際機關에 대한 「贈與」는 합계 5億4千百萬달러이고 日本 ODA 전체의 6.03%였다.

가. 國際聯合開發計劃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國際聯合開發計劃(UNDP)은 開發途上國의 經濟社會 開發 促進을 위해 技術援助를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20회 國際聯合總會 決議에 따라 國際聯合 機構내의 自主的 機關으로서 1966년 1월에 발족했다. 國際聯合시스템이 실행하는 技術援助 活動이 主軸이 되어 있고 經濟社會 理事會를 통하여 總會의 관리하에 있다. UNDP에서는 매년 각국으로부터의 醵出金總額이 앞으로 5년간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산출하고 이것을 援助받는 開途國마다 각각의 人口 또는 1인당 GNP의 額數등의 指標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하고, 各開途國에게 이 배분액의 범위에서 援助를 받고 싶은 프로젝트의 「國別計劃」을 입안시키는 5년간을 한 週期로 하는 「國別計劃方式」을 채용하고 있다. 이 國別計劃은 UNDP管理 理事會의 승인을 얻고 實施에 옮겨진다. 그 實施는 분야에 따라 WHO나 FAO등의 國際聯合專門機關이 맡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UNDP는 資金 配分 機能을 통하여 國際聯合시스템에 의한 援助의 종합 조정을 실행하고 있는데, UNDP 常駐代表(Resident Representative)는 國際聯合事務總長에 의해 國際聯合常駐調整官으로서 國際聯合 專門機關의 현지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주요 재원은 각국의 任意 醵出金이며, 受益國 政府도 現地費用(local cost)分을 현물, 현금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89년의 각국 醵出額은 합계 9億5千3百萬 달러였다. 日本의 醵出金은 8,330만달러로, 미국, 스웨덴에 이어 제3위였다.

나. 國際聯合難民 高等辨務官 事務所 (Office of the United National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UNHCR)

제2차 世界大戰이후 최초로 難民問題에 뛰어든 國際機關은 聯合國 復興救濟機關(UNRRA)이었다. 1943년 11월에 설립되어 수백만의 難民의 歸國, 食糧確保, 再定着의 역할을 맡았다.

이 UNRRA에 이어서 國際難民機關(IRO)이 설립되었고, 47년 7월 IRO 準備委員會는 UNRRA의 機能·活動을 계승하여 다음해 48년 8월 IRO가 정식으로 發足되

었다. 이 IRO는 51년말에 해체되었지만, 그때까지 백만명 이상의 난민등을 世界各地에 정착시키거나, 귀국시킨 것 외에 160만명에게 각종의 援助를 베풀었다. 49년 12월, 國際聯合總會는 IRO 해체후의 난민의 國際的 保護에 관한 國際聯合의 책임을 인정하여 국제연합난민 고등판무관 사무소(UNHCR)의 설치를 결정하고, 52년 7월 同事務所는 IRO로 부터의 계승을 마쳤다.

UNHCR이 실행하는 기본적 업무는 國際聯合 總會의 권위하에 世界 難民에 대해서 國際的 保護를 베풀어 關係國 政府 및 民間團體를 援助함으로써 難民이 庇護되고, 基本的 人權, 品位있는 地位, 相當한 生活을 享受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 업무 내용은 난민의 자기의지에 의한 귀국과 새로이 비호를 구하는 나라로의 再定着, 居住國에 있어서의 同化 등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특히 최근의 難民 問題에 대해서는 생존을 확보하고 自活能力을 獲得하는 것을 援助하기 위하여 關係國 政府와 協力해서 衣食住의 提供, 運送, 衛生 等 物質的 援助도 실행하고 있다.

UNHCR의 사업비는 各國 政府 및 民間의 任意 共同出資에 의해 충당되게 되어 있고, 89년의 日本 UNHCR 援助計劃에 대한 共同出資은 約 6千2百萬달러(전체의 약12.2%)로 미국의 1億2千6百萬 달러에 이어 제2위인 額數이다. UNHCR의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는데 世界各地의 事務所가 설치되어 있으며 東京에도 駐日代表 事務所가 設置되어 있다.

현재 인도지나, 아프카니스탄, 아프리카등을 비롯하여 世界에는 1,400만명의 難民이 있다고 한다. 팔레스타인 難民은 현재 약238만명, 國際聯合 팔레스타인 難民國際事業機關(UNRWA)이 약 2億6千5百萬달러의 예산(89년)으로 救濟, 敎育, 醫療保健事業을 실행하고 있다.

다. 國際聯合食糧農業機關(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 FAO) 및 世界食糧計劃(World Food Program: WFP)

FAO의 歷史는 오래되었으며 그 설치는 1943년 5월 미국 버어지니아 州 핫스프링에서 개최된 聯合國食糧農業會議에서 결정되었다. 「人類의 營養 및 生活水

準을 改善하고, 食糧 및 農産物의 生産 및 分配의 能率을 改善하고, 農村住民의 生活 條件을 改善하고, 그럼으로써 擴大되는 世界 經濟에 寄與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國際聯合의 專門機關이다. 營養, 食糧, 農業에 관한 資料收集, 調査分析, 技術指導 等의 通常 活動 以外에 UNDP의 資金에 의한 프로젝트의 實施機關으로서 技術援助도 실행하고 있다. 가맹국은 158개국, 최근은 열대림보호, 사막화 방지등의 분야에서도 活動하고 있다.

WFP는 1961년의 國際聯合總會 決議와 동 FAO 總會 決議에 의해 多國間 食糧援助에 관한 國際聯合 및 FAO의 공동계획으로서 발족했다. 農業生産 · 土地開發 · 農村인프라 · 農村定着 · 食糧備蓄등의 經濟社會 開發 프로젝트 및 老弱者 集團給食(姙産婦, 乳 · 幼兒) · 敎育支援 等 人的資源開發 프로젝트의 實施, 自然災害에 의해 발생하는 食糧不足 또는 內戰, 國際紛爭에 의해 발생하는 難民 等에 대한 緊急食糧援助를 實施하고 있다.

라. 國際聯合人口活動基金(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1967년 國際聯合總會 및 同 經濟社會 理事會의 결의에 입각하여 人口분야에 있어서의 國際聯合의 技術援助活動을 강화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國際聯合 事務總長 管轄下에 信託基金이 개설되었다. 이 信託基金은 69년 5월에 현재의 國際聯合人口活動基金(UNFPA)으로 개칭되어, UNDP 管理 理事會를 이 基金의 管理理事會로 할 것이 결정되었다.

UNFPA의 행정비 및 援助資金은 各國政府의 任意 醵出金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제2차대전후 단기간중에 人口增加率을 선진국 정도로 감소시키는 데 성공한 나라로서, 또 人口增加에 대해서 큰 문제를 안고있는 아시아 國家인 日本은 이 機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71년의 醵出 이후 醵出額을 매년 늘려오고 있고, 89년에는 醵出比重 28.28%에 이르는 5천5백만 달러를 醵出했다. 미국은 이 基金이 宗主國에 있어서의 强制 中絶에 관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86년도 이후 醵出을 하고 있지 않아, 日本이 사실상 UNFPA에 대한 최대의 醵出國이다.

第 3 章 經濟協力의 實施節次

1. 要請主義

다양한 형태로 實施되고 있는 日本의 經濟協力을 각각의 형태별로 설명해왔지만, 여기에서는 그것들이 어떠한 節次, 順序를 거쳐 實施되고 있는가, 그 개략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經濟協力의 사무에는, 外務省뿐만 아니라, 그밖에도 많은 政府 機關이 관계하며, 또한 海外經濟協力基金, 國際協力事業團이라는 實施機關이 있으며 經濟協力의 사무는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所謂「要請主義」에 대하여, 이것은 日本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政府베이스의 經濟協力은 相對國 政府가, 이러이러한 案件에 대해서 援助를 바란다는 공식요청을 해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을 가리켜, 政府의 經濟協力은, 무엇이든 「要請」, 「要請」으로, 「要請」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受動的이다 라고, 要請主義를 비판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그러나, 援助는, 본래, 相對國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援助이므로, 바라지 않는 것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援助가 아니다. 無條件的인 援助를 피하면서 相對國의 自助努力을 중시한다는 日本의 ODA의 자세를 반영하는 것이며, 開發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開發途上國 自身이어서, 日本은 내정간섭이 되는 듯한 것은 가능한 한 피한다는 입장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要請主義」라는 원칙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거론하는 案件이, 相對國政府의 내부에서, 日本에 援助를 바란다는 것에 대해 의사통일이 되어 있는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두지 않으면 援助는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 日本의 援助는, 相對國의 주체적인 자조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相對國側에도 가능한 한도의 부담을 요구하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相對國으로서, 당연 부담해야만 하는 경비는, 相對國 政府에서 이것을 예산화해야 하며, 이에 관계되는 인원을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相對國 政府가 확실하고 정확하게 준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相對國 政府部內의 통일된 意思로서의 要請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는것이 아무래도 필요하다.

가령, 일국의 農業長官 또는 厚生長官이, 어떠한 프로젝트의 實施에 대해서 口頭로 요청해왔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政府의 재정당국이 이 프로젝트의 實施에 필요한 現地經費의 예산화를 할 수 없다면 토지 또는 건물의 수당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프로젝트의 성공은 불안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문에 政府 베이스의 援助는 형태 여하를 막론하고 相對國 政府가 외교채널을 통하여 「公式要請」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政府는 여러가지 調査團을 派遣하여 양호한 案件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또 相對國과의 정책대화 등을 거듭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부터 프로젝트화가 바람직하다고 하여 特定 案件이 浮上하고 日本으로서도 이에 協力할 준비가 있다고 協力의 의사를 밝혀도 더욱 일찌기 이러한 실무적인 이유로 相對國側으로부터의 공식요청을 기다리기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식요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아니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妥當性에 대해서 자세한 調査를 행하고 있다. 따라서 「요청」자체는 어디까지나 실무상 필요하며, 案件의 효과적 實施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開途國의 요구를 연구하는 일도 없이 現地事情도 잘 모르면서 오직 「要請을 기다린다」는 硬直된 자세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은 문제이며, 要請主義란 前記한 것과 같은 성격의 것에 그치는 것, 本來 開途國側에 지혜를 빌려주고 needs를 함께 연구하고 보다 효과적인 經濟協力을 추진해 가는 것이야말로 緊要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要請主義」의 껍질에 틀어박히지 않고, 좋은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offer해 나아가서 그 實施에 대한 요청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2. 無償資金協力

政府 베이스 技術協力에 있어서는 그 實施機關으로서 國際協力事業團(JICA)이 있으며, 有償資金協力에 있어서는 실시 전담기관은 없으나, JICA가 調査 또는 實施促進業務등 그 일부를 實施하고는 있지만, 節次의 대부분은 外務省이 직접 실행하고 있다. 그 節次의 槪要는 다음과 같다.

우선, 相對國 政府가, 日本의 그 나라에 있는 在外公館에 要請書를 제출한다. 通常은 外交文書의 한 형식인 「口上書」로 이것이 실행된다. 在外公館은, 이것을 검토한 다음, 코멘트를 첨부하여 본성(外務省)으로 송부한다(이와같은, 外國政府-日本在外公館-日本外務省의 루트를 「외교채널」이라고 한다). 外務省에서는 經濟協力局 無償資金 協力課가 無償資金協力關係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同課에서는, 그 나라에 대해서 無償資金援助를 供與하는 것의 妥當性, 다른 案件과의 優先度의 비교등을 고려하면서, 해당요청 내용을 평가, 검토한다. 그결과, 援助案件으로서 거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외교 채널을 통하여 相對國 政府와 협의에 들어가 우선, 사전調査를 實施하기 위한 調査團을 派遣한다. 이것은, 그 案件의 全體相을 파악하고, 프로젝트화 할 경우의 프레임 워크를 確定하기 위하여 실행한다. 調査團은, 관계분야의 전문가 또는 컨설턴트로 구성되어, 통상 JICA를 통해서 派遣된다. 이것에는 關係政府機關의 전문가의 참가를 구하는 일도 많다. 이 調査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이 案件을 援助프로젝트로서 구체화할 경우의 규모, 所要費用의 대강의 見積등을 산출한다.

다음 단계는 案件에 응하여, 프로젝트의 건물, 시설의 설계를 실행하거나 필요한 기자재등의 規格(specification)을 확정하기 위한 調査를 행한다. 이 調査를 일반적으로 「基本設計調査」라 한다. 이 調査를 實施하기 위하여 派遣하는 調査團도 事前調査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JICA를 통하여 派遣된다. 두개의 現地調査를 통하여 相對國 政府와의 협의가 실행되어 그 희망 또는 의견이 設計등에 반영된다. 이 基本設計 調査에 의해, 거의 최종적으로 要請案件의 구상

이 굳어지게 된다. 所要經費도 더욱 자세하게 見積된다.

다음은 無償資金을 供與하는것에 대한 政府間 公式締結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이 체결에는 전술한 口上書보다도 한단계 위의 政府間 行政締結에 사용할 외교문서인 「交換公文」(Exchange of Notes:E/N)이 사용된다. 우선, 草案(draft)을 外務省에서 작성하고, 외교채널을 통하여 相對國 政府에 이것을 제안하고, 無償資金을 供與하는것에 대해서의 최종적 마무리를 이 交換 公文案을 쌍방에 있어서 만족한 것으로 종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행한다. 交換公文에는 프로젝트의 명칭, 목적이 표시되고, 그 實施를 위해 필요한 資金을 日本政府가 無償으로 供與할 것, 相對國 政府는 기자재 및 역무조달에 관한 계약을 日本의 「自然人」 또는 「法人」과 맺어야 할 것, 兩 政府間의 합의를 전제로 하여 이들의 일부를 相對國 國內 및 제3국으로부터 조달할 것도 인정하는 것 등이 명기되고 相對國측이 부담해야 할 부분 또는 사항에 대해서도 명기된다.

交換公文의 文案에 대해서 쌍방이 합의에 달하면, 이것을 각료회의에서 심사하는 등 쌍방이 必要한 國內 節次를 밟고, 각의 결정등을 얻고나서, 양국의 대표가, 각각의 國家의 政府를 대표해서 교환공문에 서명, 이것을 교환한다. 通常, 日本쪽은 大使, 相對國側은 外務長官 또는 이의 위임을 받은 자가 서명을 한다. 그리고 나서 相對國政府와 日本의 업자(상사, 컨설턴트, 건설회사, 메이커등)와의 사이에서 사적인 교섭이 전개되고 入札 等을 통해서 受注價가 확정되고, 이것과 相對國 政府와의 사이에서 계약이 체결된다. 通常 日本 政府(外務省)는 이 사이의 民間交涉에는 끼어들지 않지만 援助가 적정하게 實施될 것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外務省은 이 계약서를 「認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계약서는 外務省의 담당과에 송부되어, 外務省의 「認證」을 얻고나서 비로소 효력을 발하게 되어 있다.

外務省은 그후 相對國 政府에 대해서 그 政府의 명의로 日本의 外換銀行에 보통 예금 구좌를 개설시킨다. 실제로 이 口座는 동경의 東京銀行에 開設되는 일이 많다. 相對國政府는 이 구좌 개설을 包含해서 이 銀行과 Banking

Arrangement를 맺어, 한 계약마다 지불 수권서(Authorization to Pay)를 발부한다. 이것은 該當銀行에 대해 이 無償資金을 日本政府에게 요구하고, 개설이 끝난 구좌에 이것을 받아들여, 日本側 契約者(請負한 商社, 메이커, 컨설턴트 등)로부터의 청구에 응하여 支拂을 실행하는것을 수권하는 문서이다. 이리하여 外換銀行은 相對國 政府를 대신하여, 日本企業 等으로부터의 지불청구에 응하게 된다. 이와같은 政府間 및 政府·銀行間의 交涉, 節次를 마치고, 드디어 공사 등에 착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서술해온 節次는, 주로 시설의 건설 등 소위 프로젝트物에 대해서이지만, 건설이 완성되면 相對國政府가 검사를 실행하고, 設計文書 및 계약등에 입각하여 공사, 납입등이 적정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어떤가에 대해서 調査하고 나서, 相對國 政府가 해당물건의 인도를 받아 공사완료증, 인수증을 발행한다. 이것에 입각하여 모든 지불도 완료하게 된다.

더우기 그다음에 相對國 國內에 있어서의 PR효과도 고려해서, 日本側 在外公館과 相對國 政府와의 사이에서 적당한 날을 정해 인도식이라든가, 개소식, 개원식 등의 기념식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機資材의 供與라는 형태의 無償資金協力에서도 대충 지금까지 서술해 온 순서를 밟아 供與가 실행되지만, 이 경우에는 事前 調査가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더욱 無償資金協力 業務의 태반은, 外務省의 無償資金協力課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것, 부분적으로 JICA가 實施하고 있는 업무가 있는것은 본항 모두에서 서술한 바이지만, JICA가 實施하고 있는 업무는, 無償資金 協力案件 中 技術協力과 밀접하게 관련된 案件, 가령, 전문가를 派遣해서 技術協力을 실행하는 病院, 大學, 研究所 等과 같은 건물의 건설·정비 또는 선박의 조달등을 목적으로 하는 案件의 「實施促進」을 위한 업무이다. 技術協力과 관계있는 案件으로 한정되므로, 食糧增産援助나 資材 援助 중에서 技術協力과 무관한 案件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말하는 「實施」라는 말은, 政府間에 交換 公文을 체결한 후 실제로 該當 無償資金 協力 案件이 목적으로 하는 사항(건물의 건설,

기자재의 조달등)을 완성시키기까지의 것을 의미하고 있고, 따라서 實施促進業務란 民間 베이스에서 체결되는 청부계약등에 대해서 필요한 調査나 斡旋 또는 連絡을 실행하고 계약이 柔軟(smooth)하게 체결되도록 노력하고, 또 適時 實施상황을 調査하고, 案件이 지장없이 계획된 시간내에 완성내지 완료되도록 노력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있다.

無償援助에는 所要資金을 현금으로 供與하고, 그 후는 일체를 相對國側에 맡겨버리는 캐쉬·그랜트의 방법도 있거니와, 현금은 일체 개재시키지 않고, 완성시킨 건물 또는 기계의 現物을 供與하는 턴·키(turn key) 베이스의 방법까지 여러가지 방식이 있지만, 日本의 無償援助 시스템은, 이 양자의 중간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政府間에는 현금공여(cash grant)와 같은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로는 案件의 완성내지 완료까지 직접,간접 여러형태로 日本쪽이 눈을 떼지 않고 案件의 적정한 기간내의 實施를 도모하고 있다.
JICA는, 이밖에도 開發調査의 항에서 서술한 것처럼 調査團의 派遣 等과 같은 형태로 無償資金 援助의 업무에 참가할 계획을 하고 있다.

3. 技術 協力

技術協力에 대해서는 旣述한 것처럼 전임의 實施機關으로서 國際協力 事業團(JICA)이 있다. 技術協力에는, 研修生의 招請, 專門家의 派遣, 機資材의 供與, 開發調査의 實施등, 여러 형태의 것이 있지만, 節次上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無償資金 協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교채널을 통해서 공식요청서가 開發途上國으로부터 제출되는것부터 시작된다.

國際協力事業團法(1974년법률 제62호)은, 제21조에서 JICA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JICA가 여기에서 정하는 업무를 「條約 其他의 國際約束에 입각한 技術協力」으로서 實施하는 것이라는 사항을 規程하고 있다. 즉,

JICA가 實施하는 政府 베이스의 技術協力은 全部 「條約, 其他의 國際條約」에 立脚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條約」은 알기 쉽다고 하더라도 「國際條約」 쪽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國際條約」인 것인가 반드시 확실하지는 않다. 一般的으로는 적어도 外交 채널을 통한 문서에 의한 약속으로서 「國際條約」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JICA를 통해서 實施하고 있는 政府 베이스의 技術 協力은, 아무리 작은 條件이라도 每件, 口上書 等의 外交文書의 왕래를 통해서 實施하고 있다. 研修生 한 명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在外公館을 통한 口上書 등의 왕래가 있다. 프로젝트방식의 技術協力에서는 「交換公文」의 署名交換이 행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日本은 戰後 9년째인 1954년에는, 적어도 콜롬보플랜에 加盟해서 아시아 제국에 대한 技術協力을 개시했다. 이 콜롬보플랜의 加盟國은 加盟國間의 技術協力을 實施할때, 이것을 어떤 節次로 推進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통된 認識과 범위를 갖고 있었다. 여기 加盟한 日本도 다른 加盟國과 똑같은 節次를 도입하여 공통된 틀(framework) 속에서 日本의 技術協力을 推進하게 되었다.

現在도 콜롬보플랜 加盟의 開發途上國에 대한 日本의 技術協力은 「콜롬보플랜에 의한 技術協力」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때문에 이것과 中東, 아프리카, 中南美 等 다른 지역에 대한 日本의 兩國間 技術協力과는 다른 성격인 것 같은 인상을 주는 일이 있지만 이들 사이에는 樣式的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하등 다를 바가 없다. 歷史的으로 日本은 콜롬보플랜 加盟國의 一員으로서, 우선 加盟國間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節次用紙 (申請書樣式 等)를 그대로 채용하는 등 공통된 테두리안에서 技術協力의 방법을 배워 實施하는 경험을 쌓아왔다.

가령 日本으로부터 專門家 派遣을 要請하는 경우에는 「A1 樣式」이라고 약칭하고 있는 서식이 사용된다. 이것에는 派遣을 희망하는 專門家에게 기대하는 業務內容, 資格, 配置處, 業務條件, 待遇, 派遣期間 等이 기입된다. 이것에 대한 日本으로부터의 回信用 樣式이 「B1 樣式」이라고 약칭되고 있는 것으로,

「A1 樣式」에 의해 人選을 행한 結果, 派遣專門家 候補가 된 者의 姓名, 略歷, 派遣期間 等이 기입된다.

日本에 研修生을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하는 要請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패턴화된 공통 樣式인 「A2 樣式」및 「A3 樣式」이 사용된다. 전자에는 要請하는 研修에 대해서, 그 목적, 내용등의 明細가 기입되고, 후자에는 그 研修를 받는 研修生 候補의 姓名, 年齡, 略歷, 所屬處 등이 記入된다.

機資材를 技術協力의 일환으로서 供與해주기 바란다고 하는 要請에는, 「A4 樣式」이라고 약칭하고 있는 서식이 사용된다. 機資材의 名稱, 種類, 樣式, 數量, 使用目的, 使用場所 等이 記入된다.

「A1 樣式」으로부터 「A4 樣式」에 이르는 일련의 樣式은, 이른바 要請書式이다. 開發途上國政府가, 日本의 在外公館을 통해서 要請하게 될 때에는, 技術한 것처럼 외교문서의 일종인 口上書 內容 중의 技術協力을 要請하는 취지를 기재하고, 이 口上書에 A1이나 A2등의 樣式을 첨부한다는 형태로 正式 要請을 제기하게 된다. 在外公館은 이것을 심사하고, 코멘트를 덧붙여 外務省에 송달하게 된다. 外務省의 擔當課는, 經濟協力局 技術協力課이다. 技術協力課는 이 要請들을 심사한 다음 要請에 응해서 實施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JICA로 關係文書를 송부한다.

開發調査의 案件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든 것과 같은 樣式은 사용되고 있지 않고, 주로 口上書에 의해 要請이 제기된다. 外務省의 擔當課는 經濟協力國 技術協力課이지만, 在外公館, 外務省, JICA를 통한 순서는 一般技術協力의 境遇와 거의 마찬가지이다.

青年海外協力隊의의 節次는, 一般技術協力 節次와는 상당히 다르다. 派遣要請이 있고, 日本으로서도 派遣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國家에 대해서는 于先, 派遣條約을 相對國政府와의 사이에서 체결한다. 이것은 交換公文 樣式으

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중에서 協力隊 隊員 派遣에 대해서의 테두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個別 隊員派遣에 대해서는 이 條約에 立脚하여, 한 件마다 口上書에 要請을 수리하고 派遣을 통보하록 하고 있다. 이 일련의 節次에 관한 外務省의 擔當課는, 一般技術協力과 마찬가지로, 經濟協力局 技術協力課이다. 協力隊 隊員의 派遣은 다른 형태의 技術協力과 조합시켜 實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JICA에서는 복수의 부과가 관련되는 일도 있지만, 協力隊 隊員派遣의 실체적인 業務는 JICA속의 青年海外協力隊 事務局에서 행해지고 있다.

JICA는 政府關係 特殊法人의 일종으로 1974년의 법률 제62호에 설립되었다. 현재, 그 本部는, 東京 新宿 副都心의 초고층 빌딩의 일종인 미쓰이(三井)빌딩 속에 설치되어 있다. 1974년 8월 1일 발족이래, 이미 수십년을 지나, 政府베이스에 經濟協力實施機關의 하나로서, 착실하게 그 기반을 굳혀가고 있다. 원래, JICA는, 몇개의 기존 조직이 통합되어 새로운 大規模 事業團으로서 발족한 것이다. 事業團 成立과 함께 일체의 권리, 의무를 新事業團에 승계, 해산한 것은, 海外技術協力事業團 및 海外移住事業團이고 또 권리, 의무의 일부를 新事業團에 계승한 것은 海外貿易開發協會였다. 海外技術協力事業團과 海外移住事業團은 各各, 오직 開發途上國에 대한 技術協力實施에 관한 業務를 담당하는 조직 및 日本國民의 海外移住에 관한 의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外務省所管의 事業團으로서 1960년대 초반에 설립된 것이었다.

海外技術協力事業團(OTCA)은 1962년부터 십수년간에 걸쳐 開發途上國에 대한 技術協力을 담당하여, 초창기에 日本 베이스 技術協力의 기초를 굳혔다. 오늘날 JICA가 實施하고 있는 技術協力의 種類, 形態, 實施順序 等은 OTCA가 구축한 것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JICA에서 직접 技術協力關係業務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약 920명이다. 이중 약 300명은 海外의 事務局이나 국내 각지의 研修센터등에 배치되어 있다. 미츠이(三井)빌딩내의 本部에는, 總務, 人事, 經理 等의 管理部門, 企劃部, 調達部, 研修事業部, 派遣事業部, 社會開發協力部, 醫療協力部의 各部, 農林業關

係 및 鑛工業關係의 各部, 無償資金協力部, 移住關係 各部가 있다.

研修生을 받아들이는 것은 주로 研修 事業部가, 個別 派遣要請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專門家와 관련된 業務는 派遣事業部가, 靑年海外協力隊 隊員의 派遣에 관련된 業務는 靑年海外協力隊 事務局이 各各 擔當하고 있다. 소위 프로젝트방식의 技術協力 및 開發調査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社會開發 協力部, 醫療協力部, 農林關係 各部 및 鑛工業關係 各部가 담당하고 있다.

靑年海外協力隊 事務局은, 同隊의 目的, 哲學, 業務方針 等이 通常 一般의 技術協力과는 색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발족당초부터 OTCA 本部로부터는 독립된 형태를 취하고 있었지만, JICA로 탈바꿈한 오늘날에도, 事務局은 JICA 本部로부터 떨어져 港區 廣尾에 설치되어 있다.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技術協力要請案件은, 外務省 經濟協力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조직을 가진 JICA로 보내어진다. JICA에서는, 關係 各部에서 구체적 대응책을 검토한다. 가령, 研修生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우선, 研修를 어디에서 實施할 것인가, 그 받아들일 곳을 찾는다. 國公立 機關일 경우도 있거니와, 민간 기업의 공장일 경우도 있다. 받아들이는 時期나 研修期間을 정하고, 研修 커리큘럼도 작성한다. 在日中의 숙박이나 통역의 준비를 하고, 渡航費, 滯在費, 研修諸雜費까지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의 산출을 하는 작업도 있다. (團體研修 코스일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나서 研修參加者를 모집한다.)

專門家를 日本으로부터 派遣하는 業務에 대해서는, JICA는 한사람 한사람 적격후보자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때 JICA는 關係政府機關, 公社·公團 등의 特殊法人, 民間企業 等에 要請해서 후보자의 추천을 받는 일이 많다. 開發途上國에 대한 技術協力을 평생의 業務로 하기에는, 아직 日本에서는 갖가지 곤란한 점이나 제약이 많고, 또 그때문에 제도의 정비도 推進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각계로부터 인재를 일정기간 빌려서, 技術協力專門家로서 海外

로 派遣하는 體制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은, 마치 臨時變通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日本의 사회제도, 고용제도하에서는 우선, 확실히 效率的인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派遣要請이 實際로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專門家 候補를 다수 집결시켜 두는 것은 非效率的이고 日本의 사회제도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 政府間 합의에 立脚하여 행해지는 國家事業으로서의 技術協力에 종사하는 專門家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나 능력면으로나 문제가 없는 인물이어야만 하고, 약속한 기간동안 책임을 지고 근무하고, 직책을 완수하는 책임감있는 인물이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적성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단기간에 체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결국, 所屬機關으로부터 후보자의 추천을 받는 제도는, 현재 日本에서는 가장 效率的이고 확실한 방법이다. 專門家 候補를 전문분야마다 등록해 두는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靑年海外協力隊 隊員의 派遣은 專門家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이 경우는, 미리 어떤 國家가 어떤 분야의 隊員을 구하고 있는가를 各 開途國으로부터의 要請에 의해 파악한 다음 희망자를 公募하고 知識, 技能, 人物, 語學力 等에 대한 시험을 實施해서 適格者를 선발하고, 나아가 국내의 協力隊 研修所에서 수개월에 걸친 研修(現地 語學을 포함한다.)를 實施하고 나서 派遣하는 엄격한 순서를 밟고 있다. 開發調査를 위한 調査團에 대해서도 JICA가 스스로 調査團을 編成하는 경우는 적다. 각종 事前 調査는 關係政府機關과의 협의를 거치고, 專門家의 推薦을 받아, 調査團을 編成하고, 또, 本格調査는 JICA가 민간의 컨설턴트를 선정해서 調査團을 編成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技術協力實施에 이르는 事務 節次는,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처럼 開途國政府 ↔日本在外公館 ↔外務省↔JICA의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 지지만, 近年에는 JICA독자적인 海外人力事務所가 많은 開途國에서 더한층 충실하게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루트중 外務省·在外公館의 부분은 가능한 한 JICA 事

務所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JICA의 자주성을 높이는 노력이 이루어 지고 있다. 또, 研修生 招請, 專門家 派遣, 機資材供與, 프로젝트 方式 技術協力, 開發調査 等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新會計年度가 시작되기 전인 前年度中에 各開途國政府가 다음 회 동안에 어떤 要望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한 要望調査를 外務省·在外公館의 루트를 통해서 實施하고 있다.

4. 有償資金協力

円借款을 供與하기 위한 事務節次는, 지금까지 서술해 온 無償資金協力 및 技術協力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르므로 복잡하다.

円借款의 供與를 政府로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는, 外務省 以外에, 經濟企劃廳, 大藏省 및 通商産業省이 관여하고, 이들 4個 政府機關의 협의에 의해 円借款의 供與를 정한다는, 所謂 「4個 政府機關體制」가 확립되어 있다. 또한, 政府로서 供與를 결정한 뒤의 相對國 政府機關과의 貸付條約(loan agreement)의 締結, 資金의 지출 및 회수 등, 실제의 銀行業務는, 實施機關인 海外經濟協力基金(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이하 「基金」)이 담당하고 있다.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借款要請은, 通常,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日本在外公館 및 外務省을 거치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口上書等의 외교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開發途上國으로부터의 正式要請을 受理하면, 外務省에서는 그 要請案件이 日本의 円借款供與의 對象으로서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검토한다. 軍事協力과 결부되는 듯한 성격이 있는 것, 수익성이 높은 선박이나 항공기 등의 案件, 사치품이나 소비물자적 성격이 강한 案件으로는, 통상 이것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거절하고 있다. 円借款에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案件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把握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서 調査를 실시한다. 프로젝트借款의 경우에는 相對國의 經濟開發 및 國民生活의 향상에 얼마만큼 貢獻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최대의 포인트로 하면서,

經濟開發 중에서의 優先度, 重要性, 日本과의 友好關係增進을 위해 하는 공헌도, 프로젝트의 성숙도, 그리고 技術的·經濟的 實現可能性 等을 調査確認한다. 프로젝트가 技術的, 經濟的으로 실현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通常 實現可能性 調査의 結果인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日本이 JICA를 통한 技術協力의 일환으로서 實施한 實現可能性 調査의 結果에 立脚하여 借款要請이 실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要請案件이 円借款 供與의 對象으로서 바람직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外務省은 具體的인 円借款 供與 方針을 책정하고, 大藏省, 通商産業省 및 經濟企劃廳 사이에 협의를 가진다. 이 협의를 거쳐 4個 政府機關間에서 합의된 것이, 日本政府의 최종적인 円借款 供與 方針이 된다.

이 협의 체제가 一般的으로 円借款과 관련된 「4個 政府機關 協議體制」라는 것이다. 한 政府機關이라도 反對하면 協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4個 政府機關體制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節次가 번잡하며, 円借款 供與의 결정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것에 의해 다른 立場으로부터, 보다 넓은 시각으로 案件이나 條件을 음미할 수 있고, 그 나름대로 큰 체크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4個 政府機關은, 各各의 정책적인 견지에 서서 협의를 실행하고 있고, 財務省은 재정당국으로서의 立場에서, 經濟企劃廳은 長期的 綜合的 經濟計劃과의 關聯 및 基金의 감독관청이라는 立場에서, 通商産業省은 日本의 通商 産業政策 및 資源의 안정 확보의 立場에서 各各 協議에 참가하고 있으며 또, 外務省은 日本의 외교상의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各 政府機關의 立場이나 思考方式을 조정하고, 政府로서의 方針을 정리하도록 힘쓰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서, 政府方針이 결정되면, 外務省은 無償資金協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交換公文案을 작성하고, 외교채널을 통해서 相對國政府와의 사이에서 그 최종적인 교섭을 한다. 이 交換公文案은 兩國政府間에 최종적으로 설정된 다음 쌍방이 각의에 묻고 나서 交換 公文의 署名, 交換이 이루어지지만 이

것으로 政府자체가 직접 취해야 할 조치는 종료되고 이후의 資金 貸付 等의 銀行業務는 基金쪽으로 옮겨진다.

開途國으로부터의 円借款 供與에 대한 要請은 이와 같은 節次를 거쳐 처리되는데, 要請은 日本과의 兩國間 關係를 기본으로 하여 나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國際的인 포럼인 「援助國會議」를 계기로 하여 발생하는 일도 적지 않다.

援助國會議는 「援助그룹」또는 「協議그룹(CG)」이라고도 불리우며, 援助國 사이에서 援助에 관한 조정이나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하여 受援國에 대한 援助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1958년 世界銀行의 주최하에 對 印度·컨소시엄이 개최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그후, 주로 世界銀行의 주도권하에 다른 開發途上國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마찬가지의 그룹이 결성되었다. 주된 援助國 회의로는 인도 차관단(consortium), 파키스탄 차관단(consortium), 나이지리아협의 그룹, 타이협의 그룹, 스리랑카협의 그룹, 필리핀 협의 그룹, 방글라데시협의 그룹, 對 인도네시아 債權國會議(以上 世銀關係), 터키 차관단(OECD 關係), 對 인도네시아 援助國會議(네덜란드) 등이 있다.

援助國會議에서는 그 會의 對象이 되어 있는 開發途上國의 經濟現況과 展望, 開發計劃, 主要 프로젝트에 대해서 世界銀行, 國際通貨基金 等으로부터의 報告, 그 國家의 政府代表에 의한 說明, 出席國 政府間의 意見交換 等이 실행되는 것이 一般的인데 이 會議席上에서 各 援助國이 장래에 걸쳐서 구체적인 援助額을 의사표명하는 일도 적지 않고, 日本도 이와 같이 援助國 會議에 있어서 구체적인 援助額의 의사표명을 하는 경우가 많다.

基金은 海外經濟協力基金法(1960년 법률 제173호)에 立脚하여 1961년 3월에 설립되었다. 同 法은 基金設立의 목적을 「동남아시아 지역 및 그 밖의 開發途上에 있는 海外 地域의 産業開發 또는 經濟安定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開發 또는 安定에 필요한 資金으로 日本輸出入銀行 및 一般金融機關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것에 대비해서 그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業務를 실행함으로써 海外經濟協力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同法 제1조라고 제창하고 있다.)

基金의 投融資業務에는 外國政府(政府關係機關, 地方公共團體 等을 포함) 등에 대한 融資(통상 「直接借款」이라 함)와 海外에서 開發事業에 종사하는 기업 등에 대한 融資 또는 出資(通常 「一般案件」이라 함)의 두가지 業務가 있다.

89년도 基金의 投融資 總額은 승낙 베이스에서 8,576億円으로, 이 가운데 直接借款은 총액의 98. 6%에 상당하는 8,460億円이었다. 1961년 설립이래, 89년도 말까지의 投融資 承諾總額은 9조1,112億円에 달한다.

일찌기 日本輸出入銀行도 円借款의 實施機關으로서 円借款 資金의 供與를 맡고 있지만 75년 7월 1일부터 양자의 業務分野의 구분이 명확시되어 그랜트 ·엘리먼트가 25%이상인 直接借款의 貸付業務는 全部 基金이 담당하고 그 이외의 貸付業務는 輸銀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에 의해 基金은 DAC가 規定하는 ODA의 政府直接借款을 직접 관장하게 되었다.

基金은 그 本部를 千代田區 大手町의 竹橋 合同 빌딩에 두고 總務部, 經理部, 業務部 1部로부터 業務第3部(그밑에 合計11課를 갖는다. 주로 地域別), 開發部(주로 分野別), 經濟部(주로 調査關係), 業務監理部(案件運營管理,評價), 債券管理室을 設置하고 또한 방콕, 서울, 자카르타, 마닐라, 뉴델리, 북경, 쿠알라룸프, 다카르, 나이로비, 카이로, 파리, 워싱턴에 海外駐在員事務所를 두고 있다.

第4章 效果的, 效率的인 援助

日本의 政府 開發援助(ODA)는 바야흐로 연간 예산이 1兆 數千億円에 달하는 政府의 大事業이다. 國家의 재정이 매우 핍박한 狀況에 있으면서 日本은 이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中期目標」를 設定해서 努力을 거듭하고 있다. 經濟財政事情이 바람직한 狀況이 아니기 때문에 ODA를 크게 늘리지 않고 있는 구미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日本의 이와 같은 姿勢와 努力은 높이 評價받을만 하다.

이와 같이 ODA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의문시 되는 것이 援助의 效果, 效率의 문제이다. 資金의 과반이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한 援助의 實施狀況, 具體的인 效果, 必要性 等에 대한 一般人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開途國援助는 과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일까?」, 「援助資金은 헛되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援助는 開發途上國의 자조노력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유해한 것은 아닐까?」 등등의 援助效果에 대한 疑問의 氣勢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은 관심은 오히려 환영되어야 할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은 開途國 援助의 效果등을 묻는 목소리는 최근 국제적으로도 높아지고 있고 지금까지의 援助의 成果에 대해서의 재평가라든지 반성에 立脚하여 어떻게 하면 援助를 더한층 效果的, 效率的인 것으로 해 갈수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國際會議 等에서도 종종 논의되고 추구되고 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및 合議 機關인 開發援助委員會(DAC)의 토의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效果的, 效率的인 援助의 확보를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로서 이러한 國際的 모임에서도 종종 논해지고 있고, 또, 實施에 옮겨지고 있는 것 가운데에는 「政策對話의 推進」, 「援助評價의 充實」, 「民間·非政府團體와의 連結」 等의 조치

가 있다. 여기에서는 日本의 經濟協力을 보다 더한층 效果的인 것으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모색하면서 各各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政策對話의 推進과 國家別 援助計劃

政策對話(Policy Dialogue)의 推進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援助國 政府와 被援助國 사이에서 援助문제에 대해서의 충분한 對話를 확보하고, 또 援助國 政府間에도 수평적으로 자주 對話를 갖고 토의라든지 의견교환을 통해서 보다 잘 해나아가려는 것이다.

援助國側과 被援助國측의 當局者 사이에 부단한 對話가 있고 나서야 비로서 참된 開發必要性도 발견되고 援助案件의 원활한 實施도 도모된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제와서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반드시 충분한 것만은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政策對話는 현실로는 가령 政府의 出張機關의 在外公館을 통해서 실행하는 것도 있고, 특히 임명된 代表團이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짐으로써 실행하는 것도 있다. 外務省에서는 타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지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멕시코, 브라질등, 日本援助의 주요 受取國인 25個國政府와의 사이에서 兩國間 年次 協議의 場을 갖고 있다. 外務省 派遣 代表團이 일년에 한번 이 國家들을 향해 (반대로 이런 國家들로부터 代表團이 訪日할 때도 있다.), 各各 政府의 援助關係者와 한 자리에서 만나 援助實施에 관한 忌憚없는 意見交換이나 問題解決을 위한 善處의 신청 또는 分野別 開發必要性에 대해서의 情報交換, 新規案件의 설명청취등을 실행함으로서 對話의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開發途上國과의 사이에서 실행할 뿐만 아니라, 援助를 供與하고 있는 先進國과의 사이에서도 실행해야만 한다고 强調되고 있다. 이것은 先進國間에 援助政策에 대해서의 정보나 경험을 交換하고 또한, 상호간에 援助政策을 조정하려는 것이다. 이 때문에 世界銀行이나 OECD등의 소위 멀

티(다국간)의 장에서 先進國間 協議에 덧붙여 先進國間에서의 兩國間 協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日本은, 미국, 서독,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등 주요국과의 사이에서 일일이 政策企劃協議를 實施하고 있다. 미국과는 78년 이래 개최장소를 동경과 워싱턴을 번갈아 가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협의를 개최하고 있지만, 양국은 이 關係를 더욱 推進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實施한다는 시도도 꾀하고 있다.

政策對話는 극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용이한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정말로 效果가 있도록 하려고 하면 실은 극히 어려운 것이다. 開途國 各各의 經濟, 社會, 財政狀況등에 精進하여, 開發必要性을 잘 아는 者가 이것을 맡지 않으면 한정된 시간에 유효한 토의를 실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지간히 周到綿密한 事前準備 없이는 效果를 올릴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援助를 받아들이는 국가측에서의 新規要請案件의 說明會가 될런지도 모른다. 관계자가 여러 각도에서 各各의 國家의 開發必要性을 깊이 추구하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援助를 供與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생각하면서 이 政策對話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國家別 中長期 援助計劃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해 진다.

그러나 한 國家에 대한 經濟協力은 政策對話의 成果에 立脚하여 계획하고 國家別計劃을 立案한다는 것은 또한 극히 곤란한 작업이다. 프로젝트를 발굴하거나 형성하거나 할 능력이 없는 開途國이 많고 프로젝트의 쇼핑리스트를 만들어 보아도 이들 優先度를 확정할 수 없는 國家도 많다. 계획을 세워 보아도, 計劃外의 案件이 날마다 새로이 추가된다는 것은 被援助國側에도 흔히 있는 일이다. 經濟協力도 정치의 일환이라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案件이 갑자기 浮上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實施의 優先順位가 돌연 변경되는 일도 드물지 않다. 모처럼 國家別 計劃을 立案해보아도, 이와 같은 저해요인 때문에 계획이 유명무실해지기 쉽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기 때문에 國家別 計劃 樹立은 困難視 내지는 不可能視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곤란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현실적인 國家別 政策 및 國家別 計劃을 策定하는 努力을 거듭하고 있다. 「政策對話」와의 사이에서 상호간에 피드백(feedback)의 關係를 유지하면서 效果的인 援助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2. 經濟協力의 評價

經濟協力의 「評價」는 經濟協力案件이 당초에 供與목적에 立脚하여 效果를 올리고 있는지, 相對國의 經濟·社會開發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는지, 프로젝트의 규모, 내용등 당초계획은 적절했는지, 프로젝트를 유지·관리, 운영해가는 체제는 정비되어있는지 어떤지 등에 대해서 調査하고 그 調査結果로부터 장래에 배워야 할 敎訓을 얻으려는 극히 광범한 범위에 걸친 調査이다. 좋든 나쁘든 그 敎訓은 금후의 經濟協力에 유효하게 피드백(feedback)되어 經濟協力을 더한층 效果的·效率的인 것으로 해준다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日本에서도 상당히 일찍부터 外務省이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特定國家에서도 評價를 實施하거나 國際協力事業團 또는 그 前身인 海外技術協力事業團이 技術協力에 대해서의 評價를 실행해왔지만, 그 活動은 대체적으로 저조하며 조직적인것도 아니었다. 오직 評價만 담당하는 조직도 없었다.

이것에 대해 미국, 영국, 서독, 캐나다등의 제국이나 世界銀行, 아시아開發銀行등은 評價를 중시하고, 70년대 전반까지 이미 評價를 위한 조직을 援助實施機關속에서 정비하고 評價活動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기반을 쌓고 있었다.

日本은 援助 自體가 현재의 선진제국중에서는 後發國이었지만, 評價에 있어서도 이처럼 주요선진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진 형세이었다. 관심이 81년 1월, 外務省이 經濟協力局에 「經濟協力評價위원회」를 설치하고, 評價를 조직적, 적극적으로 전개해갈 자세를 밝히고 그를 위해 체제정비에 나섰다. 또한, 84년의 經濟協力局 一部 改造에 임해서는, 外務省組織領에 있어서는 새로이 同局에 설치한, 「調査計劃課」가 담당하는 事務의 하나로서 「外交政策上의 經濟協力

에 관한 評價에 관한것」을 담당할 것을 명기했다. 經濟協力에 관한 「評價」가 中央의 政策官廳의 所掌事務로서 명문으로 規定된것은 이것이 최초였다.

外務省에서는 關係政府機關이나 實施機關의 協力을 얻으면서 실행하는 評價, 在外公館이 실행하는 評價, 민간의 知識人이나 外國人 援助專門家등과 같은 제3자에게 위촉해서 실행하는 評價등 각종의 評價活動을 통해서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評價를 實施하고 經濟協力의 실상, 成果를 파악하고 「敎訓」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海外經濟協力基金에서도 國際協力事業團에서도 評價活動은 해마다 충실해지고 있고, 專擔部署도 설치되어 있다. 通産省도 아시아 經濟硏究所에 위탁해서 評價活動을 실시하고 있다.

外務省은 그 評價活動의 成果를 「經濟協力評價報告書」로서 발표하고 있다. 經濟協力評價는 본래는 經濟協力을 보다 效果的인 것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旣存案件으로부터 「敎訓」을 배우기 위하여 實施하는 것이고 본래 그 結果는 부서내의 참고에 그쳐야 할 성격의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經濟協力을 금후도 계속 확충해 가야 한다는 立場에 있고, 이를 위해서 經濟協力의 實施狀況, 問題點, 課題 等에 대해서 솔직하게 發表하고, 이것을 통하여 널리 國民一般의 經濟協力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서 확충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는 政策的인 판단에서 評價結果를 연차 보고의 樣式으로 發表하고 있다. 美國(國際開發局) 및 英國(海外開發廳)처럼 민간 컨설턴트 등에 위탁해서 實施한 評價리포트에 限定 發表하고 있는 國家의 예는 있지만, 보통은 相對國立場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發表를 전제로 하면 엄한 評價가 不可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는 점으로부터 評價 結果는 「秘」取扱하여 公表하지 않는 國家가 많다.

그런데 「評價」는, 그 性格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고, 또 評價를 하는 경우의 기준을 두는 것이 쉽지 않은 점도 있어서 받아들이는 쪽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다르다. 政府開發援助 그自體에 비판적인 立場을 갖는 사람중에는 評價를 회계 검사내지 監査처럼 받아들여 엄한 調査를 實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反對로 原來 供與해 버린 援助는 相對國의 것이니까 어쨌든 內政干涉的인 調査는 하지 말아야 하며, 評價는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는 立場에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른바 두개의 양극단에 선 사고방식이지만, 援助案件은 供與해 버린 뒤에는 相對國의 主權下에 있음은 사실이고 援助한 측이 마치 上位에 있는 것 같은 형태로 「檢査」를 한다는 것이 評價는 아니라는 것도 또 상식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評價는 본래 將來에 있어서 살릴 수 있는 「敎訓」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一般化해서 확실하게 다른 案件, 將來의 案件에 유효하게 살리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본래의 의미가 있음은 되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 바 이다. 當初의 기대, 목적에 반하여 成果를 올릴수 없었던 案件, 失敗라고 생각되는 案件으로부터는 많은 敎訓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같은 불행한 案件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評價를 實施해서, 왜 이 案件이 당초의 기대대로 잘 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철저하게 分析해서 그것을 敎訓으로 하는 데에 評價의 意義와 역할이 있다. 또, 特筆해야 할 成果를 올리고 있는 案件, 成功이라고 생각되는 案件에 대해서도 똑같은 思考方式으로 積極的인 評價를 실행하고 큰 成果를 올리고 있는 이유, 원인 등을 分析하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하에서는 어떤 案件을 어떻게 推進하면 成功할 수 있을까 하는 敎訓을 배우고 이것을 다른 案件에 살려가는 데 意義가 있다.

요컨대, 正確하게 評價를 실행하고 그 結果를 정말 有效하게 살린다. 즉, 얻은 敎訓을 확실하게 장래에 피드백(feedback)해 간다는 것이 緊要하며, 이것도 저것도 닥치는대로 많은 案件을 調査해 보아도 거기에서 敎訓을 얻으려고 하지 않거나 얻은 敎訓을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評價를 실행하는 의미는 전혀 없으며, 評價를 위한 評價에 지나지 않게 된다.

世界銀行은 同銀行이 融資한 案件에 대해서 銀行으로서의 立場에서 案件의 遂行에 대해서 詳細한 調査를 실행하고 있고, 調査를 실행하기 위한 體制도 잘

整備되어 있다. 이 世銀의 調査活動에서 興味가 있는 것은 融資對象事業의 內部收益率이 10%以上이면 成功, 未滿이면 不滿足이라고 대단히 明快하게 機械的으로 잘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世銀은 매년 100건 전후한 融資案件에 대해서의 評價結果를 이와 같은 기준에 立脚하여 分析하고 그 結果를 監査報告(年次)로서 公表하고 있다.

例年 90% 이상의 案件이 성공이었다고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기계적인 구분 방법은 銀行으로서의 機能을 重視하는 입장으로부터는 당연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생각될 만한 것이고 빠뜨릴 수 없는 기준이라는 것도 틀림없는 것이다. 그러나 兩國間의 政府開發援助에 있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잘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래 만족한 評價를 실행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援助로서, 어느 지역엔가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한다는 것은 원래 그 지역에는 없었던 새로운 文化라든지 技術을 導入하는 것이며, 그 지역에 새로운 in-put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in-put에 의해 어떤 out-put(結果)이 導出될 것인가는 豫想不許의 면이 있고, 극히 廣範圍하면서 學際的인 調査 硏究를 필요로하는 것이고, 1회뿐이 아닌 몇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몇번이고 반복해서 실행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새로운 in-put이 행해지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가령 그 지역의 주민의 收入·所得水準, 生活水準, 敎育水準, 地域의 傳統, 慣習, 技術水準 等이 어떤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綜合的인 調査를 미리 實施해 두지 않으면, 프로젝트 실시후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다. 즉 인에 대한 아웃을 評價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베이스라인 ·스터디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종류의 事前 調査가 있고 나서 비로소 事後 評價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막대한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事前 및 事後의 評價調査는 본래, 다양한 分野에서 다수의 뛰어난 專門家의 참가가 있고 나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日本

의 경제협력평가활동은 외무성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러한 어려운 작업에 간신히 着手하기는 했지만 아직 摸索 중의 段階라고 하겠다. 앞으로 施行을 반복하면서 各 分野 專門家의 英知를 모아 評價 體制를 整備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評價의 國際的 動向과 敎訓

援助의 評價에 대해서 歐美 主要 先進諸國에서는 상당히 일찍부터 體制를 갖추어 評價 手法의 整備 等에 힘써 왔는데, 70년대 후반이 되면 OECD라든지 DAC에서도 援助를 效果的으로 實施하는 데 있어 評價가 미치는 역할을 새삼스러이 중시하는 움직임이 나왔다. 歐美諸國에서 보이는 所謂 援助 必要라든지 援助資金에 限定이 있는 이상, 이것은 가능한 한 效果的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으로 援助 效果에 대해서의 疑問이 점점 강하게 提起되게 됨과 동시에 評價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認識되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나라의 政府, 援助機關에 있어서도 새로운 援助案件에는 열심히 집착하지만, 그에 비해 評價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 評價 擔當者는 脚光을 받는 일도 없이 오직 묵묵히 評價를 擔當하고 그 立場上 「批判者」로서의 發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府內의 關係者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반대로 批判받거나 하는 일이 많고, 當惑 感을 느끼는 일이 많다는 것이 實狀이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새삼스럽게 評價가 脚光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각국의 援助評價 專門家가 浮上하게 되었다. 國際的으로도 發言을 할 機會가 주어지는 일이 많아졌다. 日本에서는 외무성이 중심이 되어 援助評價의 體制强化에 힘쓰기 시작한 것은 실로 이러한 國際的 動向과 時期的으로는 一致하고 있었던 것이다.

1980년 DAC의 상급회의에서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先進諸國의 援助 效果를 묻는 일반 풍조를 反映하여, 이것이 정말로 效果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科學的으로 立證하는 作業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제창되었다. 이것을 받아 DAC 加盟國의 政府 및 援助 實施機關의 評價專門家가 한 자리에 모여 援助 效果의 문제

를 널리 討議하는 場(Eavluation Correspondents Group)이 마련되었다. 그 제 1회합이 81년 5월 파리의 OECD에서 開催되고, 또 다음해 82년 4월 및 9월에 각각 제 2회 및 제 3회 회합이 개최되어 筆者도 이들 援助評價 擔當者로 參加, 討議를 거듭하여 과거 각국이 실시한 評價의 成果를 분석·조사함으로써 先進國 援助의 效果를 입증하려는 작업도 했다. 그 후 이 그룹은 援助評價 專門家會議로 格上되고 또 다시 제 1회 회합이 83년 3월에 개최되어 DAC 가맹제국, EC 및 世銀 等은 각각의 評價에 관한 情報(評價實施計劃, 評價辯護, 評價 매뉴얼 等)의 교환을 상호간에 실시하고 評價 硏究에 이바지 하도록 할 것, 각국이 지금까지 실시한 評價를 통하여 모든 교훈을 서로 보고하고 정리하여 서로의 연구에 이바지하도록 할 것 등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加盟 各國 및 國際機關이 공동으로 特定 프로젝트를 評價함으로써 評價의 成果를 거둘 것, 開發途上國 政府 自身에게도 評價能力을 갖도록 해서 자국내 프로젝트의 評價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재의 양성에 協力할 것 등이 討議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Non 프로젝트 援助의 評價에 대해서도 日本의 提案에 입각하여 討議가 실행되고 있다. 이 그룹의 참가자가 援助 評價를 통하여 모은 敎訓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討議하거나 개인적으로 의견교환한 사항은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모아지고 日本으로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다음에 몇가지 들고자 한다. 各國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흥미있는 사항이며 또한 換言하면 經濟協力 實施上의 문제점 및 과제가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가. 援助 實施의 制度上, 政策上의 問題

援助를 供與하는 側에도 받는 側에도 각각 독자적인 사무처리상의 體制라든지 절차가 있고, 또한 融通性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援助 供與國側은 종종 받아들이는 國家側의 事情을 위시해서 자신들의 法的, 事務的 節次에 따를 것을 강요하기 쉽다. 이것이 援助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供與國側에는 財政·會計制度上 資金支出을 정해진 會計年度內에 완료해야 한다는 사정이 있어 무리한 비효율적 豫算 소화를 강요당하는 경우가 있다.

人的 側面에서도 쌍방의 인력부족 문제가 있고 또한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에는 强力한 운영집행이 필요한데 이것이 약한 경우가 많다. 또한, 관계 관청간의 조정이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도 적지 않다.

援助供與國側의 國內經濟상의 요청으로부터 오는 문제도 크다. 剩餘物資의 活用, 雇傭 創出, 輸出振興등 國內 經濟事情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의해 調達의 조건부화가 추진될 뿐만 아니라, 각종 로비스트의 暗躍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援助의 본연의 자세를 비뚤어지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供與國의 國內經濟에는 프러스가 되기 때문에 國內에서는 지지를 받고 오히려 당연시 된다는 사정이 있다.

또한, 때로는 經濟的, 外交的인 고려로부터 計劃性이 없는 援助가 돌연 供與되는 경우가 있고, 상대국의 援助 吸收能力 以上의 것이 할당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援助에는 效果的이 아닌 결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나. 國別 援助 計劃 策定의 필요성

援助를 效果的, 效率的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援助 對象國마다 그 나라의 개발정책과 합치하면서 장기적인 비젼과 실현가능한 목표, 목적을 설정한 援助計劃을 立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 나라의 經濟, 社會開發 全般에 대해서의 명확한 비젼을 가지고 개발분야마다의 分析에 입각해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에는 適正技術의 개발을 포함하는 開發戰略, 國際機關 또는 제 3국의 援助活動과의 관련과 이것들과의 調整등의 문제는 물론이고, 과거의 교훈이나 환경문제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援助의 國別計劃은 이처럼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어서 포괄적인 國家別計劃이 만들어지는 일은 오히려 드물며, 현실로는 실시예정의 프로젝트·리스트를 중심으로 한 단기적인 計劃이 되어 버릴 경우가 많다. 또한 모처럼 計劃이 있어도 이것과는 관계없이 높은 레벨에서 관계없는 案件이 採擇된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 국가의 開發計劃과의 관련이 소홀해져 버리는 일이 있으며, 案件의 事前調査가 충분히 실행되지 않는다는 일도 생기게 된다.

따라서, 援助를 效果的인 것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지만, 어쨋든 國家別援助計劃 작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援助案件으로서 채택하는 計劃의 프로젝트등은 그 규모의 大小를 불문하고 이 國家別計劃 속에서 위치를 부여하고 事前評價를 실시한 다음 確定되어야 한다. 또 각국과의 「政策對話」도 이같은 國家別計劃과 충분히 관련지워 실시될 필요가 있다. 더욱 援助本來의 바람직한 자세로서 프로젝트 援助가 主體이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요즘 수년이래 Non 프로젝트 援助가 점점 증가해 가고 있다. 이것은 經濟事情의 악화에 따라 開途國側의 援助吸收 능력이 저하해가고 있는 것, 그럼으로써 양호한 프로젝트 案件이 점점 적어져가고 있는 것, 商品援助的인 쪽이 財政的인 부담도 人力도 들지 않는다는 것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이지만 한편, 援助 供與國側에도 Non 프로젝트(프로그램)援助에는 輸出振興, 市場擴大등의 직접적인 效果가 기대되고, 援助資金의 상환도 빠르고 또 外交政策上도 效果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그램 援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商業目的이나 外交目的이 先行해버려 事前의 충분한 吟味라든지 調査 없이 供與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모처럼의 援助가 受援國側의 건전한 經濟發展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效果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생겨나기 쉽다. 따라서 프로그램 援助라고 하더라도 國家別計劃의 일환으로서 동시에 援助政策 전체의 프레임워크(틀)속에서 충분하게 吟味되고 나서 실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援助는 또한 이것도 저것도 衆口難防式으로 供與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분야에 정합성(整合性)을 갖고 集中的, 中點的으로 供與하는 쪽이 效果를 올리기 쉽고 國際機關이나 다른 援助國과 協助하면

서 분담을 정해 援助를 실시하는 쪽이 效果를 올리기 쉽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援助 全般을 통해서의 일이지만 한 나라 속에서 여러 분야의 援助를 여러지역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식으로 供與하기 보다는 특정분야 특정지역에 集中的으로 實施하는 편이 效果를 올리기 쉽고 그러한 쪽이 援助供與國에 있어서 필요한 情報를 모으기 쉽고 지식도 쌓기 쉽다. 受援國側과의 협의라든지, 援助國間의 調整도 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고 나아가 援助 案件 상호간의 連繫가 援助效果를 더욱 높인다는 效果도 있다.

非政府·民間機關(NGO)은 일반적으로 빈곤, 무지, 병에 대한 BHN(기초적 생활필요)援助를 지향하는 것이고, 게다가 中央政府나 援助供與國의 援助의 손길이 닿지 않는 僻地에서의 援助活動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NGO와 協助해서 援助를 실시하는 것이 援助效果를 높일 때가 있다. 따라서 NGO와의 協助라는 것도 잘 檢討할 필요가 있다.

다. 實施上의 문제점

援助를 實施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갖가지 문제 및 案件의 成功·失敗는 결국 案件實施에 앞서서 事前評價라든지 準備를 어느 정도 견실하게 했는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다. 事前 評價나 準備를 충분하게 하고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피할 수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國家別計劃, 分野別計劃을 견실하게 세워 그 속에서 案件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것과 관련된 經濟的, 社會的, 制度的인 諸問題의 분석까지 확실하게 실시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의 적정한 선택도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큰 요인이지만 「適正技術」의 개념이 援助供與國側에서도 受援國側에서도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현지사정에 대해서의 지식도 충분히 없는 채 援助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상업상의 이익이나 가격여하에 좌우되어 적정한 것이 供與되지 않고 부적

절한 것이 供與되는 일이 적지 않다. 적정한 기술은 해외로부터 새로운 것을 도입하는 것보다도 우선, 그 지방마다 존재하는 기술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쪽이 중요하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本來 援助 受援國側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現地 經費(로컬 · 코스트)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문제 프로젝트」는 원래 처음부터 다수의 現地 經費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였거나, 비용이 들도록 設計되어 있거나 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受援國側을 設計段階에서 충분히 참가시켜 그 로컬 코스트 부담능력을 看破하면서 援助國, 被援助國 雙方의 분담 구분을 미리 충분하게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프로젝트의 設計 · 디자인 段階에서의 배려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 프로젝트가 지향하고 있었던 受益階層이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受益階層을 프로젝트에 참가시키도록 힘써 低所得 階層을 위해 진정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뛰어난 메니지먼트(運營)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의 經濟, 社會, 政治事情에 충분히 對應할 수 있고 그 프로젝트에도 正統한 사람들을 가능한 한 활용하고, 과거의 경험도 有效하게 살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강력한 메니지먼트의 體制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메니지먼트의 문제는 受援國側에 있어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援助國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認識해 둘 필요가 있다.

라. 피드백의 重要性

經濟協力評價의 결과 산출된 문제라든지 교훈은 후일의 經濟協力 실시에 이르러 有效하게 活用되어야 한다. 評價는 거기에서 교훈을 배우고 그것을 후일 適切하게 피드백시켜나가 經濟 協力을 보다 效果的인 것으로 해나갈 때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교훈의 피드백이라는 것은 현실로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評價의 結果 産出된 것과 똑같은 불합리한 상황이 언제까지나 반복되거나 과거 경험이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評價를 실시해도 評價는 評價에 그치고 거기에서 배울만한 귀중한 교훈은 묻혀버려 有效, 適切하게 살려지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언제까지나 반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째서 그런 것일까, 그 原因을 探索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

첫번째로, 지금까지의 評價活動은 종종, 프로젝트단위에서의 「問題 發見」에 그쳐 政策企劃에 살린다는 입장으로부터 문제에 눈길을 향한다는 태도가 반드시 강력하지는 않았다.

두번째로, 아직 評價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案件의 評價에 좇겨 과거 경험으로부터 차분히 교훈을 배우고 이것을 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없고, 모처럼의 評價 리포트도 단순히 參考資料로서 關係者에게 회람(回覽)되는데 그치기 쉬우므로, 評價結果로부터 얻어진 교훈을 有效하게 살려가려는 責任있는 體制가 確立되어 있지 않다. 評價 리포트는 워크 샵이라든지 세미나등의 敎材로 活用하거나 援助關係者의 硏修敎材로 활용하면 더욱 폭넓고 有效하게 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評價結果를 확실하게 피드백시켜가는 機能을 다하는 體制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번째로, 대부분의 援助機關에는 新規案件의 코미트먼트라든지 그것들에 대해서 자금의 디스버스먼의 촉진에는 열심이지만 실시되는 案件의 질의 좋고 나쁨이나 成功, 失敗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묻지 않는다는 풍조가 있다. 이것에는 승인(commitment)이나 지출(disbursement)의 目標를 達成한 擔當者는 칭찬받으며 그 프로젝트가 失敗였다고 해도 반드시 비난받지는 않는다는 소위 「豫算 消化主義」에 억지로 떠밀리기 쉽다는 경향이 있어 좀처럼 改善하기 어려운 體制的인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든 諸問題는 本項 全般에서도 記述한 것처럼 DAC가 開會한 援助評價 會合 때 DAC 加盟國의 援助 評價 擔當者 等이 「보다 效果的인 經濟協力」을 추구하여 솔직하게 意見交換을 한 자리에서 나온 公私에 걸친 의견 중에서 주요한 것이다. 直接, 間接 日本의 援助에도 適用되는 일이 적지 않고 日本의 經濟協力을 보다 效果的, 효율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참고로 해야만 할 점이 많다.

4. NGO와의 提携

日本에서도 非政府·民間團體(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가 점점 성장하고 그 海外支援活動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政府側에서도 NGO의 더 한층의 성장을 支援함과 동시에 이것과 提携해서 ODA를 보다 詳細하게 效果的·效率的인 것으로 해가고 싶다는 思考方式이 강해지고 있다.

歐美先進諸國에서는 NGO는 이미 긴 歷史를 갖고 海外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NGO가 적지 않지만, 그 歐美諸國에 있어서도 NGO를 再評價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

90년 1월에 실시한 어떤 외무성의 委託調査에 의하면 海外援助에 관계하고 있는 日本의 NGO는 약 300단체(그중 公益法人은 76, 나머지는 任意團體)에 이른다. NGO 중에는 政府의 補助金이라든지 위탁비를 받아서 해외협력 활동을 실시해온 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NGO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政府 베이스의 經濟協力과는 분명한 선을 긋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서는 일이 많았고 政府側에서도 NGO의 활동에 그다지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政府와 대다수의 NGO와는 상호간에 간섭하는 일도 없이 오히려 차가운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더욱 NGO 각각이 반드시 開放的이지는 않고 相互間의 交流나 情報交換도 거의 실행되어 오지 않았었다.

최근 갑자기 NGO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것과의 제휴라는 構想까지 나온 배

경에는 前記한 것처럼 우선 첫번째로 日本의 NGO가 근래 수년동안 눈부시게 成長해서 海外援助에 주목할 만한 활동을 展開하고 착실히 성과를 올리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70년대말 부터의 인도차이나 難民救濟 活動에 모인 民間自願奉仕 組織力과 그 活動像 및 그 후의 아프리카에 있어서의 飢餓 救濟 活動 등에서 그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日本 NGO의 성장 모습이 인정된다.

두번째로는 NGO가 相對國 國內에서 소규모이기는 하더라도 僻地에서 소위 풀뿌리의 일반민중과 접하며 支援活動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政府 베이스의 經濟協力의 성과를 이와 같은 僻地의 일반민중에게 도움을 주거나 政府 베이스에서는 실시가 곤란한 案件의 실시를 推進하기 위해서는 NGO의 協力을 얻는 것이 效果的이라는 인식이 생긴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日本의 NGO는 近年 뚜렷이 성장해 왔다고는 하더라도 그 歷史가 짧고 資金募集의 基礎도 약하기 때문에 아직 歐美先進諸國의 NGO 레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政府側과 NGO側의 쌍방이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協助關係를 確立해 가는 과정을 통하여 日本의 NGO가 크게 성장해 갈것을 기대해야 하지만 日本과 歐美先進諸國에서는 NGO의 발생, 成長過程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가난한 開發途上國의 민중을 救濟하려는 「援助」 本來의 사고방식은 歐美諸國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하여 발전해왔다. 현재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는 政府 베이스의 것이 主體가 되어 制度的으로 확립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政府 베이스의 經濟協力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활발해진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교회 등의 NGO에 의한 救濟, 援助活動이 훨씬 先行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歐美에서는 우선 먼저 NGO의 활동이 있고 그 뒤에 政府 베이스의 援助가 시작되어, 이것이 主流가 된 것에 대하여 日本의 경우 이 관계가 완전히 반대로 歐美諸國의 政府 베이스의 經濟協力을 좇아가듯이 戰後 政府 베이스의 援助가 시작되어, 그 후에 NGO가 成長해 왔다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日本의 NGO는 그 歷史에 있어서도 존립하고 있는 基盤에 있어서도 歐美의 NGO와는 상당히 趣向을 달리한다.

東和 大學의 室靖 敎授를 비롯한 그 밖의 人士들로 구성되어 있는 「NGO연구그룹」은 日本의 NGO를 存立基盤上 「政府 外廓團體로서의 NGO」, 「民間企業을 母體로 하는 NGO」, 「宗敎團體의 NGO]의 세가지로 大別함과 동시에 開途國支援의 實施方式에 의해 NGO를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ㄱ) 資金支援型 NGO

「財團」 내지 「公益 信託基金」의 형태를 취하는 組織으로 企業 내지 企業所有者의 寄附에 의해 생긴 財團法人이 많다. 해외로부터의 유학생에게 奬學金을 支給하고 있는 NGO가 많고 開發途上國의 民間 그룹등에게 직접 資金援助를 실시하는 NGO는 적다.

(ㄴ) 專門的 · 組織的인 NGO

開發途上國을 대상으로 하여 技術協力을 실시하고 있는 專門的, 技能的 성격이 짙은 NGO, 분야적으로는 醫療 · 保健關係가 많고 이어서 農業, 漁業, 農林開發, 社會福祉, 幼兒敎育등이 눈에 띤다.

(ㄷ) 開發協力을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NGO

본래 日本國內에서의 活動을 목적으로 해서 조직된 團體이지만 제 3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과도 관련을 갖게 된 단체로 全國 漁業協同組合, 전국 社會福祉協議會, 全日本 勞動總聯盟 등의 단체나 전국적 조직을 가진 宗敎團體, 敎壇등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1970년대 말에 대규모로 발생한 인도차이나 難民의 救濟라는 형태로 아시아 문제에 관계를 갖게 되었다.

(ㄹ) 民草(grass · roots; 풀뿌리)의 開發協力을 실시하는 NGO

최초부터 아시아 諸國의 開發을 支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생긴 시민 내

지는 민중 레벨의 그룹으로 거의 任意團體이지만 그 대부분이 1975년 이후에 발생하고 있다. 資金援助라든지 自願奉仕 派遣 等을 실시하고 있는 그룹, 開發問題의 硏究나 開發敎育을 추진하고 있는 團體, 慈善(charity) 精神에 입각하여 일방적으로 援助活動을 계속하고 있는 그룹, 아시아 民衆의 貧困의 根源的 要因으로서 社會的 不公正에 눈길을 돌려 민중의 自立을 支援하려고 하고 있는 그룹등 사상이나 활동은 다양하다. 단, 이들 NGO는 모두 활동 대상을 아시아 지역으로 限定하고 게다가 그 중의 特定國(특히 네팔 및 방글라데시)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점에서 共通點이 있다.

NGO硏究 그룹은 日本의 NGO를 그 協力活動의 方式, 內容등에 의해 이와 같이 分類, 分析한 다음에 나아가 日本에서 開發 協力 志向型의 NGO가 지금까지 成長하기 어려웠던 社會的, 文化的 背景이라든지 市民主體의 開發協力 그룹이 成長하는데 큰 制約條件이 되어 온 時點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훌륭한 分析이며 흥미있는 연구이므로 아울러 소개해 두고자 한다.

(ㄱ) 우선, 日本 文化의 고도의 同質性이 국민의 非國際性, 섬나라(島國)根性을 낳아 국민일반의 國際的 視野를 현저히 좁혀왔다. 「企業利益의 社會還元」을 명목으로 하여 民間企業이 出資해서 만든 財團法人에서도 國際的인 活動, 특히 제 3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해서 언급한 寄附行爲는 거의 없다.

(ㄴ) 日本人은 明治 以後 「脫亞入歐(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을 넘본다)로 대변되는 西歐指向에 빠져 非西歐社會에 대한 무관심과 멸시 상태를 몸에 익히고 恒常 歐美先進諸國과의 비교에 선 豊足을 추구해 왔다. 그리고 자신들이 豊足해졌다는 객관적인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함과 동시에 일세기 이상에 걸친 西歐指向을 軌道修正하고 새삼 저개발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ㄷ) 서구제국의 크리스트敎 宣敎師들은 15세기 경부터 적극적으로 해외로 나가 布敎와 함께 社會福祉 활동을 실시해 왔다. 歐美의 국민은 크리스트 교회

의 해외활동을 통하여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주민의 빈곤이나 질병, 무교육등의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歐美 NGO의 海外支援活動의 主導權은 크리스트교 교회나 敎壇이 쥐어왔다.

이것에 대해 日本 宗敎界는 지금까지 그다지 海外 活動을 실시해오지 않았다. 근래 10년 정도 동안에 日本 佛敎徒도 核 軍縮이나 平和를 위한 國際的 運動에도 활발하게 참가하게 되었고 國際的 問題에 관심을 높이고는 있지만, 또 하나의 國際的 課題인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日本의 傳統 宗敎界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인도적 緊急援助를 제외하면 현재도 아직 개발협력에 참가하고 있는 宗敎關係 組織은 극히 限定되어 있다.

(ㄹ) 日本 社會에는 傳統的인 中央集權的 官僚體制에 의한 「관고민저(官高民低)」의 「下向式」 指導에 의한 文化的 特徵이 定着되고 있다. 戰後 政府指導型의 市場經濟 體制下에서 국민은 市場經濟의 原理에 따라 利潤을 追求할 수 있는 갖가지 종류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에 의해 日本經濟는 커다란 성장을 이룩해 온 것이지만 직접적인 이윤을 낳지 않는 제 3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開發協力事業은 전부 政府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에 있었다. 국민 일반은 그것을 오직 政府에게 맡겨 政府도 開發協力은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맡는 한편, 民間 産業界라든지 經濟界와도 제휴를 굳혀 왔지만 시민 레벨의 NGO에 의한 開發協力에 대해서는 전혀라고해도 좋을 정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NGO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진 외무성은 80년대 중반부터 주요 NGO와의 사이에 情報交換에 힘써 相互 理解 促進에 노력해 왔지만 근년 더욱 성내(省內)에 NGO 協力 센터를 設置, NGO와의 제휴강화, NGO의 育成强化에 노력하고 있다. 모두의 외무성 위탁조사에 의하면 현재 약 300 여개 있는 團體 중에서 오직 開途國에 대한 援助 活動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NGO는 약 110단체, 그리고 반드시 직접적으로 開途國 援助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관련된 국내활동이나 開發敎育에 종사하고 있는 단체가 15단체 있다. 이들 주요 125개의 任意團體에서 自己調達資金을 기준으로 년간 약 26억円(89년) 정도의 海外 援助

活動을 실시하고 있다.

ODA확충을 위한 제 4차 중기 목표에서도 「民間 援助團體(NGO)와의 제휴를 강화한다」고 제창하고 있지만, 외무성은 89년도 豫算으로부터 NGO에 대한 事業補助金 制度를 設置, 政府 레벨의 ODA에서는 대응이 어려운 小規模 案件에서 開途國에서의 人道的인 개발협력사업(농어촌 개발, 人才育成, 保健醫療, 地域産業向上, 環境保全등의 분야)을 대상으로 하여 이것에 종사하는 NGO에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초년도인 89년도에는 23건에 총액 약 8,300만円, 한건당 평균 약 360만円이 교부되었다. 日本 國際 自願奉仕 센터(JVC)에 의한 타이에서의 託兒所 建設,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의 생활개선 지도원 양성센터, 샤프라닐·시민에 의한 해외협력회에 의한 네팔에서의 眼科醫療事業, 曹洞宗 自願 奉仕會에 의한 타이 貧民 區域에 있어서의 學習援助 事業, 마찬가지로 託兒所 建設 事業 등이 그 속에 포함된다.

또한, 마찬가지로 89년도부터 발족한 小規模 無償資金協力制度(제 2장 제 1절의 1 참조)도 日本 NGO, 開途國 NGO, 國際的 NGO의 어느것도 支援을 要請할 수 있는 소규모 개발 프로젝트 실시 支援對策으로서 設置된 것으로, 89년도 실적에서 보면 총 95건 중 47건이 NGO 관련 프로젝트이고 다섯 件은 日本 NGO와 관련된 것이다.

더욱, ODA 전체에서의 比重(share)을 보면 歐美 主要國의 경우는 NGO를 통한 ODA(「非營利團體에 의한 贈與」)는 6-10% 정도임에 비해서 日本의 경우는 아직 1% 정도 수준이다.

政府와 NGO와의 관계는 미묘하며 補助를 받으면 獨立性이 損傷된다고 하여 警戒내지 反撥하는 경향도 적지 않다. 政府 補助金이 사업비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예로 所謂 補助團體와 당당하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활동기반을 쌓아온 새로운 NGO가 여러가지로 다른 성격을 갖고 主張을 달리하는 것도 당연하며, 특히 후자의 自主性은 존중되어야 한다. 외무성은 NGO에 의한 ODA 批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그 활동에도 가능한 한 介入을 피하고 兩者가 제휴하면서 開途國에게 세심한 援助를 실시해 갈 수 있으면 補助 事業으로서는 획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第 5 章　援助의 理念과 歷史

日本의 ODA에 대해서는 「얼굴없는 援助」라든가 「理念없는 撒布(흩뿌리기)式 援助」라든가 「哲學없는 援助」라는 批判이 적지 않다.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援助大國이 되었다고는 하더라도 ODA의 필요성이나 공여기준 등에 대해서 확실한 根據를 찾는데도 行政府나 立法府에 明文化된 것이 없고 「人道的 配慮」와 「相互依存 關係의 認識」이라는 두가지 基本 理念만으로는 너무 抽象的이고 不充分하며 좀 더 명확한 日本 獨自的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 방식으로부터 나온 비판일 것이다.

이때문에 ODA에 관한 基本法을 制定하고 국가로서의 ODA 理念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한층 각 방면에서 높아져 오고 있었던 바, 88년 이후 民主化의 태풍에 흔들리고 있던 미얀마에 대한 援助의 中斷과 再開, 天安門 事件後의 円借款 供與의 凍結과 再開, 東歐諸國의 民主化 · 市場經濟 移行으로의 支援, 페르시아灣 危機에 처해서의 對 이라크 援助의 凍結과 주변제국에 대한 緊急援助 等, 激動하는 國際情勢 속에 있어 日本 ODA의 本然의 자세가 의문시되는 사건이 잇달았다.

걸프 戰爭 終結 後에는 平和國家를 標榜하는 日本으로서 ODA와 平和, 軍縮 및 民主化를 연결시켜 군사비 지출의 정도, 무기 수출입의 動向, 民主化의 狀況 等을 ODA 供與時 고려에 넣는 새로운 援助 指針을 도입해야 한다는 意見이나 ODA를 外交戰略의 일환으로 하는 위치부여를 명확히 하고 그 戰略的 활용의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意見이 일부로부터 강하게 주장되기에 이르고 있다. 日本이 開途國 援助를 시작하여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 ODA는 큰 轉換期에 당도해 있다.

종래 ODA의 사고방식에 대해 部分的, 抽象的이기는 하지만 그때 그때 관계정부기관 등이 밝히고 있는 것으로서는 가령 외무성이 매년 發表하고 있는 「外交靑書」, 「日本의 政府開發援助」, 通産省이 매년 發表하고 있는 「經濟協力의 현

황과 문제점」 더구나 국회질의에 있어 政府側 答辯이나 對外經濟協力 審議會의 답신등이 있다. 또 立法府 관계에서는 重·參 兩院에 있어서의 결의가 있다.

여기에서는 2,3년 이래 「우리나라의 政府開發 援助」에서 외무성이 설명하고 있는 ODA의 理念, 位置賦與, 目的 等의 概要를 소개해 두려고 한다.

1. 88年版

(1) 日本 ODA의 特徵

日本 ODA는 「相互依存의 認識」과 「人道的 配慮」라는 두가지 國際的 理念에 입각하면서도, 그 의의 부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變遷해 왔다. 그러나 低流에는 항상 다음의 두가지 前提를 두고 온것이 日本 ODA의 特徵이다.

(ㄱ) 「開發」을 主軸으로 한 經濟 社會 開發을 위한 援助일 것.
(ㄴ) 開發 主體는 어디까지나 開途國 自身이다. 내정간섭적인 것을 피해 「自助努力」의 측면으로부터 지원하는 것일 것.

(2) ODA의 必要性

영국이 産業革命의 普及, 貿易通商面에서의 공헌을 통해 世界 經濟 發展에 크게 공헌하고, 미국이 제 2차 대전 후 안전보장의 측면을 비롯 自由貿易, 國際通貨 秩序 確立에 의해 世界 平和와 安定에 기여한 것처럼 歷史的으로 보면 國力을 갖고 각각의 시대에 있어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국가들은 각각의 국력에 상응한 國際的 역할을 完遂해 왔다. 자유세계 제 2위의 經濟力을 具備하고 막대한 貿易 黑字를 올리고 있는 日本에게는 主要援助國으로서 다른 援助國을 이끌어가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고, 援助 강화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은 日本에 있어서 가장 알맞는 것의 하나이다. 나아가 平和, 憲法을 制定하고 평화국가가 될 것을 선택한 나라로서 군사 이외의 分野에서 他 諸國을 능가

한 貢獻이 필요하다.

(3) 目的

(ㄱ) 開發途上地域의 전체적인 水準向上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세계 經濟의 전세계적인 발전을 指向한다.
(ㄴ)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의 平和와 安定에 貢獻한다.

2. 89년판

單純化는 피해야 하지만 「必要性」, 「配分基準」, 「目的」의 세가지 측면으로부터 ODA를 생각하고자 한다.

(1) 必要性

(ㄱ) 經濟大國으로서의 立場

세계 제 2위의 經濟力을 지니고 가장 平和롭고 安定된 潤澤한 나라로서 貧困·飢餓등에 시달리는 혜택받지 못한 나라를 도우는 것은 日本의 책무이다.

(ㄴ) 세계 제 1의 債權國·黑字國으로서의 立場

세계 최대 규모의 거대한 貿易黑字·對外 債權을 가진 나라로서 國際金融이나 開途國의 開發이라는 世界經濟全般과 관련된 문제에 큰 역할을 完遂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ㄷ) 높은 對外 經濟 依存度

食糧, 에너지 등 대부분의 必需品을 輸入에 의존하고 開途國에 대한 輸出도 많고 그 經濟的 繁榮을 開途國 經濟의 安定的 發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開途國 地域의 經濟발전이 촉진되면 日本經濟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ㄹ) 平和國家로서의 立場

援助를 통해서 開途國의 經濟·社會 開發과 民生의 향상에 貢獻하는 것은 그 나라의 政治的 安定에도 貢獻하는 것이 되고 日本의 平和憲法理念과 合致하고 있다.

(ロ) 非西洋國家 중 유일한 先進國으로서의 立場

開國·明治 維新으로부터 백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天然資源이 豊富하지도 않은 非西洋的 土壤 중에서 처음으로 경이적인 經濟發展에 成功한 日本의 經驗을 많은 開途國에게 전수하는 일은 대단히 귀중하며 日本에 있어 매우 알맞은 國際的 貢獻이 될 수 있다.

(2) 配分 基準

「相互依存關係의 認識」과 「人道的 配慮」라는 두가지 理念에 입각하여 개개 援助의 실시를 맡지만 被援助國의 經濟政勢, 日本과의 관계등의 諸 要因이 덧붙여져 이 理念이 다양한 형태로 展開 發現된다. 아시아 지역은 日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兩國間 ODA의 3/2가 配分되어 있는데 이것은 日本과 歷史的, 地理的, 經濟的, 政治的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相互依存關係」가 세계의 그밖의 開途國 地域에 비하여 濃密한 것의 反映이다. 아프리카 제국에 대해서는 貧困·飢餓의 문제를 염두에 둔 「人道的 配慮」가 중심이며 이것에 兩國間 관계의 配慮가 덧붙여진다. 일반적으로 配分上의 중요한 기준으로서 1인당 GNP의 액수가 사용된다.

(3) 目的

상대국의 經濟·社會開發을 推進하고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의 목적이며 또한 상대국과의 관계 긴밀화를 導出하는 것, 友好關係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目的이다.

3. 90年版

(1) 「人道的 配慮」와 「相互依存關係의 認識」은 日本의 援助 必要性을 설명하는 論理·思考方式이라는 의미에서의 理念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두가지 이외에 다른 論理가 존재할 수 없을리는 없다.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사고방식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援助의 必要性을 인정하고 있는가의 여부이지 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가의 理由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2) 日本은 援助에 임하여 途上國의 自助努力을 支援하는 것을 重視하고 援助 內容에 대해서도 日本 自身의 思考方式을 강요하고 있지 않다. 상대국의 要請 베이스에 日本이 取捨選擇한다는 對應을 기본으로 함과 동시에 원칙적으로 援助에 政治的인 조건을 붙이는 것을 內政不干涉의 見地에서 피해왔다. 이와 같은 援助姿勢에 대해서는 이념없는 援助라는 批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대국의 自主性과 自助 努力을 가능한 한 존중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본래의 開發援助 本然의 모습과 가장 合致된 것으로서 높이 評價하는 경향도 있다.

(3) 日本이 이와같은 자세를 견지해가는 것이 좋을지 혹은 日本의 國際 社會에 있어서의 입장, 즉 自由·民主主義를 基本的 價値로 하는 先進 民主主義國의 一員으로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自由와 民主主義 制度의 普及을 援助를 實施할 때의 사고방식으로 내걸거나 혹은 平和國家 日本으로서 巨額의 군사비를 사용하고 있는 開發途上國에 대한 援助를 삼가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혹은 日本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開發모델을 강조해가야 할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日本과 被援助國과의 관계에 미치는 큰 영향을 충분히 고려에 넣은 다음에, 日本 國內에서의 論議가 더욱 深化되어 국민의 콘센서스(合意)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援助 本然의 자세에 대해서는, 理念이나 基本方針의 형태로 討議될 수 있는 문제 이외에 다양한 論点이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상대국의 國政·發展段階 等도 고려하면서 具體的으로 細心하게 考察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은 外務省이 최근 3년동안 「우리나라의 政府開發援助」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ODA에 대한 외무성의 思考方式의 概要이다.

日本은 第 2次 世界 大戰 終結後 9년째인 1954년에 콜롬보·플랜에 加盟하고 우선

주로 동남아시아 諸國에 대한 技術協力에 참가하였으며 또한 同年 賠償協定을 締結한 버어마(미얀마)에 대해 賠償 支拂을 始初로 開發途上國에 대한 政府 베이스에 대한 사실상의 經濟技術協力을 개시했다. 나아가 58년에 처음으로 円借款(180억円)을 인도에 供與했다. 輸出信用, 資源開發投資등 民間 베이스에서의 經濟協力을 이들보다 앞서 일찌기 51년부터 日本 輸出銀行(50년 12월에 설립, 52년 4월 「日本輸出入銀行」으로 改稱)을 통하여 실행되고 있다.

賠償協定은 버어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및 구 남베트남의 4개국과의 사이에서 체결되었으며 또, 소위 賠償法(無償援助)에 관한 協定은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버어마, 한국, 싱가폴, 말레이지아, 미크로네시아(신탁통치지역)와의 사이에서 對日賠償請求權을 포기한 호의에 보답하기 위해 혹은 다른 賠償請求國과의 공평한 均衡을 도모하기 위해, 혹은 財産 및 請求權 問題解決을 위해 혹은 전쟁중의 特別 円請求計算 移越殘高 解消, 血債問題 解消 等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체결되었다. 賠償의 支拂約束 累計額은 약 3,566억円, 76년 7월 필리핀에 대한 支拂을 최후에 完了하고 準賠償의 支拂約束 累計額은 2,453억円(有償 베이스를 포함한다)은 77년 4월 버어마에 대한 支拂을 最後에 완료했다.

政府 베이스에서의 技術協力, 円借款, 賠償 및 準賠償 支拂이라는 日本 援助의 3대 기본활동 즉 技術協力, 有償資金協力, 無償資金協力 等의 實施 메카니즘 整備로 연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日本 兩國間 ODA 配分上 큰 比重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賠償支拂 및 準賠償(無償援助)供與가 있었기 때문에 円借款 供與는 인도로부터 시작되어 이어서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남서 아시아 諸國으로, 그리고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諸國으로 供與되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 円借款 供與가 시작된 것은 60년대 중반부터이고 66년도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67년도에 타이, 68년도에 필리핀 및 버어마에 각각 최초의 円借款이 공여되었다. 이후 동남 아시아 지역의 제국에 円借款의 집중적인 공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동안 61년 3월에 海外經濟協力基金(OECF)이 설립되고, 62년 6월에는 國際協力事業團의 前身인 海

外技術協力事業團(OTCA)이 설립되었다. 66년에는 미국과 나란히 日本을 最大 共同出資國으로 하는 아시아 開發銀行(ADB)을 발족시켰다.

戰後 부흥기부터 고도 성장기인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는 日本에 있어 수출진흥과 각종자원의 확보가 급선무였던 시대이며 賠償, 準賠償 및 이것에 이어 추진된 円借款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목적에 크게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었다.

「經濟協力에 관한 기본정책의 기조는 低開發國의 經濟開發促進에 기여함과 동시에 日本의 經濟發展 方向에 적응하여 수출시장의 확대, 중요 원재료의 수입시장 확보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通産省 「經濟協力의 現狀과 問題點」 58年版)는 것은 당시 日本의 요구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일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진 「經濟協力」은 60년대부터 円借款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실행되었다. 當時 円借款은 條件附(tied)를 당연하다고 하고 있었으나 日本 ODA의 質(贈與比率, 綜合 그랜트·엘리먼트)의 저하가 현재에 이르러서도 의문시 되어 條件附(tied)의 問題가 지적되는 것도 이와 같이 아시아에 대한 條件附(tied) 円借款의 집중적 공여에 의해 크게 신장되어 온 日本 ODA의 특수성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60년대 초반부터 國際聯合에서는 人道的 立場에서의 開途國援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지만 1969년 10월에는 피어슨·캐나다 전 수상을 회장으로 하여 조직된 國際開發 委員會가 70년대의 開發戰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종합 정리한 보고서 (「開發에 있어서의 파트너」)를 IMF·世銀 합동 총회에 보고하고, 그 중에서 援助를 행하는 이유로서 「人道的 考慮」를 특히 강조했다. 「人道的 考慮」가 이후 더 한층 國際的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념으로서 정착되어가게 되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日本의 民間資本에 의한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활동이 더 한층 활발해지고, 그 오우버 프레젠스라고도 일컬어지는 상황은 일부 지역에서 강한 反日 감정을 도출시켰다. 72년 타이에서 발생한 학생 중심의 日本商品 보이콧 운동, 74년 田中 前 首相의 동남아시아 방문시 타이의 反日運動, 인도네시아의 反日폭동은 그러한 감정이 극에 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반일 감정의 폭발에 직면하자 이것을

누그러뜨리고 우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ODA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이 나오게 된다. 즉, 日本의 民間主體 經濟活動이 開發途上國 經濟發展에 크게 공헌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반면 특히 아시아에서는 자칫하면 日本의 經濟的 오우버 프레젠스가 되기 쉽기 때문에 相對國 政府 및 國民의 대일 불만이 높아지고 日本과의 관계에 긴장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日本 ODA가 민간의 經濟활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완수하고 전체로서 相對國 經濟開發에 공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經濟大國으로서의 코스트」로서 필요하다(外務省 經濟協力局 經濟開發 研究會 「經濟協力의 理念--政府開發 援助는 왜 하는 것일까」,1980년)는 사고 방식이다.

73년의 OPEC에 의한 석유 가격 인상과 이에 유발된 선진제국의 스테그플레이션, 74년 國際聯合에 있어서의 新 國際經濟 秩序 宣言 및 國家間의 經濟 義務 憲章의 채택 등 70년대 開發途上國側의 움직임은 世界 經濟秩序 및 구조의 변혁이 임박한 國際經濟에서 큰 힘이 되어 왔다. 각종 자원, 특히 에너지 자원을 가진 「南」 쪽의 입장이 강화되고, 선진공업국측도 남쪽의 중요성을 새삼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일 쇼크의 큰 충격을 받고 日本 ODA의 이념도 어쩔 수 없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經濟的인 상호의존관계가 강조되고, 「經濟安全保障」의 이념이 전면에 강조되어 소위 「資源 外交」를 활발하게 하고 ODA의 양적 확대가 도모됨과 동시에 中東 地方으로의 ODA배분이 비약적으로 확충되었다.

80년 2월에는 맥나마라 世銀 總裁의 제안에 의해 설치된 브랜트 前 西獨 수상을 會長으로 하는 國際開發問題 獨立委員會가 「南과 北--生存을 위한 戰略」(브랜트 위원회보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國際聯合 事務總長에게 제출했다. 이 속에서 보고서는 전기한 것과 같은 사정을 배경으로 하여 「南」과 「北」사이의 상호 의존관계가 높아진 것을 인식하고 開發援助를 비약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세계 평화와 번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로써 「相互 依存關係의 認識」은 「人道的 配慮」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또 하나의 ODA기본이념으로서 國際的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70년대말부터 80년대 초에 이르면 日本의 더 한층의 經濟大國化와 그 영향력의 증

대 및 미국 영향력의 저하를 배경으로 「經濟大國責務論」, 「國際國家責務論」을 낳아 앞서의 經濟安保論에서 한발 나아가 ODA는 日本의 「綜合的 安全保障」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념이 도출되었다. 그 배경에는 日本이 서방측의 일원으로서 지역平和와 安定,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질 것이 추구하게 되고 원조면에서 日本의 對外協力을 추진함과 동시에 ODA를 보다 정치적 · 외교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事情이 있었다. 81년 5월 당시 日本 國務總理가 訪美했을 때 미국측과의 공동성명에 있어서 「世界平和와 安定維持를 위해 重要 地域에 대한 援助를 强化」할 취지를 표명한 所謂 「紛爭周邊國 援助」의 사고방식은 그것이 구체적, 직접적으로 발현된 것이고 타이에 대한 援助가 더 한층 강화됨과 동시에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개입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에 대한 援助가 강화되고 중동에서는 터어키, 이집트에게로의 援助가 강화되었다.

앞서의 「經濟 協力의 理念--政府開發 援助는 왜 하는 것일까」는 인도적 고려와 상호의존 인식의 두가지를 기본이념으로 하면서도 日本의 경우는 ①平和國家로서 세계적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國際 協力下에 世界經濟가 균형잡힌 형태로 발전해 가도록 國際秩序 構築을 추진해야 할 국력에 적합한 공헌을 해갈 필요가 있다. ②經濟大國으로서 다른 先進工業國과의 마찰 및 이것으로 유발되는 정치적 불협화음의 심각화를 피하기 위해 世界 經濟의 운영과 새로운 經濟秩序 構築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나아갈 것이 필요하다 ③각종 자원의 對外 依存度가 높고 수출입의 상대국도 開發途上國이 많다는 취약성을 가지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ODA는 日本의 「綜合的 安全保障」을 확보하기 위한 國際秩序 構築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을 밝히고 있다.

「人道的 考慮」와 「相互依存關係의 認識」을 기본이념으로 하면서도 이와 같이 綜合安全保障論이나 國際秩序 構築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고 중요국 · 지역에 대한 援助强化를 통하여 援助의 전세계화를 추진한 이 시기는 日本 ODA의 性格에 큰 변화를 초래한 시기였다.

같은 81년 봄, 韓國政府로부터 소위 「韓國 據點論」下에 거액의 借款要請이 있었는

데 이것이 防衛分擔이라는 발상에서 나오는 안전보장과 얽힌 援助要請이었던 관계로 인해 국내에 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日本 ODA가 對美협조하에 漸次 所謂 「戰略援助」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개념이 강해지게 되었다.

한편 이것을 전후하여 日本은 ODA의 계획적, 비약적인 확충에 착수하기 시작해 78년에 ODA 3년배증계획을 책정한 이래 오늘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중기목표를 내걸고 円高에 뒷받침되는 바가 컸다고는 해도 착실하게 그 규모를 확대해 왔다.

89년 7월에는 日,美 等 19個國과 世銀, IMF 等 7個 國際機關이 참가해서 多國間援助計劃(MAI)에 대비한 제 1회 회의가 동경에서 개최되고 日本은 필리핀에 대한 援助를 더 한층 강화한다는 의도표명을 했지만 일부에서는 이 援助 計劃은 서방측 제국내에서의 「役割分擔」이나 「貢獻」의 명확화가 요구되고 있는 정치적 해석이 짙은 미국의 역할을 대신 떠맡는 援助計劃이라는 비판을 초래했다. 또 동년 동구 제국에서는 自由와 民主主義, 市場經濟化를 추구하는 변혁이 잇달아, 이들 국가의 개혁을 支援하기 위한 서방측 제국의 협조행동속에서의 「役割分擔」이 요구되고 나아가서는 90년에 발생한 페르시아灣 危機에 수반하는 주변제국으로의 緊急援助 分擔, 페르시아灣 戰爭 以後의 부흥 및 전쟁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은 제국으로의 援助强化 等 激動하는 國際 政勢속에서 日本이 「西方側 國家의 重要한 一員」으로서 갖고 있는 經濟力에 의해 더 한층의 「貢獻」을 실행해야 할 것이 강력하게 要請되기에 이르고 있다.

所謂 「戰略援助」가 의미하는 바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日本이 80년대초부터 받아들여 온 「紛爭周邊國 援助」라는 사고방식도 중미·카리브 지역에 대한 援助强化 또는 對 필리핀 多國間援助計劃 當時의 美國政府로부터의 要請에 응한 「對美 配慮」 이상의 것은 아니었던게 아닐까 하는 견해도 있다. 아마 이것이 적중한 견해일 것이다.

日本에 협조를 구하는 미국으로부터의 要請은 이미 서술한 것처럼 70년대말부터 80년초 이래 계속 강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수년동안 日本의 國際貢獻을 요구

하는 목소리는 더 한층 강해지고 있고 ODA의 비약적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의회에 있어서는 87년 이후 累次 日本이 ODA를 GNP비 3-4%까지 증가할 것을 요구하는 決議案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다. 88년에는 美國下院軍事委員會가 발표한 「防衛 責任分擔에 관한 報告書」에서 방위 지출과 ODA를 합친 액수의 GNP에 대한 비율을 「國際的 責任分擔」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日本의 방위지출은 1.0%, ODA는 0.3%로 합계 1.3%, 미국의 경우는 6.7%와 0.2%로 합계 6.9%, NATO제국의 평균은 3.3%와 6.5%로 합계 3.7% (사사오입으로 인하여 합계 불일치)인 것, 이 미국의 指數를 100으로 했을 경우, 日本은 19에 不過하다는 것 등을 밝혔다. 그 후 상원에서는 88년과 89년도에 잇달아 日本이 1992년까지 ODA와 방위비를 합친 액수를 對 GNP 4%(혹은 NATO 국가 평균까지) 끌어올릴 것을 요망하는 결의와 법안을 可決, 採擇하고 있다.

防衛와 經濟協力을 한데 묶은 움직임으로부터 최근에는 오직 經濟協力의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변해가고 있어, 유일이라고 할 수 있는 黑字大國 日本에 대한 비약적인 ODA 확대요구는 금후로 더 한층 강해질 것이다.

「經濟安保論」으로부터 「綜合安保論」으로 정치적, 외교적 측면을 강화해 오고 있는 日本 ODA는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요구를 받으면서 「蘇聯·東歐」, 「페르시아灣 戰後」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그 경향을 더 한층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第 6 章 效果的, 效率的 援助를 위한 課題

日本은 國際的 責務로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ODA의 확충과 그 질적 개선에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日本의 經濟協力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실시 해나가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도 적지 않다.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특히 組織, 制度의 改善 및 새로운 課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詳細한 援助와 實施體制의 强化充實

日本의 經濟協力에 대해서 지금 가장 요구되고 있는 것은 「보다 細心한 配慮」일 것이다. 이제까지의 經濟協力에 이것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細心한 배려는 하면 할수록 살아있는 生物과 같이 經濟協力도 이것에 의하여 보다 큰 성과를 가져다 준다.

예를들면, 단지 하나의 기자재를 供與한다는 단순한 조건하에서도 細心한 배려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 미리 상대국의 技術水準을 조사하고, 정말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정도의 機資材를 선정한다. 고장났을 때 현지에서 수리할 수 있는지, 維持管理를 위한 組織은 整備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한 뒤에 공여한다. 供與한 뒤 사후관리의 案內까지 들어 줄 정도로 細心하게 하면 현지에서 반길 것이고, 協力이 성공하는 것도 당연하다. 반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고, 제출된 要請書만을 보고, 기자재를 조달하고, 이것을 공여하고, 그것으로 끝, 뒤의 사후관리도 하지 않으면 모처럼 공여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다지 기대할 수 없고, 모처럼의 援助도 쓸모없이 끝나버리게 된다. 細心한 配慮 與否에 따라서 效果는 전혀 달라진다.

研修生 초청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研修生 한사람 한사람의 요구에 대응한 研修를 맨투맨 방식으로 친절하고 細心하게 실행하는 것과, 이미 고정적으로 설정된 研修 過程에 의해 수많은 研修生을 한묶음으로 묶어 研修를 하는 것과는 연수효과도 각 研修生의 인식 방법에도 큰 차이가 생기고 후자의 경우에 여러가지 불만이 나오더라도 무리는 아니다.

病院이나 學校 등의 시설을 建設供與하는 援助의 경우에도 나중에 보수가 필요해졌을 때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資材라든지 공사재료도 조사하고, 현지 공사 관계자의 技術水準이나 현지의 생활습관등도 충분히 조사한 다음에, 평상시의 유지관리에 그다지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건물의 설계를 하면 사용하기 쉽고, 일상경비도 별로 들지 않고, 파손되더라도 현지에서 補修가 가능하므로 그곳 주민들이 반기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이에 반해 야심적인 컨설턴트가 선진국과 견줄 훌륭한 설계를 하고, 건설에 사용하는 材料와 機資材도 선진국에서밖에 조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사용하면 확실히 훌륭한 것이 완성되기야 하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예를들면, 電氣料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처럼의 에어콘을 사용할 수 없다, 바닥에 깐 리노륨이 파손되더라도 현지에서는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파괴를 방치하게 된다, 창의 알루미늄샷시가 파손되더라도 代替品이 없기 때문에 나무틀로 보수하지 않을 수 없다, 형광등의 관이 절단되더라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것은 규격이 다르다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고, 결국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폐를 끼치게 된다.

이처럼 상대방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서 細心한 배려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생긴다. 지금 日本의 經濟協力에 요구되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이 자상함에 있다. 細心한 배려를 하고 진실로 좋은 조건의 발굴에 노력하고, 이것을 실시하고, 나아가 사후관리까지 친절히 해나간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援助를 細心하게 행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전문지식을 가진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援助 規模가 커지면 커질수록 일손이 필요해진다. 이제까지 日本은 오직 ODA의 額數를 늘이고 세계 1,2의 援助大國으로까지 성장했지만, 援助實施體制의 整備, 强化라는 면에서는 그 페이스를 따라잡지 못했다. 關係政府機關에 있어서도 實施機關에 있어서도 일손 부족의 문제는 극히 심각하다.

日本의 經濟協力 안건의 적합여부라든지 效果 등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기에 급급한 사람이 많지만, 그 실시에 직접 종사하는 관계자가 얼마나 가혹한 조건 하에서 밤낮 악전고투하고 있는지, 실시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는 적다. 日本에는 사업 기반의 정비보다도 사업 규모의 확대를 우선시키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면서 미봉책을 반복하고, 간신히 사업경영 기반을 나중에 뒤아 가는 식으로 정비하는 풍조와 국민성이 있다. 經濟協力 實施의 메니지먼트(運營)에 있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다. ODA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메니지먼트의 정비강화는 따라잡지 못하고 이상하게 일손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손 부족은 불가피하게 事業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년간 7천명 이상을 받는 연수사업과 같이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을 취급하는 부문에서는 특히 그럴것이다. 충분한 체제를 정비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수를 점점 늘여가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事業의 질이 점점 저하해 가리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형태의 技術協力에 있어서도 無償資金 協力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援助는 살아있는 事業이다. 더구나 기계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事業이 아니라, 다분히 살아있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면이 많은 事業이고 경험이 얕은 미지의 분야가 많은 事業이다. 따라서 일손부족이 곧 질적 저하와 결부되는 일이 많은 事業이다.

ODA의 「質」的 改善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것은 증여비율을 높히고, 그랜트·엘리먼트를 개선하고, 無條件(untied)化를 추진하는 등의 의미에서의 「質」的 改善이다.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누구든지 기뻐하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細心한 援助라는 의미에서의 「質」的 改善이다. 援助對象國은 넓어질 뿐이고 개도국의 요구도 다양화 하고 있다.

開發에 따른 환경문제 배려 등 새로운 과제로의 돌입도 임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經濟協力의 기획, 입안, 조사로부터 실제 사무를 맡는 외무성을 비롯한 中央 各 政府機關 및 在外公館과 아울러 實施機關인 JICA, OECF의 本部 및 在外(海外) 事務所의 진용은 아직 적정하다고 하기에는 멀고 대규모 확충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정개혁은 공무원의 삭감등을 도모할 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부문에는 적정 규모로까지 증원하는 것을 그 使命으로 하기 마련이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추가적 부분만을 증원검토 대상으로 하는 어프로치가 아니라, 현실 규모의 ODA事業을 적절히 운영관리해 가는데는 도대체 어느정도의 인원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적 견지에서 종합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입각하여 발본적 체제강화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을 게을리하고 ODA실시에 잠재하고 있는 결점, 결함을 일방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것도 사람수만 늘이면 되는 것은 아니다. 開途國 援助에 情熱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스을 양성해야 한다. 현상태로는 開途國의 현지에서 주체적으로 기획, 입안,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시한 안건의 사후관리 또는 팔로우 업에까지는 거의 눈을 돌릴 여유도 없는 것이다.

援助 行政·援助實施를 담당하는 職員數와 ODA의 額의 비율을 다른 DAC 가맹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日本의 원조담당자는 다른 나라의 몇배나 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에 관해서는 일찌기 DAC 事務局이 프레스·릴리스에서 「DAC는 日本政府가……日本의 經濟力에 알맞는 수준으로 援助를 확충할 것을 희망했다.

DAC는 또 계속 확대하고 있는 援助計劃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 충분한 행정경비, 정원을 확보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84년 10월 23일)와 日本의 체제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언급한 異例的인 코멘트를 한 일이 있을 정도이다.

결국 체제의 정비, 강화에 대해서는 國際協力廳이라는 一元的 機關을 새롭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나의 권한을 갖는 獨立 機關을 두고 예산도 인원도 여기에 집중하고, 완결적으로 日本의 ODA 行政을 담당해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 이상으로 바람직한 일은 없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 외교정책과는 불가분의 것이며 窓口一元化를 위해서도 외무성으로 부터 갈라지는 機關에서는 곤란하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問題보다도 오히려 ODA와 관련된 事業은 수많은 政府機關 및 이들 소관업무에 관계하는 公私機關이나 團體, 企業 等의 參加, 支援을 얻으면서 복돋울 수 밖에 없다, 즉 국내행정의 延長線上에서 강화 충실해 갈 수 밖에 없는 日本의 특수성에 있다. 円借款,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을 不問하고 많은 분야의 技術, 노우하우, 情報, 人脈은 「官」에 있고, 이들 「主管官廳」의 協力, 支援이 없으면 해나갈 수 없다. 철도건설, 항만건설 등의 안건이라면 運輸省, 도로건설이라면 建設省, 그리고 병원·의료·보건관계라면 厚生·文部省이라는 식이다. 技術協力 專門家를 派遣하는 데 있어서도 研修生을 招請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

따라서 하나의 독립된 「省」 혹은 「廳」을 두더라도 그것은 OECF, JICA의 직원과 關係 政府機關으로부터 파견자를 많이 갖는 통일성이 없는 집단이 되고, 게다가 여기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소속기관」에 호소해서 指示·支援을 얻지 않으면 실제상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를 수 있고, 종래대로 關係 政府機關에게 대부분을 의존해야 하게 될 것이다. 쓸데없는 짓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여기에서 나온다. 円借款의 4個 政府機

關 體制도 外務, 大藏, 通産, 經企의 各 政府機關이 각각의 입장, 권한에서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체크기능을 수행하는 면이 강하다는 것도 이해되어야 한다.

단, 현재의 체제하에서는 開途國마다 技術協力, 無償 資金協力, 有償 資金協力의 3大機能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援助의 효과를 높혀가는 종합적 조정기능이 강력하지 않다. 국별 정보에 가장 강한 외무성이 국별 정책의 조정, 국별 계획의 입안 등에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技術協力의 充實

日本은 1945년에 콜롬보·플랜에 가맹하고, 아시아에 대한 技術協力을 개시하였으며 30수년간 걸친 노력의 결과 오늘날의 JICA를 중심으로 하는 技術協力 實施 體制를 구축해 왔다. 協力의 실적도 해마다 착실히 늘어나고 있다. 年間 招請하는 研修生의 수도 7천명을 넘는다. 문부성의 국비유학생을 받는 체제도 충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ODA 전체에서 차지하는 技術協力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보면, 다른 DAC제국에 비해서 아직 낮다. 수년이래의 比重은 약 10%에서 12-13%정도에서 推移하고, DAC제국의 평균 21%정도보다 상당히 낮고, 20%대에서 30%대가 많은 구미주요국에 비하면 더욱 낮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각국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옛날부터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수가 많은 國家이고, 또한 다수의 英語와 佛語 敎師의 海外派遣을 技術協力으로 카운트(看做)할 수 있는 國家이다. 海外領土나 舊植民地 國家에 정착하여 行政機關으로부터 공장현장 등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에 걸친 현지 지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技

術協力으로 계산할 수 있는 國家이다. 이들 國家와 日本의 경우를 단순히 비교해서 日本의 技術協力이 아직 작다고 비판하는 것은 조금은 가혹하고 무리가 있을 것이다.

日本이 技術協力을 크게 늘려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서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언어 문제가 있다. 英·美·佛의 경우처럼 自國語로 技術指導가 가능하다면 대단히 편리하겠지만, 日本人에게 있어서 외국어를 구사해서 지도한다는 것은 실로 쉬운 일이 아니다. 언어상의 핸디캡은 海外에 파견하는 전문가에 대한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日本 國內에서의 研修員이라든지 유학생의 지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다음에 日本國內에 있어서 好景氣와 完全雇用에 가까운 고용상황이 있다. 조건이 엄격한 개도국까지 일부러 나가지 않더라도 활동할 곳은 어디에나 있고, 또 관민을 불문하고 빠듯한 인원배치로 일상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海外派遣」에도 「國內指導」에도 인원을 할애할 餘裕가 없다.

技術協力의 확충강화라고 하면 곧 「專門家의 養成·確保」라는 發想이 나오기 쉽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日本人의 국제성의 문제이고 日本語의 문제이며 정원제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技術協力의 주체는 「사람」이다. 「유학생」, 「연수생」, 「파견전문가」, 「컨설턴트」 등이다. 統計上 技術協力을 늘리는 것은 이런 사람의 수를 늘리든지, 우대를 해서 技術協力費를 늘리는 것이다. 상기한 것처럼 日本의 경우에는 갖가지 제약조건이

있지만, 이것들을 전제로 하면서 技術協力을 더 한층의 확충하고 질적개선을 도모해 나아가야 한다.

장래 유망한 개도국의 청년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여 日本에서 배우고, 연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도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將來 日本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유학생 대책은 技術協力 擴充 가운데 가장 重視되어야 할 것이다.

연수생 초청에 대해서는 對日理解·友好增進 等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이나 단기간의 세미나 등을 최소한으로 하고, 開途國 마다의 참된 요구에 입각한 실질적 효과가 있는 研修를 차분히 장기간에 걸쳐서 實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完全雇用」下에서 인원을 技術協力에 할애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技術協力에는 「실업」부분을 활용한다는 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日本國內에서 이용도가 저하된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개도국을 위한 研修프로그램을 짜는 일은 되도록 피하고, 開途國側의 요구를 最優先視 하여야 한다. 研修의 성과를 가능한 한 상세하게 추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다 효과적인 研修 프로그램 책정과 결부시켜 가는 것도 필요하다. 양적 확대에 노력한 나머지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된다.

研修生을 받아들여서 지도해 주는 機關, 企業 等에 대한 報酬에 상당하는 관리비의 증액 등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일도 절실해지고 있다. 전문가 파견에 관해서는 그 노고에 보답하는 어떤 제도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자연환경, 생활환경이 혹독한 개도국에 가서 技術協力에 몸바치는데도 아무런 보답도 없다고 해서는 專門家도 늘어나지 않는다. 승진·승격·승급 등에서 특별대우라든지 연금지급상에서의 특별배

려나 사회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資格 制定 等,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여야 한다.

3. 專門家의 養成·確保

83년 10월 JICA는 그 附屬機關으로서 國際協力 綜合研修所(東京谷市, 經濟協力센터 빌딩내)를 發足시켰다.

이 研修所는 주로 技術協力을 라이프워크로 하고 싶다는 의욕을 가진 專門家의 양성을 의도하여, 이를 위한 研修와 技術移轉에 관한 調査研究, 情報의 수집이나 정리 등을 하고 있고, 특히 開發途上國에서는 아직 요구가 높지만 日本國內에서는 蓄積이 부족하다든지 이미 과거의 것으로 되어버린 기술분야의 專門家나 經濟技術協力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제너럴리스트적 專門家, 프로젝트 발굴로부터 그 디자인, 事後 評價에까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專門家 等을 양성하려 하고 있다.

JICA에 의한 公募, 選拔試驗에 합격한 수십명의 우수한 사람들이 이미 同研究所를 거점으로 해서 해외로부터 온 연수생의 技術指導에 임하거나, 각종 調査研究에 종사하거나, 經濟協力 案件의 평가에 종사하고 있다. 이 새로운 研修所는 通常 一般 專門家라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높은 水準의 人材 養成·確保를 지향하고 있고, 그 선발시험은 대단한 難關으로 되어 있지만, 青年海外協力隊 隊員으로서 혹은 派遣 專門家로서 해외에서 귀중한 經驗을 축적하고, 성과를 거둔 우수한 人材를 軸으로 해서 금후 크게 발전, 성장해 갈 것이 기대된다.

開發途上國에 대한 技術協力은 이른바 異質的 文化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다분히 이질적인 것을 인프트하는 것인만큼, 여기에 종사하는 人材는 고도의 知識과 才能과 經驗이 요구된다. 예를들면, 벼농사 중심인 농업관계 프로젝트라고 해서 日本의 독자적 벼농사 기술의 專門家나 일본식의 普及 技術의 專門家

를 파견하는 것 만으로는 반드시 순조롭게 잘된다고 잘라 말할 수 없다. 이들 專門技術외에 프로젝트의 현장 주변에서, 넓게는 그 나라 전체에 대한 人文, 社會科學的 特殊性도 연구하고 이해할 능력이라든지 專門知識을 갖고, 현지 관계자와 交涉하고, 설득할 능력 등을 충분히 갖춘 專門家가 있을 때 비로소 프로젝트를 원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고도의 제너럴리스트로서의 專門家가 필요해진다.

이것은 오직 技術協力에 한정하지 않고 無償 및 有償의 자금협력 안건 등 모든 것에 관해서 말할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專門家의 養成은 극히 시기에 적합한 것이다. 한편 이것과 병행해서 專門知識의 조직적인 活用을 도모하는 길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콘설턴트의 育成, 强化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日本의 콘설턴트는 아직 기술면에 偏重된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고, 정말 효과적인 참된 요구에 입각한 援助라는 점에 있어서는 각 나라나 지역에 정통한 人文科學界, 社會科學界 專門家의 지식에 의존해야 할 경우가 많다. 日本에는 인도네시아나 타이나 필리핀 등의 專門家도 적지 않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학자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람들도 그 專門知識人으로서 日本의 經濟協力에 참가할 수 있는 탄력적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經濟協力의 事前 評價와 事後의 評價에 있어서도 특히 이와같은 專門知識이 필요해 진다.

다른쪽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일찍부터 開發援助問題에 종사하는 人材養成이라든지 연구를 위한 체제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대학에 있어서도 援助要員의 育成이 행해지고 있다. 미국의 하버드大學 國際開發研究所라든지 영국의 서섹스大學 開發問題研究所 등이 저명하다.

日本에서도 80년대 중반 무렵부터 援助關聯의 人材育成을 위한 「國際開發大學」을 설립해야 한다는 구상이 제창되어, 學識經驗者 등으로 작업위원회에 의한 검토를 거쳐, 우선 「大學」 구상 具體化를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하나의 組織으로서 財團法人을 설립하게 되었다. 90년 3월에 外務·文部 兩省共管의

공익법인으로서 설립된 「國際 開發 高等 敎育機構」(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 FASID)가 이것이다. FASID는 앞의 JICA의 硏修所와는 약간 그 기본 목적을 달리하고, 援助스, 그 중에서도 특히 開發 計劃이나 援助의 메니지먼트에 종사하는 고도의 인재를 육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90년 4월부터 ① 援助 스의 연수사업, ② 國際 심포지움 개최, ③ 데이타베이스 정비, ④ 조사 연구 위탁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연수사업에서는 在外公館 經濟協力 擔當官이라든지 JICA 등 정부관계 기관 직원이나 민간 원조관계자, 국제기관 일본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실시나 원조관련 연구자의 해외 대학에 대한 파견등을 행하고 있고, 심포지움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관의 원조관련 실무자라든지 연구자를 초정해서 각종 화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또 데이타베이스에 대해서는 국내외의 원조관련 연구실적, 연구자, 고등교육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등에 대한 데이타의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 통산성도 이것과는 별도로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시설을 사용하고 開途國의 經濟開發이라든지 援助의 專門家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시아 경제연구소의 주임연구원이나 해외의 제휴대학으로부터 교수가 개발경제, 지역연구 등 대학원 수준의 敎育을 하는 「아시아 經濟硏究所開發 學校」를 90년 10월에 발족시키고 있다. 이쪽은 동남아시아 등 開途國에서도 수강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종류의 開發問題의 인재육성이라고 하면, 日本에서는 곧 하버드나 서섹스 등 변함없이 구미의 대학 등으로 유학생을 파견하기는 쉽다. 이제까지 유학생으로 파견된 사람은 꽤 많다. 開發 이코노미스트 등으로 불리는 하이레벨의 인재 육성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지금 日本에 필요한 것은 開途國마다 혹은 지역마다 專門家의 육성·활용하고, 연구하고, 정보축적이다. 언어도 문화도 역사도 중요하다. 이들의 전문지식 없이 유효한 開發協力은 어렵다. 좀더 지역연구에도 힘을 기울이면서 JICA의 종합 연수소 및 장래의 國際 開發 大學이 넓게 관계 정부기관, 대학, 민간조직, 기업 등의 支援도

받고, 권위가 있는 세계적인 기관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4. 새로운 課題에 대한 對應

80년대에 들어오면서 ODA와 관련해서 더욱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문제로 「開發과 環境」의 문제와 「開發에 있어서의 女性」의 문제 2가지가 있다. 아무튼 국제적 회의의 장에서도 큰 문제로서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다.

가. 開發과 環境

先進工業國은 어디든지간에 공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의 公害와 자연환경 파괴를 야기했다. 日本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심각한 公害問題, 環境破壞問題에 직면했다.

ODA공여에 의한 開途國 開發에 있어서도 환경면에의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오히려 둔감했다. 여러 면에서 엄한 비판이 제기되고, 開發과 환경문제와의 절충을 중요시하게 되고, 89년 7월의 알슈·서미트에서도 90년 7월의 휴스턴·서미트에서도 環境問題가 중요의제의 하나로 될 만큼 「環境」은 國際的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빈곤에 허덕이는 開途國에 있어서는 環境보다도 開發을 우선시키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開發」보다도 「環境」을 우선해야만 한다는 것은 이미 環境을 희생해서 開發을 추진해 온 선진국측의 에고(이기주의)라고도 받아들여진다. 「環境」에 너무 구애받아서는 經濟開發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강한 목소리가 있는 반면, 현지 주민의 강한 반대로 開發계획이 중지된다든지 동결된다든지 하는 예도 나오고 있다. 쌍방의 조화·양립을 도모하는 것은 쉽지 않다. 開發은 반드시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만큼, 결국은 開發이 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잃어버린 環境을 회복하면서 開發을 촉진하게 된

다. 양국간 ODA에의한 環境과 관련된 프로젝트의 실시에 있어서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環境배려」 문제이고, 하나는 「環境에 관련된 事業」의 추진이다.

「環境배려」는 특히 댐이라든지 도로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환경어세스멘트)를 실시하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 OECD환경위원회는 DAC의 協力을 받고 85년에 「開發협조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고, 援助프로젝트를 실시할 때는 가능한 한 조기 단계에서 환경상의 어세스멘트를 행하도록 권고했다. 89년에는 開發援助에 있어서 環境체크리스트가 승인되고 있다. OECF에서는 89년 환경문제 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환경배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환경배려에 착수하고 있다. 문제가 있을듯한 안건에 대해서는 현지로 조사단을 파견하거나 계획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JICA에서도 본부 및 재외사무소에 환경배려 담당자와 섹션을 두고, 특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 단계에서 環境專門家를 조사단에 포함하여 그 의견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88-89년을 경계로하여 「環境」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금까지보다도 더 한층 개선되고 있는 것 같다.

「環境에 관련된 事業」으로서는 공해대책,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임업·森林保全, 폐기물 처리 등의 事業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해대책」으로는 專門家 파견이나 연수원 초청등에 의한 技術協力 이외에 無償資金협력에 의해 환경연구 연수센터(타이), 환경 보호센터(중국)등의 대규모 선진적 시설을 건설하고 技術協力도 아울러 실시하는 協力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도 많다. 이와같은 協力으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의 상황을 첨단계측기기를 사용해서 계측하는 技術을 이전하고, 기술자를 육성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간 중에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염·오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공해 발생원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이 되면 곤란한 문제에 직면한다. 배연 탈류 장치처럼 공

해방지 장치의 技術의 대부분은 民間企業에 의해서 開發되어, 기업이 소유하는 고가의 技術이고, 장치도 고가이기 때문에 開途國에 있어서는 용이하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일반적으로 벌칙을 동반하는 법적규제가 없는 한 開途國의 기업 등이 고가의 공해방지 장치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리도 없다. 開途國에서의 공해문제에 대한 착수는 계발·계몽으로부터 법적규제도 포함한 종합적 어프로치가 필요해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開途國側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國際協力은 주권국가의 평등의 원칙에 기인해야만 하고, 환경배려라는 이유에 의해서 開發途上國의 내정에 간섭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援助의 조건 설정 등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途上國은 環境과 開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충분한 새로운 추가적 資金과 특혜적이며 비영리적인 조건의 기술적 이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91년, 환경회의 「북경선언」)라는 태도가 강하다. 게다가 공해대책 분야는 日本에서도 아직 專門家 수가 대단히 한정된 분야이고, 중요성은 이해되기 쉽지만, 현실적으로 開途國에 대한 광범위한 協力을 전개해 가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日本은 89년의 얼슈·서미트에서 「89년부터 3년간 3천억엔 정도를 목표로 환경분야의 양국간·다국간의 援助를 확충·강화한다」라는 취지를 표명한 가운데 日本은 熱帶林 등의 삼림보전과 開途國의 환경문제 대처 능력 향상의 두 항목을 중점사항으로서 다루고 있다.

나. 開發과 女性(Women in Development : WID)

UN은 세계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착안하고, 女性의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관점에서 75년을 「국제여성의 해」로 하고, 76년부터 10년 사이를 「UN女性의 10년」으로 정하고, 여성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세계적으로 전개했다. 85년에는 나이로비 세계회의를 개최하고, 서기 2000년을 향해서 「女性의 地位向上을 위한 將來 戰略」을 채택했다.

「開發」과 관련해서 開途國에서는 실제 開發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

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이 女性인 경우가 많다는 開發에 대한 女性의 입장에서의 반발, 반성을 배경으로 해서 開發에 따른 불이익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開發計劃段階에서 女性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할 것, 開發에 女性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킬 것 등, 그럼으로써 女性의 지위향상과 복리 향상을 도모 할 것, 따라서 開發을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강해지고, 오늘날 「ODA에 있어서의 WID」라는 사고방식으로 발전해 갔다.

日本에서는 아직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지만, 원래는 70년대 초부터 스웨덴, 노루웨이, 덴마크 등 유럽의 선진적 여성단체 활동이 이들 국가의 정부를 움직여 온 것으로 국제적 원조의 세계에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중요한 과제로서 인식되어 왔다. DAC에서는 83년에 「開發에 있어서 女性의 역할 지원을 위한 가이딩·프린시플」을 채택, 89년에는 그 개정판을 채택하고, 가맹국에 대해서 원조정책의 기획·입안·실시·평가 전과정에 女性의 참가를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OECF에서는 WID 담당자를 배치하고, WID 가이드라인 작업위원회를 두고, OECF 독자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JICA에서도 90년 2월 「開發과 女性」원조연구회를 설치 WID문제의 기본적 착수 방침을 검토, 91년 3월 그 제언을 정리했다.

지금까지의 ODA에서도 생활개선 보급이나 간호, 가족계획 등의 技術協力이나 간호학교 건설, 농촌 식료수 공급 관련 안건 등의 無償資金 協力이 약소하기는 하지만, 女性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실시되고는 있다. 日本의 ODA가 구체적으로 女性의 시점에서 어떻게 프라스가 되고 있는지, 반대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 그 평가, 검증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져야 하고, 그 결과를 살린 효과적 원조를 실시해 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

(註) 농기구 도입으로 갑자기 女性이 탈곡, 정미 등의 농작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상류에 댐이 건설되었기 때문에 女性이 생활용수를 구하러 아득히 멀리

까지 나가지 않아도 되는 등의 예를 들수 있다.

5. 開發敎育의 充實

먼저 NGO의 부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西歐諸國의 경우에는 종교상의 영향이 있고, 오랜 식민지 경영의 경험도 있고, 국내외를 불문하고, 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옛날부터 길러져 왔다. 이러한 事情을 背景으로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정부차원 원조활동에 선행되어 왔다. 이에 대해 日本의 경우는 이와같은 종교적, 역사적 배경도 없고 제 2차 대전후가 되어 겨우 정부베이스의 開發途上國援助가 시작되었을 뿐으로, 국민일반은 극히 최근까지 國際的 「援助」라는 것과는 거의 인연이 없었다. 민간의 활동이 활발해진 것도 불과 요즘 수년이래의 일이다.

84년부터 85년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전개된 아프리카 구원활동은 대부분의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의 것이 되고, 많은 현금이 기부됨과 동시에 백수십만枚나 되는 모피가 전국 국민으로부터 보내졌다. 이 성과는 협조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만 하면, 국민은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선의의 구원활동에 나선다는 것을 나타낸 획기적 사건이었다. 또 다수의 국민이 이제까지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인 적도 없었던 기아에 허덕이는 먼 아프리카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와같은 구원활동을 일으켰다는 경험은 설령 一過性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해외원조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나아가서는 國際性을 높이는데에 적지않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해도 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와같은 시행, 경험과 거기에서 배운 교훈을 통해서 일본 國民의 國際性이 서서히 고조되고, 해외원조에 대한 이해도 깊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지만, 日本을 둘러싼 엄격한 국제환경 속에서 ODA야말로 日本이 국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몇개 안되는 수단의 하나이며, 이것을 국제적 책무

로서, 앞으로도 한층더 적극적으로 확충해가야 하는, 日本으로서는 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이해와 지지를 보다 직접적으로 얻는 것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그러기위해 학교교육 단계부터 널리 사회교육 수준에 까지 미치는 「開發敎育」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각종 여론조사 결과 등에서도 開途國 援助의 필요성을 대다수의 국민은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지지하고, 그리고 「人道的 考慮」와 「相互依存 關係의 認識」이라는 援助의 일반이념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국민 일반으로 부터의 큰 반발과 비판에 부딪히는 일도 없이, 주로 政府部內의 노력으로 순조롭게 ODA를 늘여 갈 수 있었지만, 금후도 더욱 확충해 가기 위해서는 ODA에 대한 마이너스의 이미지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그 효과적·효율적인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함과 동시에 日本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평화와 번영속에 생존해 가기 위해서 당연히 짊어져야만 할 국제적 부담으로서 ODA의 중요성을 종래보다도 더 국민일반에게 啓蒙해 갈 필요가 있고, ODA가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 이와 같은 過程을 통해서 ODA의 효과적 추진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라든지 국민의 국제성 향상에 대해서도 계몽해 갈 필요가 있다.

「北」側의 선진제국과 「南」側의 開發途上國 사이에는 발전단계에 큰 격차가 있고, 「南」側이 「北」側에 비해서 얼마나 빈곤한 상황에 있는지, 그 격차가 어떻게 해서 초래 되었는지, 그 빈곤한 상황을 방치해 두는 것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어떻게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과 동시에 「北」側의 평화와 번영은 「南」側의 평화와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것, 그중에서도 日本은 특히 무자원국으로서 각종 자원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南」側으로부터 받음으로써 비로소 생존해 갈 수 있는 것, 「南」側이 日本의 큰 시장이기 때문에 日本의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南」側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日本이 손을 빌려주는 것은 「南」側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실은 일본 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인 것, 그러므로 日本은 금후 더욱 더 開發援助를 확충해 갈 필요가 있는 것 등을 學校敎育 段階에서 상세히 敎育해 갈 필요가 있고, 一般社會人에 대한 어필도 강화해 갈 필요가 있다.

日本에서는 아직 「開發敎育」이라는 언어자체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또 그 정의도 반드시 명확치는 않지만, 유엔에서는 「제 2차 유엔開發의 10년(DD Ⅱ)가 개시되기전 1970년에 「각국 정부는 각각 자국의 국민에 대해서 開發문제에 관한 이해를 구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총회에서 결의하고 있다.

이 開發敎育(Development Education)이라는 用語는 1960년대 후반부터 주로 歐美諸國이나 일부의 國際機關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槪念은 원래 옛날부터 민간 원조 조직이 발달한 북유럽국가와 네덜란드(네덜란드의 NOVIB는 특히 著名)등에서 생겼다고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開發敎育」과 NGO와의 연결에는 역사적인 것이 있다.

외무성은 86년에 「開發敎育 硏究會」를 설치하고, 開發敎育 본연의 자세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그 보급·실시에 관해서 구체적 제언을 했다. 88년 7월에는 그 제언의 하나에 입각해서 「開發敎育情報센터」를 발족시켰다. 센터는 開發敎育과 開發문제에 관한 情報나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 외에 기관지 「開發敎育情報」를 발행하고· 또 년 1회 「開發敎育 推進連絡會」를 개최하고, NGO, 학교교육 관계단체, 사회교육 관계단체 등의 관계단체와 제휴를 도모하고 있다. 또 87년부터 10월 6일을 「國際協力의 날」로 설정하고, 매년 이 날을 중심으로 해서 심포지움과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開發援助에 대한 이해, 인식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0월 6일은 1954년 이날에 日本이 콜롬보·플랜에 참가하고, 아시아 제국에 대한 技術協力을 개시한 것을 결정한 것에 연유한다.

終章 - 다시 對 네팔 援助에 대하여

序章에서 네팔에 대한 日本 援助의 개략을 설명하고, 지금 日本이 이 나라에 대한 큰 援助國인 것에 대해서 다뤘다. 년간 수십억엔에 이르는 無償資金援助에 의해 여러 시설이 건설되거나, 食糧增産 관계의 機資材 등이 조달되거나 하고 있다. 円借款에 의해 수력발전소도 건설되고 있다. 년간 수십명에 달하는 연수원 초청을 비롯한 技術協力도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日本의 NGO에 의한 원조활동도 이 나라를 위한 것이 많다. 歷史的으로도 地政學的으로도 여하한 정치적 야심을 갖지 않는 입장에 있는 日本에 대한 이 나라의 期待에는 큰 것이 있고, 이 나라 사람들이 日本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두드러진 것도 이와같은 日本의 큰 經濟協力에 기인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一人當 GNP가 日本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극빈한 이 나라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人道的·道義的 配慮」에 입각하여 금후도 重点的 援助對象國의 하나로서 援助를 계속해 가야 한다.

일본 속어에 「네팔·광(狂)」이라고 할만큼 이 나라와 그 국민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 開途國 중에서는 그밖에 그다지 예를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이나라의 역사와 풍토에 日本人이 강하게 끌리는 점이 있고, 거기로부터 옛날 좋은 시대의 日本의 환영을 보고, 또 소박하고 인정이 풍부한 상냥한 사람들에게 끌린다는 것이 대부분의 日本人을 네팔 편애자로 만들고 있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이 나라는 현실적으로는 장래의 전망도 서지 않은 채 해마다 외부로부터의 援助에 대한 依存度를 높혀 갈 뿐으로 經濟도 정체된 채로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의 開發計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 나라에 대한 援助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묻더라도 누구나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卷末에 이르러 平素 援助에 대해 생각하는 것 중 두 세가지를 적고 本書를 끝내기로 한다.

우선 援助를 주는 側으로서 日本과 이것을 받는 側으로서의 네팔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싶다. 우리들은 「日本은 네팔에 있어서 최대의 援助國이다」라고 적극적으로 PR하고, 네팔은 「이것을 높게 평가하며 따라서 對日 감정도 대단히 양호하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援助를 공여하는 側과 이것을 받는 側과의 관계는 그렇게 單純한 것은 아니다. 입장을 바꿔서 우리들이 援助를 받는 側에서 보고, 援助를 받는 것에 대한 고통을 염두에 두면서 「援助」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독립심, 자존심이 강하고, 자긍심이 높은 사람들이나 민족에게 있어서는 본래 타민족으로 부터 援助를 받는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고, 때로는 굴욕감이 들기조차 할 것이다.

직접 행정에 종사하는 정부관계자에게 있어서 외국으로 부터의 援助에 의지할 필요를 충족해 가는 길을 취하는 것은 극히 안이한 방법이고 손쉬운 方法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政府로서의 입장으로 이것을 평가하고 사의를 표하는 것도 또한 당연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일반國民은 어떠할까. 저 병원은 어느 나라의 援助, 저 學校는 어느 나라의 援助, 저 道路는 어느 나라의 援助 등등 온갖 프로젝트가 외국원조에 의한 것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가.

자기 나라가 외국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더구나 그것이 단기간의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援助에 의지하는 體質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안다면 그 국민은 어떤 의식을 갖게 될 것인가? 자립에 대한 의식조차도 위축시켜 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와같은 입장에 두고 보아, 그 입장과 심정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서부터 진실로 유효한 協力, 참된 요구에 입각한 환영받는 援助가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

「援助를 해주고 있는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다.」라는 발언을 하는 사람과 종종 만난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떤 援助를 어떤 짜임새로 공여하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덧붙여 말하자면, 우리는 日本이 世界最大의 援助國이 되었다고 자랑하거나 거만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對外 援助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開途國의 덕택이기도 하며 開途國의 희생에 의해 오늘날의 번영을 구축하고 있는 면도 크다. 「援助해 준다.」라는 발상은 옳지 않다. 또 오만한 자세로 원조대국론을 떠들어 보아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을 쓸데없이 자극하고, 반감을 낳고 거듭되는 원조 확대를 요구당할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지 사람들은 엄격한 눈으로 외국으로부터의 援助를 본다.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진행하는 안건인지 하는 것을 의외로 잘 알고 있다. 글자를 읽을 수 없어도 所謂「所聞」으로 널리 전달되어 간다. 그것이 좋은 援助인지 아닌지도. 따라서 우리는 그들, 말없는 일반 국민의 평가에 견딜 수 있는 援助를 해야만 한다. 실시 수속에 있어서도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 그 렇지 않으면 援助는 적절히 평가되지 않고 신뢰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다음은「自助努力」에 대한 것이다.

극빈한 LLDC로서 이 나라에 대해서는 國際的으로 자조노력을 강하게 요구하려 하지 않는 풍조가 있다.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자조노력을 강

하게 요구해 가는 것이 도리어 친절한 방법임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LLDC이기 때문에 로컬·코스트도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전부 대주는 援助를 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른 생각이 아니다.

이 나라의 정부예산은 크게 나눠서 一般行政豫算과 開發關係豫算 두가지로 성립되어 있고, 後者는 외부로 부터 받는 援助를 기대하고서 한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내부에는 신규開發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양국간 또는 국제기관의 援助에 의지하려는 사고방식이 깊이 뿌리를 내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A國은 얼마 만큼 援助를 줄 것인가, B國은 이만큼 援助를 줄 것인가 하는 견적을 기초로 한 예산이 開發關係豫算이다. 절망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빈곤한 이 나라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정부의 상태도 끊임없이 동정해야만 할 점이라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당연시 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어느 정도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이한 外國援助依存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 해 가는 방향을 지향해야만 할 것이고, 日本의 援助는 그것을 염두에 둔 援助이어야만 할 것이다.

貧困, 人口增加, 環境(森林) 파괴라고 말하는 ODA가 직면한 중요 과제 모두를 안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들이 ODA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場을 제공해 주는 나라이다. 단순히 ODA 供與對象國 중 의 한나라로서가 아니라, 이와같은 견지에서 진실하게 취급할 가치가 있는 나라이다. 自助努力을 강하게 요청하면서 진심으로 이 나라를 돕고 싶은 것이다.

다음은 日本의 調査·研究 制의 정비 문제이다. 네팔에 대한 日本의 援助도 상당한 실적과 경험을 갖고 있다. 파견된 專門家와 협력대 대원의 數도 꽤 늘어간다. 그러나 이와같은 사람들이 얻은 귀중한 경험과 情報를 축적하고, 이것을 유효하게 활용할 체제가 만들어져 있지않다. 관청측에도 실시 기관측에도 거기까지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귀중한 情報와 提言을 살리지 않고 묻어둔다. 새로운 안건을 위해 파견되는 조사단은 변함없이 基本的인 것부터

듣는 조사를 시작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한다. 「풀 뿌리」로 부터의 情報와 提言을 중요하게 하지 않고 좋은 援助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쌀농사 하나만 보더라도 네팔에는 네팔다운 쌀농사의 긴 역사가 있고, 복잡한 토지제도가 있고, 촌락마다 규정과 관습이 있고, 그들나름대로의 技術도 갖고 있다. 日本이 이제부터 經濟技術協力을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해 가기 위해서는 원조실시기관에 있어서 나라마다의 전문 담당자를 배치하고, 귀중한 情報를 사용하기 쉽도록 축적하고 이것을 유효하고 확실히 활용해 가는 체제를 반드시 확립해야만 한다.

다음은 「人材養成」을 위한 援助에 대한 것이다.

최근 네팔은 겨우 혁신을 요구하는 민중의 염원이 이루어지고 민주화로의 걸음을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지만, 經濟的으로는 장래의 전망에 관해서 밝은 전망도 나오지 않고 국민은 운수가 꽉 막힌 가운데 오로지 인내로 견디고 있다.

日本은 序章에서 말한 것처럼 꽤 다방면에 걸친 援助를 실시하고, 그들은 그만큼 효과를 거두고 이나라를 위해 큰 공헌을 했음에는 의심이 여지가 없다. 그러나 나라 발전의 기초는 바로 「人」에 있다. 장래를 위탁해야만 하는 젊은 사람들이 활력과 희망에 충족되어 풍부한 독창성을 갖고 나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네팔의 國家 建設에는 이와같은 사람들의 창조성을 살려야만 한다.

이 나라에는 꽤 확실한 관료체제가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도 아직 충분히 강력한 테크노크라트는 육성하고 있지 않다. 종합적, 효과적인 국가건설의 플랜도 세우기 어렵고, 日本에 대한 원조요청도 단편적, 산발적으로 나오고 日本도 이들 가운데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선정해서 援助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日本이 이 나라의 종합적인 開發計劃參與를 擴大하고 이 나라의 젊은 사람들의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크다.

技術協力은 모두 人材養成을 통한 것이고, 예를들면 토리부반大學 醫學部에 대한 日本의 無償資金協力, 技術協力도 醫療從事者의 養成이라는 점에서 인재양성 프로젝트 자체와 다르지 않고, 이와같은 技術協力에 한층 충실강화를 도모해야만 하지만, 동시에 國費留學生을 받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다. 自然科學, 社會科學, 人文科學, 各分野에 널리 留學生을 받고, 그들이 장래 조국의 국가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協力하는 것의 意義는 크다. 이 나라에서는 醫師 중에 蘇聯에서 배운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미 말했지만, 중앙관청에서도 소련유학 경험자가 많이 있다. 日本이 공여한 엔차관으로 만든 2개의 水力發電所도 실은 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日本은 최대의 援助國이라고 말하면서 유학생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 네팔에 최초의 해외유학생을 파견한 나라가 日本이었다는 오랜 역사도 있는 양국 관계에도 맞지 않는다.

네팔에는 굉장한 五層塔이 있다. 日本의 탑이 기원이라고 한다. 日本의 축제에서 볼 수 있는 山車(축제 때 끌고다니는 장식한 수레)와 같은 것이 네팔에서도 축제 때에 등장한다. 산스크리트의 영향으로 같은 單語가 日本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란 적도 적지 않다. 「世話」라는 말도 그 하나이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그리고, 거기에 사는 소박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또 미래가 있는 젊은 사람들이 진실로 조국의 발전에 눈뜨고, 국가건설을 위해 강력히 전진해 줄 것을 마음으로 부터 기대하고 싶다. 그와 같은 國家建設, 人材養成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원조자체가 日本에 요구되고 있다.

資　料　編

目　　次

1 開發途上國

(1) 世界銀行에 의한 各國의 分類(88年)

(2) LLDC 41개국 一覽(90年)

2 貿易面에서의 依存關係 -생략

(1) 主要先進諸國의 對開發途上國 貿易 (89年)

3 일본과 DAC諸國의 政府開發援助

(1) 일본의 經濟協力實績 (79-89年, DOLLAR)

(2) 일본의 경제협력실적 (79-89年, 円)

(3) DAC 주요국의 ODA실적의 推移 (78-89年) -생략

(4) DAC 주요국의 ODA실적의 推移 (指數) (80-89年) -생략

(5) DAC 諸國의 ODA 對 GNP比 (88-89年)

(6) DAC 諸國의 국민 1인당 ODA 負擔額 (88年)

(7) DAC 諸國의 ODA質的 比較 (87/88年)

(8) DAC 諸國의 ODA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88-89年)

(9) DAC 諸國의 ODA 形態別 比較 (88年)

(10) 일본의 경제협력실적 (주요선진국과의 비교) (88-89年)

(11) 주요선진국의 兩國間 ODA 重點供與國比較 (88年)

(12) 주요개발도상국의 ODA受援狀況 (88年)

(13) 日本 兩國間 ODA의 地理的 配分 (80-89年)

(14) 日本 兩國間 10대 供與國 · 供與額의 推移 (70-89年)

(15) 日本 兩國間 ODA 所得階層別配分 (87-89年)

(16) 일본 ODA 事業豫算의 推移 (80-90年)

(17) 일본 ODA 사업예산 財源別 內譯의 推移 (80-90年)

(18) 일본의 有償資金協力

(i) 円 借款 分野別 供與實績의 推移 (87-89年度)

(ii) 円 借款 10大 供與國 (84-89年度)

(iii) 89년도까지의 累計로 본 円借款의 15大 供與國

(iv) 円 借款 調達方式別 實績의 推移 (85-89年度)

(v) 円 借款 形態別 供與實績 (86-89年度)

(vi) 政府直接 借款의 承諾額·實行額·貸付殘高의 推移 (79-89年度)

(19) 일본의 無償資金協力

(i) 無償資金協力地域·形態別實績 (89年度)

(ii) 無償資金協力의 10大供與國 (84-89年度)

(20) 國際機關에 對한 日本의 經濟協力 (83-88年度)

1. 開發途上國

(1) 世界銀行에 의한 各國의 分類(1988년)

(i) 先進工業國 (19個國)

국 명	1인당 GNP	국 명	1인당 GNP	국 명	1인당 GNP
스페인	7,740	네덜란드	14,520	스웨덴	19,300
아일랜드	7,750	오스트리아	15,470	미 국	19,840
뉴질랜드	10,000	프랑스	16,090	노르웨이	19,990
오스트레일리아	12,340	캐나다	16,960	일본	21,020
영국	12,810	덴마크	18,450	스위스	27,500
이탈리아	13,330	서독	18,480		
벨기에	14,490	핀랜드	18,590		

(ⅱ) 개발도상국 (95개국)

국 명	1인당 GNP	국 명	1인당 GNP	국 명	1인당 GNP
① 低所得國		북예멘	440	파라구아이	1,180
(480$ 미만)		인도네시아	440	튀니지	1,230
(42個國)		모리타니아	480	터어키	1,280
모잠비크	100	수 단	480	페루	1,300
이디오피아	120	아프가니스탄	…	요르단	1,500
차드	160	미얀마	…	칠레	1,510
탄쟈니아	160	캄보디아	…	시리아	1,680
방글라데시	170	리베리아	…	코스타리카	1,690
말라위	170	시에라리온	…	멕시코	1,760
소말리아	170	베트남	…	모리셔스	1,800
자이르	170				
부탄	170	② 中所得國		폴랜드	1,860
라오스	180	(480$이상)		말레이지아	1,940
네팔	180	(53개국)		파나마	2,120
마다가스카르	190	(1)下位中所得國		브라질	2,160
부르키나파소	190	볼리비아	570	앙골라	…
말리	210	필리핀	630	레바논	…
부룬디	230	남예멘	640	니카라과	…
우간다	240	세네갈	650	(2) 上位中所得國	
나이지리아	280	짐바브웨	650	남아프리카	2,290
잠비아	290	이집트	660	알제리아	2,360
니제르	290	도미니카공화국	720	헝가리	2,460
루완다	300	코트디브와르	770	우루과이	2,470
중국	320	파푸아 · 뉴기니아	810	아르헨티나	2,520
인도	330	모로코	830	유고슬라비아	2,520
파키스탄	340	온두라스	960	가봉	2,970
케냐	350	과테말라	900	베네쥬엘라	3,250
토고	370	콩고	910	트리니다드 · 토바고	3,350
중앙아프리카	380	엘살바도르	940	한국	3,600
아이티	380	타이	1,000	포루투갈	3,650
베냉	390	보츠와나	1,010	그리이스	4,800
가나	400	카메룬	1,010	오만	5,000
레소토	420	쟈마이카	1,070	리비아	5,420
스리랑카	420	에쿠아도르	1,120	이란	…
기니아	430	콜롬비아	1,180	이라크	…
				루마니아	…

(ⅲ) 高所得國 (OECD加盟國 除外)

국 명	1인당 GNP	국 명	1인당 GNP	국 명	1인당 GNP
사우디아라비아	6,200	싱가폴	9,070	쿠웨이트	13,400
이스라엘	8,650	홍콩	9,220	아랍에미리트	15,770

(ⅳ) 非報告 非加盟國 (9個國)

국 명	1인당 GNP	국 명	1인당GNP	국 명	1인당 GNP
알바니아	-	쿠바	-	북한	-
앙고라	-	체코슬로바키아	-	몽고	-
불가리아	-	동독	-	소련	-

(자료) 세계은행 「세계개발보고1990」 아시아경제연구소자료

(주) 低中所得國에 관해서는 인구 100만이하의 나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LLDC 41個國 一覽 (1990년 10월현재), 1人當 GNP (1988年)

(단위: $)

국 명	인정된 年	1인당 GNP	국 명	인정된 年	1인당 GNP
아시아(8개국)			기니아	1971	430
아프가니스탄	1971	…	기니아비사우	1981	…
방글라데시	1975	170	레소토	1971	420
부탄	1971	180	말라위	1971	170
미얀마(버마)	1987	…	말리	1971	230
라오스	1971	180	모리타니아	1985	480
몰디브	1971	410	모잠비크	1988	100
네팔	1971	180	니제르	1971	300
예멘			루완다	1971	320
북예멘	1971	430	쌍토메프린시페	1982	…
남예멘	1975	640	시에라리온	1982	240
아프리카(28개국			소말리아	1971	170
베냉	1971	390	수단	1971	480
보츠와나	1971	1,010	탄자니아	1971	160
브르키나판	1971	210	토고	1982	370
부룬디	1971	240	우간다	1971	280
카보베르테	1977	…			
중앙아프리카	1975	380	대양주 (4개국)		
차드	1971	160	키리바티	1986	650
코모로	1977	440	투발루	1986	…
지부티	1982	…	바누아투	1985	820
적도기니아	1982	350	西사모아	1971	580
이디오피아	1971	120	중남미 (1개국)		
감비아	1975	220	아이티	1971	380

(자료) 세계은행 「아틀라스1989」, 외무성자료 아시아 경제연구소자료

(주) 1990년 5월 남북예멘의 통합에 의해 종래의 42개국에서 41개국으로 됨.
또한, 90년의 국제연합총회에서 리베리아가 LLDC에 인정될 예정.

3. 日本과 DAC諸國의 政府開發援助

3. 日本과 DAC諸國의 政府開發援助

(1) 日本의 經濟協力實績 (1979-1989년)
(지출순액기준: Dollar) (단위: 100만$)

년 도		1979	1980	1981
정부개발원조	(1) 양국간 증여	560.2	652.6	810.2
	(a) 무상자금 협력	318.3	374.8	472.5
	(b) 기술협력	241.9	277.8	338.0
	(2) 양국간 직접차관등	1,361.0	1,308.2	1,450.0
	양국간 ODA 計	1,921.2	1,960.8	2,260.4
	(3) 국제기관에 대한출자 · 갹출등	716.3	1,342.9	910.5
	정부개발원조 (ODA) 計	2637.5	3,303.7	3,170.9
	정부개발원조의 對 GNP比 %	0.26	0.31	0.27
기타공공자금	(4) 수출신용 (1년초과)	△235.1	822.9	1,410.4
	(5) 직접투자금융 등	675.4	767.0	1,489.5
	(6) 국제기관에 대한 융자 등	△230.2	△111.9	122.7
	기타정부자금 (OOF)	210.1	1,478.0	3,022.6
비영리 단체에 의한 증여		19.0	26.4	27.4
민간자금	(7) 수출신용(1년초과)	642.5	73.7	712.3
	(8)직접투자등(증권투자,對外貸付포함)	3,405.8	1,566.3	3,698.8
	(9) 국제기관에 대한 융자 등	640.7	317.8	1,599.5
	민간자금 (PF)	4,689.0	1,957.8	6,010.6
資金의 흐름總額		7,555.6	6,765.9	12,231.3
자금의 흐름총액의 對 GNP比 (%)		0.75	0.64	1.05
(참 고) GNP		1,012,112	1,058,915	1,164,544
환산 비율 1 Dollar (엔)		219.17	226.74	220.53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805.2	993.4	1,063.9	1,184.8	1,703.2	2,221.1	2,907.7	3,307.3
412.3	535.1	543.4	636.1	854.6	1,154.1	1,483.2	1,556.1
392.9	458.3	520.5	548.7	848.7	1,067.0	1,424.7	1,481.2
1,562.2	1,431.8	1,363.5	1,372.1	2,143.0	3,026.5	3,514.2	3,741.3
2,367.3	2,425.2	2,427.4	2,556.9	3,846.2	5,247.6	6,421.9	6,778.5
656.0	1,335.8	1,891.4	1,239.9	1,788.2	2,206.8	2,711.8	2,186.4
3,023.3	3,761.0	4,318.7	3,796.8	5,634.4	7,454.4	9,133.7	8,964.9
0.28	0.32	0.34	0.29	0.29	0.31	0.32	0.32
849.5	472.1	493.0	△152.3	△857.9	△2,047.3	△1,838.5	△1,245.4
2,094.9	1,441.5	380.2	△1.3	332.2	286.7	1,410.2	1,892.4
△30.7	40.7	△130.4	△148.3	△198.3	△47.1	△211.1	896.9
2,913.7	1,954.3	742.8	△301.9	△724.1	△1,807.8	△639.4	1.543.9
23.3	29.7	40.7	101.4	81.6	92.0	107.4	122.1
△1,762.3	△2,068.6	△655.2	△993.5	199.3	1,081.3	219.3	686.8
3,162.3	2,645.4	5,090.1	6,183.4	8,073.0	11,777.4	11,019.9	12,579.8
1,528.5	1,574.2	2,208.8	2,832.5	1,313.6	1,864.5	1,582.7	235.6
2,928.5	2,150.9	6,643.7	8,022.4	9,585.9	14,723.3	12,821.8	13,502.1
8,888.8	7,895.9	11,746.0	11,618.6	14,577.8	20,462.0	21,423.4	24,133.0
0.82	0.67	0.93	0.87	0.74	0.86	0.75	0.85
1,082,903	1,181,238	1,256,537	1,330,76	1,965,66	2,388,525	2,866,864	2,836,632
249.05	237.52	237.52	238.54	168.52	144.64	128.15	137.96

(자료) 외무성자료, 아시아경제연구소자료.
(주1) 환산비율은 DAC사무국발표에 의함.
(주2) 기술협력은 同行政經費를 포함.
(주3) GNP는 한번 공표된 뒤 수정되어지기 때문에, 본표에서는 「국민경제계산년보 1990」에 계산되어있는 엔화기준치에 DAC환산비율를 곱하여 구한 값을 사용한다. 따라서 1987년까지는 명목GNP확보치, 88년과 89년에는 90년 10월의 명목GNP速報値에 의함.
(주4) (주3)의 GNP에 의해 GNP比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공표한 GNP比 자료나 DAC에 공표된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日本의 經濟協力實績 (1979-1989년) (지출순액기준, 円)

(단위: 백만엔)

년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정부개발원조	(1) 양국간 증여	122,781	147,966	178,726	200,530	235,962	252,700	282,620	287,026	321,260	372,619	419,019
	(a) 무상자금협력	69,768	84,982	95,273	102,680	127,102	129,069	151,734	144,009	166,923	190,071	214,674
	(b) 기술협력	53,013	62,984	83,453	97,850	108,860	123,630	130,886	143,017	154,337	182,549	204,346
	(2) 양국간 직접 차관 등	298,293	296,626	319,762	389,053	340,081	323,854	327,308	361,137	437,757	450,343	516,143
	양국간 ODA 計	421,074	444,592	498,488	589,584	576,043	576,554	609,928	648,163	759,018	822,962	935,162
	(3)국제기관에 대한 출자·갹출	156,981	304,496	200,790	163,377	317,267	449,233	295,756	301,349	319,192	347,517	301,634
	정부개발원조 (ODA)計	578,054	749,081	699,279	752,960	893,310	1,025,787	905,684	949,512	1,078,210	1,170,479	1,236,796
	정부개발원조의 對 GNP比(%)	0.26	0.31	0.27	0.28	0.32	0.34	0.29	0.29	0.31	0.32	0.32
기타공공자금	(4) 수출신용 (1년초과)	△51,516	186,584	311,033	211,563	112,131	117,100	△36,327	△144,578	△296,124	△235,602	△171,810
	(5) 직접투자금융 등	148,034	173,905	328,484	521,735	342,387	90,303	△317	55,979	41,461	180,710	261,074
	(6) 국제기관에 대한 융자 등	△50,462	△25,379	27,059	△7,643	9,660	△30,970	△35,380	△33,423	△6,810	△27,502	123,729
	기타 정부자금 (OOF)	46,056	335,110	666,576	725,654	464,178	176,432	△72,025	△122,022	△261,473	△81,944	212,994
비영리단체에 의한 증여		4,160	5,981	6,012	5,808	7,059	9,667	24,197	13,748	13,312	13,758	16,849
민간자금	(7) 수출신용(1년초과)	140,825	16,704	157,086	△438,911	△491,331	△155,621	△236,997	33,593	156,404	28,101	94,748
	(8) 직접투자 등(증권투자,대외대부포함)	746,451	355,143	815,685	787,576	628,324	1,209,005	1,474,995	1,360,465	1,703,487	1,412,200	1,735,509
	(9) 국제기관에 대한 융자 등	140,420	72,067	352,736	380,665	373,892	524,622	675,653	221,361	269,687	202,818	32,498
	민간자금 (PF)	1,027,697	443,914	1,325,507	729,330	510,884	1,578,007	1,913,651	1,615,419	2,129,578	1,643,118	1,862,755
자금의 흐름총액		1,655,967	1,534,093	2,697,373	2,213,753	1,876,432	2,789,903	2,771,508	2,456,657	2,959,628	2,745,411	3,329,394
자금의 흐름총액의 대 GNP비 (%)		0.75	0.64	1.05	0.82	0.67	0.93	0.87	0.74	0.86	0.75	0.85
(참고) GNP (10억엔)		221,824.5	240,098.4	256,816.8	269,697.1	280,567.6	298,452.7	317,440.9	331,253.5	345,476.2	367,388.6	391,341.8

(자료) 외무성자료, 아시아경제연구소 자료.
(주1) GNP比는 DAC사무국발표의 환산비율에 의한 달러비율의 값임.
(주2) 기술협력은 동행정경비를 포함.
(주3) GNP는 한번 발표된 후 수정이 되기 때문에, 본 표에서는 「국민경제계산년보 1990」에 계산되어있는 값을 사용함. 따라서, 1987년까지는 명목 GNP확보치, 88년과 89년에 관해서는 90년 10월의 명목GNP 속보치에 의함
(주4) (주3)의 GNP에 의해 GNP비를 계산하였기 때문에, 과거에 공표한 GNP비의 자료 (나)와 DAC에서 발표한 자료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5) DAC제국의 ODA의 對 GNP比

순 위	국 명	ODA/GNP(1989년)	순위	ODA/GNP (1988년)
1	노르웨이	1.02	1	1.10
2	덴마크	1.00	3	0.89
3	스웨덴	0.98	4	0.86
4	네덜란드	0.94	2	0.98
5	프랑스	0.78	5	0.72
6	핀랜드	0.63	6	0.59
7	벨기에	0.47	9	0.41
8	캐나다	0.44	7	0.50
9	서독	0.41	10	0.39
10	이탈리아	0.39	10	0.39
11	오스트레일리아	0.37	8	0.46
12	일본	0.32	12	0.32
13	영국	0.31	12	0.32
14	스위스	0.30	12	0.32
15	아일랜드	0.24	18	0.20
16	오스트리아	0.23	16	0.21
17	뉴질랜드	0.22	15	0.27
18	미국	0.15	16	0.21
DAC 諸國全體		0.33		0.36

(주) 프랑스에 관해서는 해외영토분을 포함함. (DAC議長報告)

(6) DAC 諸國의 國民1人當의 ODA負擔金 (1988: 달러)

순 위	국 명	ODA/인구
1	노르웨이	233.9 $
2	스웨덴	181.8
3	덴마크	179.4
4	네덜랜드	151.4
5	프랑스	122.9
6	핀랜드	122.9
7	스위스	92.7
8	캐나다	90.4
9	서독	77.1
10	일본	74.5
11	오스트레일리아	66.6
12	벨기에	62.5
13	이탈리아	55.6
14	영국	46.3
15	미국	41.2
16	오스트리아	39.6
17	뉴지랜드	31.3
18	아일랜드	16.1
D A C 諸 國 全 體		67.6

(DAC議長報告)

(주) 프랑스에 관해서는 해외영토분을 포함함.

(7) DAC諸國의 ODA 질적 비교(약속액기준, 87/88년의 평균치)

국 명	증 여 비 율 (%)	총 합 GE (%)
오스트레일리아	100.0	100.0
뉴질랜드	100.0	100.0
아일랜드	100.0	100.0
스웨덴	100.0	100.0
스위스	99.5	99.9
노르웨이	99.4	99.6
덴마크	98.1	99.5
영국	97.8	99.0
캐나다	97.4	99.6
핀랜드	91.9	97.7
미국	91.2	96.9
벨기에	90.6	94.0*
네덜란드	86.4	94.1
프랑스	78.2*	89.3*
이탈리아	76.9	92.0
서독	69.0	86.1
오스트리아	64.6*	76.2*
일본	46.6*	75.4*
D A C 평 균	(78.47)	(90.4)

(주) 1. *표시를 붙인 것은 87년 실적임.
2. 채무구제에 관계된 것은 제외함.
3. 괄호안은 DAC사무국 추정치임.

(DAC議長報告)

(8) DAC 諸國의 ODA와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순 위	국 명	ODA (백만$) 1989년	전체에 차지하는 비 중 (%)	ODA (백만$) 1988년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1	일본	8,958	19.3	9,134	19.0
2	미국	7,664	16.5	10,141	21.1
3	프랑스	7,467	16.1	6,865	14.3
4	서독	4,953	10.7	4,731	9.8
5	이탈리아	3,325	7.2	3,193	6.6
6	영국	2,588	5.6	2,645	5.5
7	캐나다	2,302	5.0	2,347	4.9
8	네덜란드	2,094	4.5	2,231	4.6
9	스웨덴	1,809	3.9	1,534	3.2
10	오스트레일리아	1,017	2.2	1,101	2.3
11	덴마크	1,003	2.2	922	1.9
12	노르웨이	919	2.2	985	2.1
13	벨기에	716	1.5	618	1.3
14	핀랜드	705	1.5	608	1.3
15	스위스	559	1.2	617	1.3
16	오스트리아	282	0.6	301	0.6
17	뉴질랜드	87	0.2	104	0.2
18	아일랜드	49	0.1	67	0.1
DAC 加盟諸國의 ODA 計		46,498	100.0	48,132	100.0

(90년 DAC 프레스 릴리스에 의함

(주) 1 일본의 89년 확정치는 8,965.
2. 국명순위는 89년 ODA의 순서
3. 프랑스에 관해서는 해외영토에 대한 ODA를 포함함.

(9) DAC제국의 ODA형태별 비교(지출순액기준) (1988년도) (단위: 100만$)

	DAC 계		오스트렐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정부개발원조(ODA)	48,094	100.0	1,101	100.0	302	100.0	597	100.0	2,342	100.0
ODA의 對 GNP比 %	0.36		0.46		0.24		0.41		0.50	
A 양국간 원조	33,180	69.0	622	56.5	163	54.0	423	70.9	1,579	67.4
1. 증 여	26,035	54.1	622	56.5	90	29.8	371	62.1	1,651	70.5
- 기술협력	10,222	21.3	203	18.0	68	22.5	176	29.5	403	17.2
2. 차 관	7,145	14.9	-	-	74	24.5	52	8.7	△72	△0.3
B 다국간 원조	14,914	31.0	479	43.5	139	46.0	174	29.1	763	32.6
1. 증 여	6,668	13.9	129	11.7	21	7.0	162	27.1	364	15.5
2. 갹출	8,263	17.2	349	31.7	118	39.1	13	21.8	400	17.1
3. 차 관	∧16	∧0.0	0	0	-	-	-	-	-	-

덴마크		핀랜드		프 랑 스		서 독		아일랜드		이탈리아	
금 액	비 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922	100.0	608	100.0	6,865	100.0	4731	100.0	57	100.0	3,183	100.0
0.89		0.59		0.72		0.39		0.20		0.39	
478	51.8	380	62.5	5,601	81.6	3172	67.0	22	38.6	2,408	75.7
424	46.0	334	54.9	4,175	60.8	2305	48.7	22	38.6	1,604	50.4
95	10.3	25	4.1	2,422	35.3	1594	33.7	13	22.8	286	9.0
54	5.9	45	7.4	1,426	20.8	867	18.3	-	-	804	25.3
444	48.2	228	37.5	1,265	18.4	1559	33.0	35	61.4	775	24.3
329	35.7	144	23.7	770	11.2	1007	21.3	21	36.8	589	18.5
115	12.5	84	13.8	494	7.2	561	11.9	13	22.8	186	5.8
-	-	-	-	-	-	∧9	△0.2	-	-	-	-

일 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 위 스		영 국		미 국		E E C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9134	100.0	985	100.0	1529	100.0	617	100.0	2645	100.0	1014	100.0	2909	100.0
0.32	70.3	1.10		0.86		0.32		0.32		0.21		-	
6422	88.6	572	58.1	1054	68.9	445	72.1	1430	54.1	6765	66.7	2587	88.9
2908	31.8	570	57.9	1058	69.2	414	67.1	1528	57.8	6472	63.8	2511	86.3
1093	12.0	86	8.7	207	13.5	103	16.7	642	24.3	2127	21.0	-	-
3514	38.5	1	0.1	∧4	∧0.3	31	5.0	∧98	△3.7	293	2.9	76	2.6
2712	29.7	413	41.9	475	31.1	172	27.9	1215	45.9	3376	33.3	322	11.1
418	4.6	261	26.5	285	18.6	110	17.8	725	27.4	913	9.0	322	11.1
2294	25.1	152	15.4	194	12.7	62	10.0	489	18.5	2467	24.3	-	-
-	-	-	-	∧3	-	-	-	-		△4	∧0.0	-	-

(자료) DAC議長報告 1989, 아시아 경제연구소 자료
(역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내역생략

(10) 日本의 經濟協力實績 (主要 先進國과의 比較) (1988-1989년)

	供與國		日本	美國	프랑스[1]	서독	영국	DAC전체	비고
政府開發援助	量	供與額 (單位: 백만$)	88년支出純額기준	9,134	10,141	6,865	4,731	2,645	48,132	支出純額基準으로는, 미국에 이어서 DAC諸國中 2位(백분율 19.0 %)
			전년대비신장율: %	22.5	13.4	5.2	7.7	41.4	15.9	
			약속액기준	10,350	10,948	7,081	5,434	2,795	51,203	약속액기준으로는, 미국에 이어서 DAC諸國中 2位
			89년支出純額기준	8,958	7,664	7,467	4,953	2,588	46,498	支出純額基準으로는, DAC諸國中 1位(백분율 19.3%)
			전년대비신장율: %	▲1.9	▲24.4	8.8	4.7	▲2.1	▲3.4	2位 미국
		GNP對比 (單位: %)	1988년	0.32	0.21	0.72	0.39	0.32	0.36	DAC諸國中 13位, 1位는 노르웨이의 1.10%
			1989년	0.32	0.15	0.78	0.41	0.31	0.33	DAC諸國中 12位, 1位는 노르웨이의 1.02%
		국민1인당 ODA액($)	1988년	74.5	41.2	122.9	77.1	46.3	67.6	DAC諸國中 10位, 1位는 노르웨이의 233.9$
	質	증여비율[2]	약속액기준(%)	46.6	91.2	78.2*	69.0	97.8	(78.4)	DAC諸國中 18位, 호주, NZ, 스웨덴, 아일랜드는 100%
		그랜트엘리먼트[2]	(채무구제 제외)	75.4*	96.9	89.3*	86.1	99.0	(90.4)	DAC諸國中 18位, 호주, NZ, 스웨덴, 아일랜드는 100%
		타잉스테이터스 (약속액 기준) (%)	언타이드	72.8	26.1	50.7	54.8	17.4	n.a.	양국간 차관 (약속액기준)의 언타이드상황(1988)
			部分언타이드	14.4	19.7	3.9	-	-		
			타이드 (EEC각출분포함)	12.8	54.2	45.4	45.2	82.6		
		기술협력의 비중[3] (支出純額基準) (%)	ODA 總額中 (%)	12.0	21.0	35.3	33.7	24.3	21.3	DAC諸國中 14位, 1位는 NZ(46.7%)
			양국간 ODA中 (%)	17.0	31.4	43.2	50.3	44.9	30.8	DAC諸國中 15位, 1位는 아일랜드의 59.1%
		국제기관에 대한 원조 비중(支出純額基準)	ODA 총액중(%)	29.7	33.3	18.4	33.0	45.9	31.0	DAC諸國中 13位, 1位는 아일랜드의 61.4%
		對국제연합전문기관용	ODA 총액중 (%)	4.1	7.2	1.6	4.9	7.3	7.2	DAC諸國中 17位, 1位는 노르웨이의 22.3%
			多國間 ODA中 (%)	13.9	21.5	8.9	14.8	15.8	23.2	DAC諸國中 16位, 1位는 스웨덴의 59.2%
		저소득국(LICs)에 대한 원조의 비중 (支出純額基準)	%(多國間援助包含)	69.0	48.8	40.4	39.4	65.8	57.7	DAC諸國中 3位, 1位는 이탈리아와 덴마크의 69.3%
			對 LLDC내부 (%)	21.3	18.1	19.4	27.8	32.6	25.3	DAC諸國中 13位, 1位는 이탈리아의 43.6%
자금흐름 총량		88년 총액(백만$)	支出純額基準	21,423	17,505	n.a.	11,811	2,952	n.a.	DAC諸國中 1位 (1985년 이후).
		GNP 對比	%	0.75	0.36	n.a.	0.98	0.36	n.a.	네덜란드 1.18, 노르웨이 1.03

양국간 차관 (약속액기준)의 언타이드상황(1988)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79.5	9.5	40.0	45.0	77.1

(%)

(자료)

(주) 1. 해외영토에 대한 실적을 포함.
2. 1987/1988년 평균.
3. 행정경비, NGO에 대한 지원 제외.
4. 특별한 기재사항이 없는 것은, 88년 실적임.
5. 89년 실적은, 잠정치임.

DAC 자료, 외무성자료.

(11) 주요선진국의 양국간 ODA중점 공여국 비교(1988) (단위: 100만$)

프랑스		서 독		일 본	
양국간 ODA실적액 5,601			3,172		6,422
受援國順位					
1)	571	1)터어키	186	1)인도네시아	985
2)	448	2)이집트	158	2)중국	674
3)폴리네시아(프랑스領)	326	3)인도네시아	98	3)필리핀	535
4)뉴칼레도니아	261	4)파키스탄	97	4)타이	361
5)세네갈	167	5)모로코	81	5)방글라데시	342
6)코트디브와르	163	6)네팔	69	6)파키스탄	302
7)모로코	157	7)방글라데시	57	7)미얀마	260
8)중국	134	8)케냐	56	8)스리랑카	200
9)기아나(프랑스령)	130	9)브라질	55	9)인도	179
10)카메룬	128	10)수단	51	10)이집트	173

영 국		미 국	
	1,430		6,765
1) 인도	113	1) 이스라엘	1,191
2) 케냐	75	2) 이집트	799
3) 방글라데시	73	3) 파키스탄	338
4) 탄자니아	59	4) 엘살바도르	318
5) 말라위	53	5) 온두라스	155
6) 모잠비크	52	6) 태평양군도(미국)	147
7) 가나	50	7) 과테말라	134
8) 우간다	49	8) 필리핀	121
9) 수단	45	9) 방글라데시	120
10) 중국	43	10) 수단	108

(12) 주요개발도상국의 ODA 受援 상황(支出純額기준) (1988년) (단위: 100만$)

	총액	원조공여국순위및금액 1位		2位	
필리핀	789.3	일본	534.7	미국	121.0
타이	514.0	일본	360.6	서독	35.1
말레이지아	96.8	호 주	37.1	일본	24.8
인도네시아	1,497.9	일본	984.9	네덜란드	156.2
중국	1,196.9	일본	673.7	프랑스	134.0
인도	949.8	일본	179.5	서독	152.3
파키스탄	1,003.7	미국	339.0	일본	302.2
방글라데시	931.4	일본	342.0	미국	120.0
스리랑카	436.1	일본	199.8	미국	41.0
미얀마	332.7	일본	259.6	서독	37.0
네팔	225.7	서독	68.5	일본	62.4
파푸아뉴기니아	307.4	호주	240.9	일본	41.2
이집트	1,432.9	미국	799.7	일본	172.9
터어키	302.6	서독	185.9	일본	134.5
케냐	609.8	일본	144.7	영국	75.1
탄자니아	782.0	스웨덴	100.2	일본	96.7
수단	481.6	미국	109.0	이탈리아	75.4
페루	244.4	미국	61.0	서독	48.7
엘살바도르	381.0	미국	318.0	서독	20.6
멕시코	140.1	미국	47.0	일본	38.8

원조공여국순위및금액 3位		4位		5位	
호주	30.4	서독	30.0	네덜란드	26.9
캐나다	29.2	미국	22.0	호주	21.1
영국	12.2	서독	7.3	프랑스	6.4
서독	97.6	호주	71.7	프랑스	57.1
이탈리아	111.5	서독	45.6	영국	42.5
네덜란드	115.2	영국	112.6	미국	91.0
서독	96.6	캐나다	64.4	프랑스	60.7
캐나다	117.0	영국	73.2	네덜란드	71.8
서독	37.2	영국	30.4	네덜란드	28.4
미국	10.0	호주	8.2	프랑스	6.2
영국	19.1	미국	15.0	스위스	12.8
영국	13.1	서독	6.7	뉴질랜드	2.6
서독	157.7	이탈리아	116.6	프랑스	66.9
오스트리아	21.4	프랑스	19.9	벨기에	7.8
네덜란드	56.7	서독	55.9	미국	52.0
노르웨이	79.1	네덜란드	78.9	덴마크	77.8
네덜란드	67.0	일본	59.6	서독	51.1
이탈리아	35.8	일본	28.4	캐나다, 네덜란드	22.5
이탈리아	16.5	프랑스	8.9	네덜란드	7.7
프랑스	35.1	서독	8.5	네덜란드	3.4

(13) 日本兩國間 ODA의 地理的 配分 (외무성 분류)

(支出純額기준, 單位: 100만$)

	1980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아시아	1,383(70.5)	2,494(64.8)	3,416(65.1)	4,034(62.8)	4,240(62.5)
북동아시아	82(4.2)	490(12.7)	577(11.0)	725(11.3)	919(13.6)
동남아시아	861(44.0)	1,169(30.4)	1,866(35.6)	2,197(34.2)	2,226(32.8)
ASEAN	703(35.9)	914(23.8)	1,680(32.0)	1,920(29.9)	2,132(31.5)
남서아시아	435(22.2)	831(21.6)	970(18.5)	1,109(17.3)	1,091(16.1)
기타	5(0.3)	4(0.1)	3(0.1)	4(0.1)	3(0.0)
중동	204(10.4)	340(8.8)	526(10.0)	583(9.1)	368(5.4)
아프리카	223(11.4)	418(10.9)	516(9.8)	884(13.8)	1,040(15.3)
중남미	118(6.0)	317(8.2)	418(18.0)	399(6.2)	563(8.3)
대양주	12(0.6)	55(1.4)	68(1.3)	93(1.4)	98(1.4)
구주	▲1.5(-)	2(0.1)	2(0.0)	4(0.1)	11(0.2)
분류불능	1(1.2)	221(5.7)	302(5.8)	425(6.6)	458(6.8)
총 액	1,961(100.0)	3,846(100.0)	5,248(100.0)	6,422(100.0)	6,799(100.0)

주: ( )안은 총액에 차지하는 비중(%)
외무성자료

(14) 일본양국간 ODA의 10대 공여국 · 공여액의 추이(支出純額기준)

(單位: 100만$)

순위	1970년 국명	1970년 금액	1975년 국명	1975년 금액	1980년 국명	1980년 금액
1	인도네시아	125.84	인도네시아	197.92	인도네시아	350.03
2	한국	86.76	한국	87.44	방글라데시	215.14
3	파키스탄	39.55	필리핀	70.33	타이	189.55
4	인도	32.73	말레이시아	63.27	버마	152.46
5	필리핀	19.23	이집트	50.17	이집트	122.97
6	타이	16.91	방글라데시	47.05	파키스탄	112.42
7	이란	11.96	인도	46.61	필리핀	94.40
8	버마	11.94	타이	41.21	한국	76.30
9	중국	9.53	이라크	29.77	말레이시아	65.63
10	싱가폴	5.75	나이제리아	27.31	스리랑카	44.78
	10位合計	360.20	10位合計	661.08	10位合計	1,423.68
	世界合計	371.51	世界合計	850.40	世界合計	1,960.80

순위	1987년 국명	1987년 금액	1988년 국명	1988년 금액	1989년 국명	1989년 금액
1	인도네시아	707.31	인도네시아	984.91	인도네시아	1,145,26
2	중국	553.12	중국	673.70	중국	832.18
3	필리핀	379.38	필리핀	534.72	타이	488.85
4	방글라데시	334.20	타이	360.62	필리핀	403.75
5	인도	303.94	방글라데시	341.96	방글라데시	370.60
6	타이	302.44	파키스탄	302.17	인도	257.63
7	말레이지아	276.39	미얀마	259.55	스리랑카	185.25
8	버마	172.00	스리랑카	199.83	파키스탄	177.46
9	터키	162.39	인도	179.46	나이제리아	165.86
10	파키스탄	126.69	이집트	172.90	케냐	147.81
	10位合計	3317.87	10位合計	4009.82	10位合計	4,174.25
	世界合計	5247.63	世界合計	6,421.87	世界合計	6,778.50

(외무성자료)

(15) 일본양국간 ODA소득계층별 배분 (支出純額기준, 單位:100만$)

受援國 그룹	1987년	1988년	1989년
LLDC(주1)	988.2(18.8)	1,186.9(18.5)	1,013.9(15.0)
LICs(주2)	2,264.9(43.2)	3,566.7(55.5)	3,891.4(57.4)
LMICs(주3)	1,005.2(19.2)	791.7(12.3)	850.9(12.6)
UMICs(주4)	384.3(7.3)	227.3(3.5)	239.0(3.5)
NIEs(주5)	158.7(3.0)	160.4(2.5)	245.5(3.6)
OPEC(주6)	122.3(2.3)	19.6(0.3)	28.5(0.4)
분류불능	324.1(6.2)	469.3(7.3)	509.3(7.5)
合計	5,247.6(100.0)	6,421.9(100.0)	6,778.5(100.0)

( )안은 合計에 차지하는 비중(%)임.

주1 후발개도상국(Least among Less Developed Countries) : 개도국중에도 특히 개발이 더딘 나라. 인정기준은 국제연합개발계획위원회가 설정하고 있고, 현재의 기준은 다음의 Ⅰ또는 Ⅱ의 조건에 맞는 것을 요건으로 함.

	1983-85년3년간평균1인당GDP	GDP에차지하는제조업비중	文盲率
Ⅰ	427$이하	10% 이하	80%이상
Ⅱ	356$이하	10% 이하	불문

주2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y). 원칙으로는 1987년의 국민1인당의 GNP가 700$(86년실적에 관해서는 1983년의 1인당 GNP가 700$, 87년실적에 관해서는 1986년의 1인당 GNP가 800$)미만의 국가 · 지역임. 또한, 본 표에서는 LLDC를 제외함. 88년도 실적으로는 25개국 · 지역임.

주3 저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y). 원칙으로는 1987년의 국민1인당 GNP가 700$이상 1,300$ 미만 (86년 실적에 관해서는 1983년의 1인당 GNP가 700$ 이상 1,300$ 미만, 87년 실적에 관해서는 1986년의 1인당 GNP가 800$이상 1,400$미만)의 국가 · 지역임.

주4 고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원칙으로는 1987년의 국민1인당 GNP가 1,300$(86년 실적에 관해서는 1983년의 1인당 GNP가 1,300$, 87년 실적에 관해서는 1986년의 1인당 GNP가 1,400$)이상의 국가 · 지역임.

주5 신흥공업국 · 지역(Newly Industrializing Economies): 한국, 싱가폴, 대만, 홍콩, 알젠틴, 브라질, 멕시코, 포르투갈, 그리스 및 유고슬라비아의 10개국 · 지역임.

주6 석유수출국기구中, 알제리,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 U.A.E, 사우디아라비아, 가봉, 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쥬엘라의 11개국임.

(외무성자료)

(16) 日本의 ODA事業豫算의 推移(당초예산기준) (단위: 억엔)

년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A 증 여	4,324	4,559	4,704	4,468	7,327
Ⅰ 양국간 증여	1,845	2,149	2,372	2,650	2,811
1. 식량원조	366	453	496	536	530
2. 기술협력	728	865	956	1,125	1,216
3. 경제개발등 원조	750	830	920	990	1,065
Ⅱ 국제기관의 증여	2,480	2,410	2,332	1,818	4,516
1. 국제연합등 제기관의 증여	389	414	504	547	608
2. 국제금융기관출자 · 갹출	2,090	1,995	1,828	1,270	3,909
B 정부직접차관등(주1)	4,316	4,770	5,563	6,204	6,828
Ⅰ 기금	3,870	4,450	5,275	5,893	6,422
Ⅱ 輸銀	170	80	50	70	50
Ⅲ 국제협력사업단	129	127	98	86	84
Ⅳ 기타	147	114	140	165	272
計 (A + B)	8,640	9,329	10,267	10,671	14,155
회수금 등	△238	△441	△849	△993	△1,203
정부개발원조 計	8,402	8,888	9,418	9,678	12,952
정부개발원조 計의 GNP對比	0.34	0.34	0.34	0.34	0.43
(참고) GNP 주2 (兆円)	247.8	264.8	277.2	281.7	303.2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6,161	6,443	6,647	7,109	7,107	7,735
3,144	3,423	3,656	3,937	4,261	4,467
594	610	545	459	428	412
1,400	1,573	1,771	2,007	2,237	2,434
1,150	1,240	1,340	1,471	1,596	1,621
3,017	3,020	2,991	3,172	2,846	3,269
638	613	535	504	524	558
2,379	2,407	2,457	2,668	2,322	2,711
7,651	7,883	7,356	7,897	8,045	8,260
7,164	7,304	6,816	7,347	7,530	7,781
50	80	20	20	20	20
94	103	112	105	105	102
343	395	408	424	390	357
13,813	14,325	14,003	15,006	15,153	15,995
△1,265	△1,403	△1,605	△1,519	△1,455	△1,502
12,547	12,922	12,339	13,487	13,698	14,494
0.39	0.39	0.35	0.37	0.35	0.35
320.4	335.5	350.4	365.2	389.7	417.2

(아시아 경제연구소자료)

(주1) 차관 당초 계획액

(주2) GNP는 당초예산 작성시의 추정치

(17) 日本의 ODA 事業豫算財源別內譯의 推移(당초예산기준) (단위: 억엔)

년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一般會計	3,516	3,956	4,417	4,813	5,281
特別會計	10	11	27	27	16
財政 投·融資 等	2,836	2,966	3,207	4,594	5,006
出資國債	2,040	1,946	1,767	1,237	3,848
합 계	8,640	9,329	10,267	10,671	14,155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5,810	6,220	6,580	7,010	7,557	8,175
24	30	54	114	131	100
5,661	5,761	5,079	5,463	5,429	5,436
2,316	2,313	2,291	2,420	2,036	2,284
13,813	14,325	14,003	15,006	15,153	15,995

(아시아 경제연구소자료)

(18) 日本의 有償資金協力 (円借款)

(i) 分野別 供與實積의 推移 (단위: 억엔 %)

년도 / 분야	87		88		8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농림수산업)	(461)	(8.3)	(399)	(4.1)	(1,370)	(15.2)
농업	37	0.7	76	0.8	787	8.7
수산업	34	0.6	0	0	0	0
灌漑·治水	390	7.0	324	3.3	584	6.5
(鑛工業)	(549)	(9.8)	(1,112)	(11.4)	(371)	(4.1)
鑛業	27	0.5	4	0	0	0
工業	523	9.4	1,108	11.3	371	4.1
(經濟인프라)	(4,026)	(72.2)	(3,913)	(40.0)	(4,539)	(50.2)
陸上運輸	1,118	20.1	1,497	15.3	1,574	17.4
海上運輸	375	6.7	280	2.9	800	8.9
항 공	3	0.1	85	0.9	90	1.0
전 력	1,787	32.1	1,030	10.5	1,280	14.2
가 스	0	0	481	4.9	89	1.0
통 신	743	13.3	540	5.5	705	7.8
(社會인프라)	(49)	(0.9)	(845)	(8.6)	(1,006)	(11.1)
(構造調整)	(91)	(1.6)	(2,011)	(20.6)	(1,473)	(16.3)
(기 타)	(399)	(7.2)	(1,492)	(15.3)	(278)	(3.1)
합계 (주)	5,574	100	9,772	100	9,038	100

주요대상분야의 내용

농업: 농업종합개발
灌漑·治水: 灌漑, 治水, 洪水制御
공업: 비료공장, 제철소
해상운수: 항만건설, 선박
전력: 수력, 화력, 지열발전, 송전선
통신: 전화망정비, 마이크로웨이브시설
構造調整:세계은행 등 協助構造 調整融資, Sector-Program借款
기타: 수출촉진
수산업: 어업기지정비
광업: 석유개발, 광산개발
육상운수: 도로, 철도, 교량건설
항공: 공항건설
가스: 가스개발
社會인프라: 상·하수도정비,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 합계에서는 상품차관 및 채무구제를 제외함. (외무성자료)

(ⅱ) 엔차관 10대공여국 (84 - 89년도) (交換公文기준)

(단위: 백만엔)

	84년도		85년도	
	국 명	供 與 額	국 명	供 與 額
1	버마	89,163	인도네시아	75,400
2	인도	72,090	중국	75,100
3	인도네시아	71,600	타이	73,077
4	중국	71,500	필리핀	72,718
5	타이	69,638	인도	69,231
6	한국	49,500	방글라데시	54,500
7	필리핀	42,500	한국	54,400
8	말레이시아	21,000	이집트	50,000
9	콜롬비아	20,683	버마	36,150
10	스리랑카	15,370	파키스탄	32,277
	86년도		87년도	
	국 명	供 與 額	국 명	供 與 額
1	중국	80,600	필리핀	120,608
2	인도네시아	80,000	인도	97,977
3	인도	48,443	인도네시아	88,000
4	한국	44,633	중국	85,000
5	시리아	29,630	타이	81,824
6	터어키	27,300	스리랑카	44,881
7	스리랑카	17,000	파키스탄	34,084
8	에쿠아도르	16,264	버마	32,900
9	말레이시아	12,574	방글라데시	24,000
10	파라구아이	11,847	네팔	18,770
	88년도		89년도	
	국 명	供 與 額	국 명	供 與 額
1	인도네시아	197,629	인도네시아	178,407
2	중국	161,521	필리핀	114,963
3	필리핀	129,037	중국	97,179
4	파키스탄	100,423	인도	91,164
5	인도	93,380	타이	81,154
6	말레이시아	78,787	브라질	65,564
7	타이	75,818	말레이시아	61,260
8	방글라데시	47,513	케냐	46,104
9	나이지리아	28,606	터어키	35,200
10	한국	27,262	스리랑카	30,128

(주) 채무구제분도 포함. (외무성자료)

(ⅲ) 89년도까지의 누계로 본 엔차관의 15대 供與國

(단위: 백만엔, %)

	국 명	供與金額의 累計	비중
1	인도네시아	1,793,345	17.5
2	인도	1,047,006	10.2
3	중국	870,900	8.5
4	필리핀	854,565	8.3
5	타이	833,011	8.1
6	파키스탄	549,363	5.4
7	한국	545,937	5.3
8	말레이시아	468,018	4.6
9	방글라데시	418,582	4.1
10	미얀마	402,972	3.9
11	이집트	366,507	3.6
12	스리랑카	228,963	2.2
13	터어키	164,134	1.6
14	케냐	128,681	1.3
15	브라질	122,808	1.2
	供與總額累計	10,255,668	100

(외무성자료)

(ⅳ) 엔차관조달방식별 실적의 추이 (交換公文基準) (단위:억엔 %)

년도	1985		1986		1987		1988		1989	
조달방식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반무조건	3,548	50.8	2,106	50.8	4,299	61.6	8.212	77.4	7,911	80.5
LDC무조건	3,281	47.0	2,042	49.2	2,563	36.7	2,399	22.6	1,916	19.5
타이드	152	2.2	0		113	1.6	0		0	
계	6,980	100	4,149	100	6,975	100	10,611	100	9,827	100

채무구제분은 제외함. (외무성자료)

(ⅴ) 엔차관형태별 공여실적 (단위: 억엔, %)

년도	1986		1987		1988		1989	
형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Project차관	3,312	77.7	5,077	72.1	6,280	56.3	6,610	65.4
Non · Project차관	837	19.6	1,897	27.0	4,330	38.3	3,217	31.8
상품차관	25	0.6	1,400	19.9	839	7.5	789	7.8
개발금융차관	229	5.4	147	2.1	1,338	12.0	779	7.7
개발기자재형	427	10.0	259	3.7	142	1.3	72	0.7
구조조정융자	156	3.7	91	1.3	2,011	18.0	1,577	15.6
채무구제	115	2.7	63	0.9	545	4.9	278	2.8
	4,264	100.0	7,037	100.0	11,156	100.0	10,105	100.0

交換公文基準.

(vi) 정부직접차관의 승낙액, 실행액, 대부잔고의 추이
(해외경제협력기금분)

(단위: 억엔)

년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승낙	3,179	5,398	3,596	6,358	5,815	6,042
실행	3,118	2,819	3,144	4,433	4,274	4,148
잔고	13,744	16,284	19,026	22,957	26,643	30,153

년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승낙	5,568	5,423	7,193	10,917	8,460	86,760
실행	4,127	5,188	5,447	6,182	6,522	60,754
잔고	33,580	37,826	42,366	47,450	52,908	52,908

(자료) 해외경제협력기금年次報告書 1990 (아시아경제연구소자료)

(19) 日本의 無償資金協力

(i) 무상자금협력지역·형태별실적

(단위: 억엔, %)

회계년도 / 지역 / 구분	89년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구주*	계
일반	689.99	52.57	539.70	90.19	56.76	34.00	1,463.21
	(47.1)	(3.6)	(36.79)	(6.2)	(3.9)	(2.3)	(100)
수산	-	1.97	39.57	23.16	35.30	-	100.0
		(2.0)	(39.6)	(23.1)	(35.3)		(100)
재해	9.64	10.92	6.12	3.50	0.18	1.23	31.59
	(30.5)	(34.6)	(19.3)	(11.1)	(0.6)	(3.9)	(100)
문화	7.55	3.24	3.59	7.05	0.57	-	22.00
	(34.3)	(14.7)	(16.3)	(32.1)	(2.6)		(100)
소계	707.18	68.70	588.98	123.90	92.81	35.23	1,616.80
(A)	(43.7)	(4.2)	(36.4)	(7.7)	(5.8)	(2.2)	(100)
KR	58.93	7.66	48.32	2.00	-	-	116.91
	(50.4)	(6.6)	(41.3)	(1.7)			(100)
2KR	126.00	12.50	127.92	27.50	-	-	293.92
	(42.9)	(4.2)	(43.5)	(9.4)			(100)
소계	184.93	20.16	176.24	29.50	-	-	410.83
(B)	(45.0)	(4.9)	(42.9)	(7.2)			(100)
총계	892.11	88.86	765.22	153.40	92.81	35.23	2,027.63
(A + B)	(43.9)	(4.4)	(37.7)	(7.6)	(4.6)	(1.7)	(100)

* 폴랜드에 대한 원조 (외무성자료)

(ii) 무상자금협력의 10대 공여국 (84-89년도)

(단위: 억엔)

	84년도		85년도		86년도	
	국명	금액	국명	금액	국명	금액
1	방글라데시	137.9	방글라데시	147.88	방글라데시	130.65
2	타이	132.1	타이	125.15	타이	120.68
3	버마	108.2	버마	103.93	필리핀	100.05
4	파키스탄	94.2	파키스탄	90.52	버마	97.25
5	스리랑카	87.90	스리랑카	89.82	스리랑카	94.15
6	필리핀	82.94	필리핀	81.84	파키스탄	84.56
7	인도네시아	81.27	인도네시아	81.22	인도네시아	77.73
8	수단	60.62	수단	64.35	중국	69.68
9	네팔	58.85	네팔	62.12	수단	65.29
10	중국	54.93	중국	58.96	네팔	65.12

	87년도		88년도		89년도	
	국명	금액	국명	금액	국명	금액
1	방글라데시	128.8	방글라데시	136.42	방글라데시	158.59
2	타이	123.7	필리핀	127.53	필리핀	141.78
3	필리핀	110.6	파키스탄	108.73	파키스탄	95.50
4	버마	95.82	타이	93.26	타이	88.82
5	스리랑카	95.27	스리랑카	88.72	스리랑카	84.79
6	수단	94.44	중국	79.58	인도네시아	81.54
7	파키스탄	91.99	인도네시아	71.50	잠비아	74.38
8	인도네시아	82.67	자이르	60.29	케냐	62.74
9	탄쟈니아	71.87	수단	59.72	탄쟈니아	60.59
10	네팔	71.84	네팔	55.45	수단	57.55

(외무성자료)

900016

(20) 국제기관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 (支出純額基準)

(단위: 100만$)

년도 / 기관명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국제연합제기관에의증여	287.83	238.59	265.52	348.55	359.49	378.24
국제연합개발계획	67.67	40.02	76.09	64.80	70.05	83.60
세계식량계획	46.68	47.50	20.22	54.45	60.99	57.56
U.N난민高等弁務官事務所	61.96	47.54	45.48	57.30	57.73	57.15
U.N인구활동기금	36.65	31.41	26.58	69.84	48.93	52.13
U.N환경기금	4.10	-	-	4.25	4.50	4.75
U.N대학기금	2.00	1.89	2.12	2.41	0.20	0.20
세계보건기구	16.65	18.01	17.86	26.66	22.41	23.74
U.N식량농업기구	6.24	7.17	5.30	7.38	7.09	9.01
기타	45.88	45.05	71.87	61.46	87.59	90.10
(2)기타제기관에의 증여	17.65	18.85	20.69	28.53	31.32	40.06
ASEAN무역관광투자촉진센타	2.19	2.27	2.38	1.07	5.49	7.02
아시아태평양사회문화센타	0.09	0.09	0.09	0.11	0.09	0.09
ASEAN청년 장학기금	1.04	1.00	0.99	1.24	1.00	1.00
아시아 생산성기구	2.45	2.61	2.47	3.42	3.17	3.65
동남아시아어업개발센타	1.07	1.23	1.80	1.46	1.71	2.01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	10.32	11.13	11.59	18.25	17.89	22.75
기타	0.49	0.52	1.37	23.65	26.44	3.54
국제기관에대한증여합계 (1) - (2)	305.48	257.44	286.21	377.08	390.82	418.30
(1)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출자	-	72.72	-	-	63.92	205.93
(2)국제개발협회(IDA)출자	648.65	1,117.64	562.04	826.43	1,121.18	1,339.55
(3)국제금융공사(IFC)출자	-	-	-	6.50	6.50	6.50
(4)아시아개발은행출자(주1)(주2)	301.33	317.27	15.85	440.29	448.26	519.68
(5)아프리카개발은행출자	45.37	90.73	65.04	110.98	107.26	155.66
(6)미주개발은행출자 (주1)	3.66	4.30	△2.25	20.95	24.07	27.31
(7)국제농업개발기금	17.84	17.84	-	6.20	44.80	6.64
(8)기타	-	-	-	1.57	-	32.23
국제기관에대한출자등 합계 (1) - (8)	1,016.85	1,620.50	640.68	1,412.91	1,815.99	2,293.50

(자료) DAC자료, 외무성자료, 아시아경제연구소자료.
(주1) 특별사업기금에 대한 갹출 포함.
(주2) 아시아개발기금에 대한 갹출 포함.